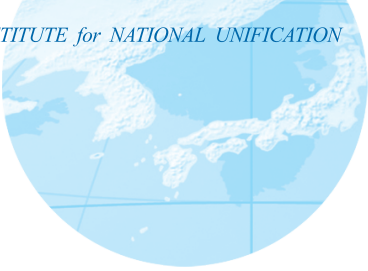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4호 (2010년 7·8월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4호 (2010년 7·8월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Contents

7 July 2010

❶ 주차_07.01-07.04	1. 대내 6 가. 정치 나. 경제 다. 사회·문화
	2. 대외 10
	3. 대남 10
❷ 주차_07.05-07.11	1. 대내 14 가. 정치 나. 경제 다. 사회·문화
	2. 대외 23
	3. 대남 26
❸ 주차_07.12-07.18	1. 대내 30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2. 대외 40
	3. 대남 42
❹ 주차_07.19-07.25	1. 대내 46 가. 정치 나. 경제 다. 사회·문화
	2. 대외 54
	3. 대남 60
❺ 주차_07.26-07.31	1. 대내 66 가. 정치 나. 경제 다. 사회·문화
	2. 대외 80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83

인쇄: 2010년 9월 발행: 2010년 9월
 발행처: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편집인: 북한연구센터 편집간사: 정재은·최재령 연구원
 등록: 제2-02361호(97.4.23) 주소: (142-728)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900-4300 / (직통) 901-2525 / (팩시밀리) 901-2544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디자인·인쇄: (주)에원기획 02)745-8090
 (비매품)

8 August 2010

❶ 주차_08.01-08.08	1. 대내 86 가. 정치 나. 경제 다. 사회·문화
	2. 대외 98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100
❷ 주차_08.09-08.15	1. 대내 106 가. 정치 나. 경제 다. 사회·문화
	2. 대외 116
	3. 대남 119
❸ 주차_08.16-08.22	1. 대내 126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2. 대외 135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139
❹ 주차_08.23-08.31	1. 대내 144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2. 대외 167
	3. 대남 173
■ 7월 일지 / 176	
■ 8월 일지 / 178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07.01-07.04

7월

1주차

1. 대내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사회·문화
2. 대외
3. 대남

1 대내

가. 정치

- **김정일, 군인가족 예술경연 참가자 만나(7/1,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민군 제2기 3차 군인가족 예술소조 경연 참가자들을 만나고 기념촬영을 함.
 - 김 위원장은 고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 광장에서 군인가족 예술소조원들을 만났으며 “모든 군인가족들이 불타는 조국애와 혁명적 군인정신을 더 높이 발휘하여 총 잡은 남편들과 한 전호에서 사회주의 조국방선을 철벽으로 지켜가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다”고 밝힘.
 - 김 위원장의 군인가족 예술소조원 만남에는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리영호 군 총참모장, 우동측 국방위원회 위원, 주상성 인민보안부장 등이 수행

- **北김정일, 천안함사건 국제공조 분쇄 지시(7/2, 자유아시아방송(RFA))**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외교·무역부문 기관과 북한 주민의 해외 방문을 허가하는 국가보위부 등에 천안함사건과 관련한 남한 주도의 국제공조를 깨기 위해 ‘결사항전’에 나설 것을 지시
 - 이 지시는 “국제공조를 짓부시는 투쟁은 우리 식 사회주의를 지키고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전인민적 결사항전”이라면서 “국제공조를 분쇄하지 못하면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에 큰 난관이 조성된다”고 강조
 - 김정일 위원장이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은 무역 업무나 친척 방문을 위해 중국을 방문중인 북한 주민들에게서도 확인되고 있음.
 - 북한 량강도 혜산시의 무역관리국 일꾼은 “중국에 나오기 전 꾸준히 설득하고 해설해서 한사람의 지지자라도 더 만들어야 한다는 방침을 받았다”고 방송에 말했고, 중국 지린(吉林)성 투먼(圖們)시를 방문한 북한 주민은 “출국 전 보위부 외사과에서 ‘중국 내 친척과 주변 사람들에게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적극적인 설득전에 나서라'는 지침과 함께 3시간 동안 교육을 받았다"고 밝힘.

김정일동향

- 7/1 김정일, 인민군 제2기 3차 군인가족 예술소조 경연 참가자들을 만나고 기념촬영(7/1, 중방)
 -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리영호 군 총참모장, 우동측 국방위원회 위원, 주상성 인민보안부장 등이 수행
- 7/3 김정일,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이승빈」 등에게 생일상 전달(7/3, 중방)

기타 (대내 정치)

- 양형섭, 7/1 중국 국가라디오영화TV방송총국 대표단(단장 : 전진 부국장)과 담화(7/1, 중통)
- '6.25 미제반대투쟁의 날' 反美 軍民대회, 咸北道와 개성시에서 각각 진행(7/1, 중방)
 - 오수용(前 내각 부총리) 咸北 黨 책임비서 등 연설
-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제42차 전원회의, 7/1 리용철(청년동맹 1비서/보고) 등 참가下 백두산선군 천년발전소 건설장에서 진행(7/2, 중방)

나. 경제

● 中...조선족 여성기업가 北비닐시장 평정(7/1, 연변신식향)

- 중국의 조선족 여성 기업가가 북한 진출 5년 만에 북한 비닐제품 시장을 평정.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투먼(圖們)의 '화인비닐제품회사'를 경영하는 박미화(40)씨가 북한 진출 5년 만에 연간 1천500만 달러(186억 원) 어치를 수출하며 북한 비닐제품시장에서의 점유율을 85%까지 끌어올렸다고 전함.
- 2003년 함경북도 온성군에 들어가 비닐제품을 팔기 시작한 그녀는 곧 라진과 청진 등으로 꾸준히 사업 영역을 확대. 신용을 지키면서 북한 측의 인정을 받게 된 그녀는 마침내 북한 비닐제품 시장을 석권하면서 화인비닐제품회사를 중국의 대표적인 대북 비닐 수출업체로 자리매김

● 올 상반기 국제사회 대북지원 급감(7/1, 자유아시아방송(RFA))

- 올해 상반기 유엔을 통해 북한에 제공된 국제사회의 지원이 미화 1천166만달러 규모로 작년 전체의 20% 수준에 불과

- 올해 1~6월 유엔 인도지원조정국(OCHA)을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에 제공한 현금과 물품은 총 1천166만7천890달러(한화 143억3천만원)로 작년 전체 지원액(5천900만달러)의 19.8%
- RFA는 “상반기 지원액 중 약 800만달러는 유엔 긴급중앙구호기금(CERF)에서 나간 것이어서 국제사회의 순수 지원은 약 370만 달러로 3분의 1 밖에 안 된다”면서 “대북 지원에 참여한 국가도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세 나라뿐이며, 작년에 지원했던 캐나다, 호주, 핀란드, 노르웨이 등은 올해 빠졌다”고 전함.
- RFA는 또 “지난 4월 스위스가 280만 달러 상당의 유제품을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에 제공한 이후 국제사회의 지원이 전혀 없다”면서 “이대로 가면 올해는 지난해 지원 규모에 미치지 못할 것 같다”고 전망
- 대북 지원이 급감한 이유로 RFA는 지진피해를 입은 아이티와 칠레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집중, 남북한 갈등으로 인한 한국의 지원 중단, 유럽의 경제위기 등을 꼽았음.

● 北…대계도 간석지 공사 준공(7/1, 조선중앙방송)

- 통신은 “대계도 간석지가 완공돼 한 개 군 면적과 맞먹는 부침땅이 얻어졌다”면서 “이로써 나라의 농업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커다란 진전을 이룩하기 위한 밑천이 마련됐다”고 밝힘.
- 준공식에는 최영림 내각 총리,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김락희 부총리, 김평해 평북도 당 책임비서, 김창식 농업상, 김의순 국가검열상 등이 참석
- 1980년대 초 시작된 이 사업은 평북도 염주군과 철산군 앞바다의 다사도 부터 가차도, 소연동도, 대계도, 소계도, 철산반도까지 이어지는 총 13.7 km를 독으로 막아 매립하는 것으로, 북한 매체들은 이 사업이 완료되면 1개 군의 경지면적과 맞먹는 8천800여 정보의 땅이 생긴다고 전함.

■ 기타 (대내 경제)

- 금야군(咸南), 전기문제 해결 위한 금야강2호발전소 건설 추진 中(7/1, 중방)

다. 사회·문화

● FIFA, 北 축구시설 개보수에 155만 달러 지원(7/1, 자유아시아방송(RFA))

- 국제축구연맹(FIFA)은 북한의 축구 시설 개보수를 위해 2001년부터 지금까지 미화 155만달러(한화 19억원)를 지원
- FIFA 홍보국은 RFA에 보낸 이메일에서 “2001년에 45만 달러를 들여 김일성경기장의 인조잔디를 교체했고, 2004년에는 북한축구협회의 요청으로 국가대표팀 합숙소와 축구협회 건물 보수에 41만 달러를 지원했다”면서 “지금은 69만 달러를 투입해 평양 서산축구경기장의 청소년합숙소를 고쳐 짓고 있다”고 밝힘.
- 이번 남아공 월드컵에 출전한 북한대표팀 선수들도 FIFA의 지원을 받아 보수공사를 마치고 2006년 1월 다시 문을 연 합숙소에서 장기간 합숙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짐.

● 北, 고찰 심원사 복원작업(7/2, 조선신보)

- 신보는 북한이 최근 황해북도 연탄군 연탄읍 자비산중턱에 있는 고려말 사찰인 심원사에 대한 대대적인 복원작업을 마쳤다고 전함.
- 이어 심원사의 중심건물인 보광전은 황해북도 사리원시 성불사의 응진전, 평안북도 박천군에 있는 무량수전과 함께 북한지역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의 하나라면서 “보광전의 건물기둥과 지붕의 사개를 바로잡고 단청을 복원하는 한편 네 추녀 밑에 풍경을 달고 받침기둥을 세웠으며, 탕화를 미술전문가들이 새로 그렸다”고 설명
- 고려시기 황해도내 모든 사찰들을 통솔하는 도급(道級)사찰이었던 심원사는 원래 9세기 선승이자 풍수지리학의 대가였던 도선국사가 성불사와 함께 세운 것으로 알려졌으며, 1374년 고려말 유학자 이색의 권유로 대대적으로 보수된 이후에도 여러 차례 고쳐졌고 1960년대 마지막으로 크게 보수됐다고 신문은 덧붙임.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경희극 ‘산울림’, 6/30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첫 공연(7/1, 중통)

2 대외

가. 일반

- 北…천안함 공동조사 필요, 안보리에 서한(7/1, 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서한을 보내 천안함 침몰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남북한이 공동으로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
 - 유엔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유엔 주재 북한 신선호 대사는 안보리 의장국인 멕시코의 클라우드 헬러 대사 앞으로 보낸 29일자 서한에서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검열단을 한국과 미국이 받아들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안보리 이사국들이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
 - 북한은 아울러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통해 천안함 사건이 논의되어야 한다면서 이 회담에서 군사정전위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

기타 (대외)

- 김영남, 부룬디 대통령에게 독립절 즈음 축전 발송(7/1, 중통)

3 대남

- 北…南의 전작권 전환연기 비난(7/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일 한·미 양국이 전 시작전통제권 이양 시점을 2015년 12월 1일로 3년 7개월여 연기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위험천만한 현 사태를 더욱 극단으로 몰아가며 우리와의 전면전쟁도 불사하는 극히 엄중한 도발”이라고 주장
 - 통신은 이날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오후(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한 사실에 언급, “조선반도(한반도)와 그 주변지역의 전쟁위험은 더욱 증대되게 되었다”고 말함.

- 답화는 이어 “괴뢰군 함선침몰 사건이 일본의 후텐마 미군기지 이설요구를 눌러버리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를 노린 미국의 특대형 모략극이었다는 것을 여지없이 확증해 주고 있다”고 강변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07.05-07.11

7월

2주차

1. 대내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사회·문화
2. 대외
3. 대남

1 대내

가. 정치

- **김정일 현지도도 1, 2위는 김경희·장성택 부부(7/5, 연합뉴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올 상반기 작년 같은 기간보다 경제 분야 현지도도를 강화.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과 남편인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김 위원장의 현지도도를 가장 많이 수행
 - 통일부는 5일 북한 매체의 보도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김 위원장의 현지도도는 총 77회로 지난해 상반기 77회와 같은 수준이라고 밝힘.
 - 분야별 현지도도는 경제 분야가 33회로 가장 많았고, 군 관련 21회, 외빈 접견 등 대외활동 6회, 공연관람 등 기타 17회. 경제 관련 현지도도는 작년 동기의 27회에서 33회로 늘어났고, 군 관련 현지도도는 27회에서 21회로 감소
 - 김 위원장의 현지도도 수행은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이 56회로 1위를 차지함. 작년 같은 기간 김경희 경공업부장은 수행 상위 10위권에도 들지 않았음.
 - 작년 상반기 42회로 수행 빈도 2위를 차지했던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은 올해 상반기에도 45회를 수행해 김 위원장과의 ‘지근 거리’를 유지. 다음으로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40회), 최태복 당중앙위 비서, 현철해 국방위 국장(25회) 등이 뒤를 이었음.

- **北…박남기 친인척, 회령관리소 이송(7/7, 좋은벗들)**
 - 북한 화폐개혁의 실패 책임의 희생양으로 지난 3월 처형된 박남기 전 당 계획재정부장과 다른 관련 간부들의 친인척 34세대가 지난달 14일 함경북도 회령의 ‘22호 관리소’(정치범수용소)로 전원 이송
 - 단체는 북한 보안당국 간부의 말을 인용, “국가안전보위부 3처의 지시에 따라 저녁에 급히 앓고 있는 사람들까지 이들 친인척을 모두 끌어내 죄수용 유개차(지붕차)에 싣고 왔다”면서 “관리소로 들어갈 때 어떤 짐도 소지할 수 없게 했다”고 밝힘.

- 또한, “22호 관리소는 회령시 창효리와 금생리 사이에 위치해있는데 유개차 8대와 완전무장한 군인을 태운 차량 3대가 호송에 동원됐다”며 “해외에서 인권침해니 유린이니 떠들어 대기 때문에 비밀 보장을 위해 한밤중에 호송해 주민들이 보지 못하도록 했다”고 전함.

● 北…김일성 추모행사 성대(7/8, 데일리NK)

- 북한이 고 김일성 주석의 사망 16주년(7월8일)을 맞아, 올해가 관행적으로 중시해온 5년, 10년 단위의 ‘꺾어지는 해’(정주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인 추모행사를 벌임.
- 신문은 중국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 “중국의 단둥(丹東) 같은 국경 도시에서는 지난 5일째부터 추모행사에 쓸 꽃다발을 가득 실은 차량들이 설새 없이 국경을 통과했다”면서 “작년은 ‘꺾어지는 해’에 해당돼 꽃다발 수요가 대단했는데, 올해는 꺾어지는 해가 아닌데도 작년과 거의 비슷한 양으로 꽃이 들어가는 것 같다”고 말함.
- 이어 “올해 추모행사를 이처럼 크게 벌이는 것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백두산 줄기’만 혁명전통을 계승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인 듯하다”면서 “일부 주민들도 ‘김정은을 높이기 위한 것 아니냐’는 말을 하고 있다”고 덧붙임.
- 또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 “예년과 달리 올해는 중앙당에서 추모 기간을 선포했고, 주민들이 추모행사에 조직별로 참여하라는 지시도 내려왔다”면서 “이에 따라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전역에서 추모행사가 진행됐다”고 설명
- 매체는 “평양과 주요 도시의 기업소, 인민반, 당 조직 등 단위로 김일성 동상 참배와 헌화가 이어졌고, 김일성 육성녹음을 청취하는 ‘강연회’와 김일성의 업적을 회고하는 ‘학습회’도 조직적으로 열렸다”면서 “추모 기간 주민들의 장거리 여행도 통제했다”고 전함.
- 이와 관련,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김일성 사망 16주년 사설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중심으로 뭉쳐 김일성 주석이 열어준 ‘주체의 길’을 따라 분발함으로써 ‘강성대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소개
- 조선중앙방송도 7일 당·정·군 간부들이 평양 인민문화궁전에 모여 기록

- 영화 ‘아버이 수령님, 일군(일꾼)들과 함께 계시어’를 관람했다고 전함.
- 당·정·군 간부들은 김 주석의 사망일인 8일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하고 동평양대극장에서 열린 회고음악회 ‘영원한 미소’를 관람하기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각지방에서도 추모행사가 열려 함경북도와 량강도에서는 도 예술인들의 회고음악회가 열렸고 강원도, 자강도, 황해남도에서는 직맹원과 여맹원이 참여하는 회고음악회가 개최. 또 소년단 야영소에서는 ‘대원수님을 그리는 야영의 밤’ 행사가 열림.

● 北호위사령부, 김정일 잔여수명 ‘최장3년’ 결론(7/9, 열린북한방송)

- 방송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경호부대인 호위사령부가 앞으로 김 국방위원장일 길어야 3년밖에 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함.
- 이 방송은 북한의 고위급 소식통을 인용, “호위사령부 산하 특수진료과가 2008년 뇌졸중 발병 이후 신장투석, 만성후두염 등으로 악화된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종합해 내린 결론”이라면서 “김 위원장은 신체적 약화뿐 아니라 우울증으로 감정의 굴곡도 아주 심해졌다”고 말함.
- 방송은 또 “최근 김 위원장의 예술공연 관람이 아주 잦아진 것도 현지도 성격이 아니라 우울증 치료와 정서적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특수의료진의 적극적인 건의를 받아 김정은(김위원장 3남)이 세운 아버지 건강수칙”이라고 설명함.

● 北김정각 ‘백두의 혁명전통 옹호 고수해야’(7/9, 조선중앙방송)

- 방송은 오중흡 탄생 100주년을 맞아 중앙보고회를 열고 “우리 당과 혁명의 만년초석인 백두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자”고 강조했다고 전함.
-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보고회에서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은 “자기 수령, 자기 영도자의 두리(주위)에 사상의지적으로, 도적의리적으로 굳게 뭉친 혼연일체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굳건히 이어나가야 하겠다”고 말함.
- 김 제1부국장은 “세월이 흐르고 세대는 열 백번 바뀌어도 변할 수 없는 것이 백두의 혁명정신”이라며 이같이 강조

- 그는 이어 “전체 인민군 장병과 인민들은 반공화국 도발책동에 대처해 분노와 적개심을 안고 고도의 격동상태를 견지해야 한다”며 “적들의 정치군사적 도발과 침략행위, 자주권 유린행위에 무자비한 징벌을 가할 수 있도록 만단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날 행사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 주상성 인민보안부장 등이 참석
- **北김정은, 노동당 고위직 차지…獨 클리츠 대표(7/10, 미국의 소리(VOA))**
-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의 발터 클리츠 한국사무소 대표는 10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 김정은 후계구축과 관련, “북한이 현재 취하고 있는 모든 조치들은 권력 이양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다”며 “김정은은 현재 노동당에서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방송은 전함.
 - 지난 4월 26~28일 평양을 방문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16차례 방북 경험이 있는 클리츠 대표는 VOA와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 노동당과 내각의 고위 관리 8명이 지난 3일부터 일주일간 독일을 방문, 도시개발 등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석하고 독일 외무부 당국자, 의원들과도 만나 6자회담과 후계문제, 식량난, 천안함 사건 등 현안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밝힘.
 - 그는 “북한 관리들과의 대화에서 후계 문제가 북한 당국의 핵심 현안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지난 4월 평양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북한의 당과 군 등 모든 조직에서 권력 승계와 관련한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함.
 - 이어 특히 “북한에서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다지려는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데 방북 당시 아이들이 ‘청년대장’ 김정은에 대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소개
 - 그는 또 북한 관리들이 6자회담과 관련해 “핵무기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중요한 자산이자 (외부로부터의 핵공격에 대한) 억지력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밝혔으며 이어 북한 관리들이 자신과의 면담에서 “현재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배급체계를 다시 구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장마당의 영향력을 약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소개

-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북한 관리들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고 다른 나라들로부터 투자를 이끌어내길 원하는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다”고 무관함을 주장했다고 그는 전함.

김정일동향

- 7/7 김정일, 원산군민발전소 건설장 현지지도(7/7, 중통)
 - 백계룡(강원도당 책임비서),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 태종수(당 부장), 주규창·이재일(당 제1부부장들) 동행
- 7/7 김정일, 534군부대산하 종합식료공장 장아씨생산공정 현지지도(7/7, 중통)

기타 (대내 정치)

- 김정일 저작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위력한 사회주의 정치방식이다’ 발표 관련 선군정치는 “승리와 번영의 만능의 보검”이라고 선군정치의 ‘위대성, 정당성’ 주장(7/5, 중방)
- 訪北 한상렬 목사, 동명왕릉(동명왕릉개건기념비와 왕릉, 돌조각상들, 정릉사)과 평양학생소년궁전·3대혁명전시관·모란봉제1중학교 등 참관 및 평양교예극장에서 종합교예공연 관람(7/5, 중통)
- 노동계급과 직맹원들, 리영수(黨 부장)·최수동(직총 부위원장/보고) 등 참가자 김일성 사망 16돌 즈음 맹세모임(만수대언덕 김일성동상앞) 진행(7/6, 중방)
- 김일성의 혁명무력건설과 정권건설 역사는 “군대와 국가의 강화발전을 위한 만년토대로 되고 있다”며 김父자의 위대성 칭송(7/7, 중통·노동신문)
- 김父자영상 모자이크벽화, 여러 단위들에서 건립 및 준공식을 진행(7/8, 중통)
 - 양강도 해산영예군인일용품공장, 황북 신계군 백곡리·사리원청년역, 린산군 상하리 등
- 김일성 사망 16돌 즈음 당 및 국가 간부들과 우당위원장, 중앙기관 책임일꾼들, 군 지휘성원 등, 금수산기념궁전 참배(7/8, 중통)
- ‘반제민전’ 부위원장, 김일성의 조국통일 관련 친필을 남긴 16돌 즈음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6.15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싸워나갈 것” 등 요지의 담화 발표(7/8, 중통)

나. 경제

● 北…외국인 금강산 숙박상품 개발(7/5, 조선신보)

- 북한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금강산 관광상품의 개발에 나서, 이르면 오는 8월 초부터 2박3일 일정의 금강산 숙박관광을 시작할 수도 있다고 전함.
- 국가관광총국 김영일 부원은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비행편으로 조선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금강산 관광을 할 경우, 평양을 출발해 원산시

- 의 숙소에 묵게 되는데 동해안의 항구도시를 거점으로 하루로 명산을 돌아본다”며 “하루로는 금강산을 다 돌아볼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힘.
- 김 부원은 “2박3일 정도로 금강산 지구를 돌아볼 수 있는 다종다양한 관광노정을 구상하고 있다”며 “실무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 만물상, 삼일포, 구룡연의 세 지구를 중심으로 한 폭넓은 지구에 대한 관광 상품이 개발될 것”이라고 설명
 - 신문은 “머지않아 금강산 현지에서 숙박하면서 관광하는 새 상품도 내놓게 된다”며 “내년부터 인기있는 상품을 내놓을 것으로 예견하는데 이르면 8월초부터 10월 중순까지 아리랑 공연기간부터 시작될 수도 있다”고 소개
 - 김영일 부원은 “올해 4월 중국의 관광부문 일꾼 300명이 포함된 대규모 방문단이 금강산을 방문했고 유럽 나라의 시찰단도 현지를 돌아봤다”며 “현재 금강산 지구 관광을 외국의 관광업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제안하고 있는데 그 반향이 아주 좋다”고 주장
 - 이어서 “천안호 사건으로 인해 관광객도 감소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았는데 큰 영향은 없었다”며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이 진행되는 기간은 조선의 기본관광계절인데 여행사 일꾼들이 감당해낼 수 있는지 우려될 정도로 많은 예약들이 들어오고 있다”며 외국인 여행객 모집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

● **올해 북·중 무역규모 18% 증가(7/6, 연합신문)**

- 천안함 사태로 남북교역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올해 들어 북한과 중국 간 무역규모는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6일 중국 해관(세관)의 올해 1~5월 북·중 무역 통계에 따르면 북·중간 무역규모는 총 9억8천363만 달러로 작년 동기의 8억3천307만 달러보다 18.1% 증가
- 북측 입장에서 대중 수입은 7억2천719만2천 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29.0% 증가했지만 수출은 2억5천643만8천 달러로 4.9% 감소. 이에 따라 올해 북한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4억7천75만7천 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60% 확대
- 금액 기준 북한의 최대 대중 수입품은 원유로 25만4천t을 기록해 전년 동기의 24만7천t보다 소폭 증가. 그러나 금액기준으로는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1억5천709만7천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보다 무려 76.0%나 급증

- 특히 쌀(2만4천400t), 옥수수(3만1천400t), 콩(2만500t), 밀가루(3만4천t) 등 주요 곡물 수입은 11만300t으로 전년 동기보다 41% 증가. 비료 수입도 8만1천943톤으로 전년 동기의 3만8천4톤에 비해 115.6% 급증. 곡물과 비료 수입 증가는 최근 악화 우려가 일고 있는 북한의 식량난에 따른 것으로 보임.
- 금액 기준으로 항공유(46.8%↑)와 화물자동차(98.7%↑), 자동차 휘발유(47/4%↑), 유연탄(137/0%↑) 등도 수입이 증가
- 북한의 대·중 수출 가운데는 철광이 4천394만5천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01.6%나 증가하며 수출 비중 1위를 차지. 이에 비해 무연탄 수출은 4천106만달러로 전년보다 66.3% 급감

● 北…합영투자지도국→합영투자위원회 확대개편(7/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합영투자지도국’을 ‘합영투자위원회’로 확대·개편됨.
- 신문은 “조선에서 합영투자지도국을 합영투자위원회로 개편했다”며 “이와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8일에 발표했다”고 밝힘.
- 북한에서 ‘지도국’은 우리의 처(處)급 기관으로 내각의 기구이지만 성(省)보다는 하위 기관이며 ‘위원회’는 성보다 규모가 큰 조직. 따라서 이번 조치는 북한은 ‘합영투자지도국’을 ‘합영투자위원회’로 격상함으로써 외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임.
- 한편 지난 7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2기3차회의에서 체육지도위원회를 체육성으로 개편하면서 북한 내각에는 국가계획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 2개의 위원회가 있었으나 교육성을 교육위원회로 개편하고, 이어서 이번에 합영투자위원회를 만들에 따라 내각 산하에 위원회는 4개로 늘어남.

기타 (대내 경제)

-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일꾼-노동자들, 생산공정의 개건 현대화공사 박채(7/5, 평방)
- 평양열사능 준공식, 양양길(평양시인민위원회장/준공사)등 참가 낙랑구역 장교리에서 진행(7/7, 중통)
- 개성시, 소금밭을 새로 건설하여 햇소금 생산이 시작됐다고 선전(7/7, 중통)

다. 사회·문화

- **개성공단서 北 통근버스 2대 충돌. 50여명 사상(7/7, 연합뉴스)**
 -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를 태운 통근버스 2대가 충돌, 5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짐. 7일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7시30분께 개성공단 내 교차로에서 북한 근로자를 태운 통근버스 1대가 다른 통근 버스 옆부분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두 버스에 타고 있던 북한 근로자 10명이 숨지고 40여명이 다친 것으로 파주경찰은 파악
 - 사고는 당시 개성공단에 비가 많이 내려 시야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일어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음. 경찰 관계자는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개성공단을 오고 가는 근로자를 통해 사고내용이 파악됐다”라며 “빗길 사고로 파악될 뿐 사고 경위와 인명피해 규모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라고 말함.

- **국제적십자연맹, 北적십자와 사업점검 워크숍(7/9, 자유아시아방송(RFA))**
 - 국제적십자연맹(IFRC)이 이달 중 북한의 조선적십자회와 워크숍을 갖고 재난 대비, 질병 퇴치 등 대북사업 전반을 점검할 예정
 - 방송은 7일 발표된 IFRC의 동아시아 지역 보고서를 인용, “IFRC 북한 사무소가 조선적십자회 관계자들과 워크숍을 갖고 현재 진행중인 대북 사업을 점검하고 평가할 계획”이라며 “특히 북한에 지원된 의약품과 의료 장비 등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함.
 - 이어 “북측 관계자들이 재난 대비 등과 관련해 배운 내용을 즉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연수가 되도록 하고, 동시에 하반기 사업계획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임.
 - IFRC는 올해 대북사업 예산을 미화 950만 달러(한화 116억원)로 늘려 홍수 등 재난방지와 질병 퇴치, 상·하수도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특히 진로소 2천여 곳에 5천여 개의 구급약 상자를 제공하고 지역 단위의 응급조치 프로그램을 확대했다고 방송은 설명

● 北…홍수피해 예방 분주(7/8, 조선중앙통신)

- 장마철을 맞아 북한 전역에서 홍수피해 예방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음.
- 신문은 “강원도, 자강도, 함경남도 등 각지의 대·중·소규모 수력발전소에서 언제(дук)와 취수구, 물길 등 수력구조물 보수정비 작업이 진행하고 있다”면서 광산 지역인 안주, 순천, 단천 등에서는 갭 안팎의 배수설비를 점검·보수하면서 채취한 석탄과 광석의 유실 방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전함.
- 이어 황해남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등의 협동농장이 집중호우에 대비해 도랑과 배수로를 점검하고 있고, 갑문관리 부문에서는 큰 물이 날 때 언제든지 배수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임.
- 기상수문국(기상청 해당)은 큰물 및 기상 예보를 정확히 하고, 기상수문 자료의 정확성과 과학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통신은 말함.

● 北통신, 미국인 곰즈 자살 기도(7/9,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해당기관의 통보를 인용, “교화중에 있는 미국인 곰즈가 심한 죄책감과 구원 대책을 세워주지 않고 있는 미국 정부에 대한 실망감에 최근 자살을 기도했으며 현재 병원에 옮겨져 구급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힘.
- 이 통신은 그러나 곰즈씨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자살을 기도했고, 현재 심신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채 “미국의 이권을 대표하는 주조 스웨리에(스웨덴) 대사관이 병원에서 환자 상태를 요해(이해)했다”고만 덧붙임.

■ 기타 (대내 사회 문화)

- 조선노동당 출판사, 도서 ‘김일성의 혁명역사자료집(11)’ 출판(7/6, 중동)

2 대외

가. 일반

● 北외무성, 검열단 파견 재차 강조(7/6,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은 6일 천안함 사건을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유엔 군사령부의 제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북한의 검열단 파견과 이를 위한 남북고위급군사회담 실무접촉 개최를 재차 주장
-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 문답에서 “미국은 정전협정 위반과 관련된 문제들은 조(북)·미 군부장령급(장성급)회담에서 논의한 전례가 있으므로 이번 사건도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천안호 사건은 정전협정 위반은커녕 그 진상 자체가 밝혀지지 않은 사건”이라며 정전위 논의를 거부
- 그는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파견해 진상부터 밝히자는 것, 그와 관련해 북·남고위급 군사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가지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객관성과 공정성의 원칙에서 허위와 진실을 가려보아야 하며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기 위한 우리의 제안에 응당한 주목을 돌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中 재해 구조능력 호평(7/6, 노동신문)

- 신문은 중국 정부가 남부지방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여준 구조·구호 능력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중국의 구조작업이 신속하게 이뤄졌으며 질서 있는 구조시스템 덕분에 재해 극복이 효과적으로 진행됐다고 말함.
- 이어 중국 지도층이 재해극복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인민해방군이 재해 구조에 앞장서는 빛나는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칭찬
- 또 북한 인민은 중국 인민이 홍수 피해를 극복하고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함.

● **中홍십자회, 北적십자에 물자 기증(7/7, 조선중앙방송)**

- 북한을 방문중인 중국 홍십자회 대표단이 7일 조선적십자회에 물자를 기증
- 방송은 “기증식이 7일 평양에서 진행됐다”고 밝혔으나 중국 홍십자회측에서 전달한 물자의 품목과 수량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기증식에는 백용호 조선적십자회 부위원장과 학림나 중국 홍십자회 부회장, 류홍차이(劉洪才) 주북 중국대사 등이 참석

● **北조평통, 안보리 문서 채택시 결사전 불사(7/7, 조선중앙통신)**

-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우리를 조금이라도 걸고 드는 모략문서가 조작되는 경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의 국가적 존엄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엄중한 침해로 간주하고 국권수호를 위한 정의의 결사대전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힘.
- 조평통은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정의와 양심, 분별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미국과 괴뢰들의 불순한 모략책동을 각성있게 가려보아야 하며 유엔이 또다시 미국의 농락물로 되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
- 또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G8(주요 8개국) 의장성명과 중·미 7개국 정상의 특별선언문 등을 거론하며 “합선 침몰사건을 국제무대에까지 들고 다니며 반공화국 대결모략소동에 날뛰는 괴뢰보수패당을 온 민족의 이름으로 준열히 단죄 규탄한다”고 말함.

● **北신문, G8대북성명 관련 日총리 비난(7/9, 조선중앙통신)**

- 노동신문은 지난달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서 대북 비난성명 채택을 적극 지지한 것으로 전해진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에 대해 “미국의 반공화국 소동에 돌격대로 놀아됐다”고 밝혔다고 통신은 전함.
- 통신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입이 헤프면 화를 입는다’는 제목의 개인 필명 논평에서 “천안호 사건은 미제의 부추김 밑에 남조선 괴뢰들이 조작해낸 모략극인데 간 총리가 남의 풍(장단)에 놀아나고 있다”면서 “일본이 진심으로 자국의 안보를 바란다면 조선반도 문제에서 심사숙고하고 자제하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

● 北유엔대사 ‘안보리 공정한 판단 실패’(7/10, 연합뉴스)

- 북한 신신호 유엔대사는 9일 안보리가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데 대해 “안보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공정하게 판단하는데 실패했다”고 말함.
- 그는 “우리는 처음부터 이 문제를 안보리에 가져오지 않고 남북 양자간에 협의를 통해 해결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함.
- 이어 안보리의 의장성명에 대해 “이는 우리의 외교적 승리”라고 말한 뒤 “우리는 사건의 초기부터 우리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었다”고 강조
- 그는 특히 “이번 사건으로 한반도 전체가 급박한 상황에 처했다”면서 “이는 현재의 정전체제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평화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주는 것”이라고 지적
- 신 대사는 이어 “우리는 앞으로 평화협정을 완성하고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절차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
-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해 “6자회담은 우리가 교착상태에 빠뜨린게 아니다. 우리는 6자회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면서 “우리는 6자회담을 통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

● 北외무성…6자회담 통한 평화협정체결 노력(7/10,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천안함 침몰공격 규탄 성명에 대해 “우리는 의장성명이 조선반도의 현안문제들을 ‘적절한 통로들을 통한 직접 대화와 협상을 재개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장려한다’고 한데 유의한다”며 “우리는 평등한 6자회담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일관하게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통신은 전함.
-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사 기자 문답을 통해 “남조선 당국이 ‘천안’호 침몰사건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시켰으나 이사회는 아무런 결의도 채택하지 못하고 똑똑한 판단이나 결론도 없는 의장성명을 발표하는 것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결속했다”며 “‘천안’호 사건은 애초에 유엔에 갈 필요가 없이 북남 사이에 해결되었어야 했다”며 이같이 말함.

- 그는 이어 “조선반도에서 ‘충돌과 그의 확대를 방지’할 데 대한 의장성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적대세력들이 그에 역행하여 무력시위, 제재와 같은 도발에 계속 매달린다면 우리의 강력한 물리적 대응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한 충돌확대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
- 대변인은 또 “이번 사건의 진상을 끝까지 파헤치고야 말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남조선당국은 우리 국방위원회 검열단이 현지에 들어갈 때까지 해저상태를 포함한 사건현장을 일체 꾸밈없이 보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타 (대외 일반)

- 美 국무부 대변인의 對北 인권문제 제기(7/5, 중통)
- 박용연, 말레이시아 駐在 대사, 7/1 駐在國 국왕 작별 방문(7/5, 중방)
- 서세평, 네덜란드 駐在 대사, 6/30 駐在國 여왕에게 신임장 제출(7/5, 평방)
- 김영남, 7/4 코모르 독립 35돌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7/5, 중통)
- 말라위 독립 46돌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7/2 축전(7/5, 중통)
- 김영남, 베네수엘라 독립절 즈음 ‘우고 차베스 프리아스’ 대통령에게 축전(7/5, 중통)
- 박의춘 외무상, 베네수엘라 인권주권외무상에게 축전 발송(7/5, 중통)
- 中 인민대외우호협회, 7/6 北-中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49돌 즈음 연회 마련(7/7, 평방·중통)
- 김영남, 폴란드 대통령에 당선된 ‘부르니스와브 궤모롭스키’에게 축전(7/7, 중통)
- 일본에서 7/4부터 북한 입·출항 외국선박들에 대한 화물검색 허용 등 ‘특별조치법’ 정식 착수, 이에 따른 공해상에서의 화물검색 실시예정 비난(7/8, 중방)

3 대남

● 北신문, 南 PSI 해상차단훈련 용납 못해(7/5, 조선중앙통신)

- 노동신문은 5일 우리 군이 오는 10월 부산항과 인근 해역에서 대량살상 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해상차단 및 검색훈련을 실시할 예정인데 대해 “군사적 충돌과 북침전쟁 도발을 서슴지 않으려는 흥계의 발로로서 추후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통신은 전함.
- 통신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이날 ‘군사적 충돌을 노린 계획적인 도발소동’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우리는 이미 미국이 주도하는 PSI에 대한 전면 참가를 우리에게 대한 노골적인 선전포고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천명했다”면서 “PSI 전면참가에 대한 우리의 대응조치는 이미 경고한 바대로 무자비하며 단호할 것”이라고 위협

- 이어 “지금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는 역적패당이 꾸며낸 함선침몰사건으로 말미암아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초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고 주장

● 北, 유엔사 ‘천안함해명’ 제안에 실무접촉 역제의(7/9, 조선중앙통신)

- 천안함 사건에 대해 해명 기회를 주겠다는 유엔군사령부의 북·미 장성급 회담 제안과 관련, 북한이 대령급 사전 접촉을 갖자고 제의해옴.
- 통신은 북·미 장성급회담 북측 단장은 9일 유엔사에 전달한 통지문에서 “남조선 당국이 우리의 (검열단 파견) 제안을 반대하고 있는 조건에서, 조·미(북미) 군부 장령급(장성급)회담에서 천안호 사건을 논의하자는 미군측 제의에 유의하기로 했다”면서 “조·미 군부 장령급회담 개최와 관련한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 7월13일 10시 판문점에서 대좌급 실무접촉을 가질 것을 수정, 제의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함.
- 통지문은 또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이러한 발기는 천안호 사건의 진상을 객관적이면서도 과학적으로 공명정대하게 밝히려는 드팀(흔들림) 없는 의지의 발현”이라며 “미군 측이 천안호 사건의 해결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우리 군대의 제의를 무겁게 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함.

■ 기타 (대남)

- 대통령의 워싱턴 타임스 인터넷 기고(6/26, 미국과 동맹의 소중함 거듭 확인 등) 관련 이는 “미국을 등에 업고 反北대결과 북침전쟁 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려는 기도”라고 선동(7/5, 평방)
- 통일부장관의 ‘윌리엄 해밀턴 쇼’ 대위 동상제막식 추모사(6/22)를 “미국의 조선침략전쟁역사를 찬미하고 동족대결과 북침전쟁을 선동하는 행위”라고 비난(7/5, 중방)
- 6.15, 10.4선언 이이행은 “반민족적 범죄행위”라며 “내외 반통일 세력들을 물리치고 자주통일, 평화변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야 한다”고 선동(7/5, 중통·노동신문)
-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본회의(6/29) 부결 관련 “보수패당의 반역정책 강행에 대한 응당한 결과”라고 주장(7/5, 평방)
- 北, 연합뉴스 인용 南35사단 훈련(전북 진안군 일대)을 “침략전쟁 준비”라고 비난(7/7, 중방)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07.12-07.18

7월

3주차

1. 대내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2. 대외

3. 대남

1 대내

가. 정치

- 北…‘외무성의 입’ 정태양 우간다 대사 임명(7/1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각급 외교협상에서 대변인 역할을 해온 정태양 외무성 미주국 부국장이 우간다 대사에 임명
 - 방송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인용, “우간다공화국 주재 조선 특명전권대사로 정태양이 임명됐다”고 밝힘.
 - 정태양은 2003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차 6자회담이 끝날 때 대변인 자격으로 6자회담 무용론을 펴는 내용의 귀국성명을 발표했고, 2006년 2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북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정부간 협의 때는 북한측 입장에서 회담 결과를 브리핑한 인물
 - 그는 또 외무성 미주국 부국장을 지내면서 6자회담과 북미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회의, 동북아 평화안보협력체제 실무그룹 회의 등에 참가했고, 작년 12월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방북한 스티븐 보즈 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공항 영접과 환송을 맡았음.

- 北신문, 연일 노동당 찬양(7/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이 9월 상순 소집될 당 대표자회를 앞두고 연일 노동당을 찬양 하는 장문의 논설과 글을 게재
 -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터넷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13일 ‘위대한 당을 따라 총진군 앞으로!’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글(A4 5장 분량)에서 “우리는 머지않아 성스러운 노동당 역사에 특기할 사변으로 길이 빛날 당 대표자회를 맞이하게 된다”면서 당을 ‘향도자’, ‘광명’, ‘생명선’ 등으로 찬양
 - 신문은 이어 “충실한 당원들이 있어 영도자의 권위가 빛나고 당의 위력이 과시된다”면서 과거 김일성 수령에게 충성했던 ‘항일혁명 투사’와 ‘영웅 전사’들의 사례를 열거한 뒤 “당과 영도자에 대한 절대적 신념이 조선 노동당원의 생명”이라고 강조하고, “오늘날 당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혁

명실천은 ‘강성대국’ 건설”이라면서 “당 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빛나는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자”고 말함.

- 이 신문은 전날인 12일에도 비슷한 분량의 사설을 실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당 건설 업적을 강조하면서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높이 들고 나가야 할 신념의 구호”라고 밝힘.

● 北…김용삼 전 철도상도 지난해 처형(7/14,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박남기 전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에 앞서 김용삼 전 철도상도 처형했으며, 이들의 사진과 출판물을 파기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음.
- 방송은 소식통을 인용, “2008년 9.9절(공화국 창건 60주년) 행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 책임 때문에 김용삼 당시 철도상이 처형됐다”면서 “국방위원회 검열에서 서평양 철도국과 함흥 철도국에 보관 중이던 전시예비용 기관차들이 모두 못쓰게 된 사실이 드러나 국가보위부에 넘겨진 뒤 작년 3월 처단됐다”고 밝힘.
- 김용삼은 1998년 9월부터 2008년 9월까지 10년간 철도상을 맡아오다 2008년 10월 별다른 발표없이 현재의 전길수 철도상으로 교체
- 방송은 이어 신의주 주민의 전언을 인용,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월2일 방침’에 따라 처형자들의 사진과 출판물 파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 방침은 과거 출판보도물을 전반적으로 검열해 처단된 자의 사진과 저작물을 출판검열국 79호실에 넘겨 파기하라는 내용”이라고 덧붙임.

● 北김정일, 평북 간석지와 수산사업소 현지도(7/15,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달 말 준공된 평안북도의 대계도간석지와 압록강수산사업소를 현지도
- 김 위원장은 대계도간석지를 성공적으로 완공한 데 대해 대만족을 표시하고 개간된 간석지 논을 살펴본 후 “식량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경지면적을 최대한 효과 있게 이용하는 것과 함께 새 땅을 더 많이 얻어내야 한다”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간석지 개간사업을 계속 힘있게 내미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함.

- 대계도간석지는 평안북도 염주군과 철산군 앞바다의 다사도부터 가차도, 소연동도, 대계도, 소계도, 철산반도까지 이어지는 총 13.7km를 독으로 막아 8천800여 정보의 땅을 얻는 공사로 지난달 말 매립공사가 끝남.
- 김 위원장은 또 압록강수산사업소에 새로 건설한 축양장과 굴 양식장을 현지지도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수산물 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보다 풍족한 식생활을 마련해주자”고 강조
- 이번 현지지도에는 김평해 평안북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당 중앙위 부장들인 장성택, 김경희, 태종수와 제1부부장인 리재일이 수행

● **김정일 訪中 이후 평양 전력사정 크게 호전(7/15, 북한개혁방송)**

- 방송은 지난 5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이후 평양시의 전력사정이 크게 좋아졌다고 전함.
- 이 방송은 “김 위원장의 방중 직후인 5월 중순부터 평양시에 하루 11~12시간 전기가 공급되고 있다”면서 “중국이 북한에 ‘전기’라는 큰 선물을 준 것 같다”고 전함.
- 방송의 김승철 대표는 “북한에서 전력 사정이 가장 좋은 곳이 평양이지만 하루 8시간 정도, 그것도 불연속적으로 공급됐었다”면서 “김 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수풍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 가운데 기존 중국 몫의 일부나 전부를 북한이 사용하게 된 듯하다”고 말함.
- 수풍발전소는 1944년 북·중 공유 하천인 압록강에 세워진 수력발전소로, 양국은 ‘조·중 수력발전회사’를 설립해 매년 베이징과 평양에서 번갈아가며 이사회를 열고 생산된 전력을 나눠 써왔으며, 현재 이 발전소의 전력 생산량을 40~60만KW로 보면 이번에 최소 10~15만KW가 추가로 북한 몫이 된 셈이며, 이는 북한 전체 전력사용량의 10% 가량 된다고 방송은 설명
- 방송은 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김정일 위원장이 이번 방중에서 평양시 전력문제를 해결한 것은 나름대로 큰 성과”라고 평가

● 北, 김정일 동상 첫 공개…군복 착용 모습(7/16, 열린북한방송)

- 방송은 16일 입수한 5월11일자 ‘조선인민군’을 통해 신문 1면에 ‘백두산 혁명강군의 최대의 특전, 최상의 영광’ 제목의 기사와 김일성 주석과 김정숙(김정일 위원장 생모)의 군복 동상과 함께 김정일 위원장이 군복을 착용한 동상 사진을 공개한 것을 보도
- 그동안 김 위원장의 동상이 노동당 청사와 인민무력부 등 주요기관에 건립돼 있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은 있었지만 동상 사진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
- 북한은 김 위원장의 동상 뿐 아니라 석고좌상을 만들어 국제친선전람관 등에 전시하고 있으며 이 석고상은 그동안 방북한 남한 방문객이나 외국인들에게 공개돼왔음.
- 방송이 입수한 조선인민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동상은 김 주석, 김정숙 동상과 함께 인민무력부 혁명전시관에 전시됐으며 리영호 군 총참모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을 가짐.
- 제막식에서 김정각 제1부국장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형성된 최고사령관 동지의 ‘군복상 동상’을 인민무력부 혁명사적관에 모시게 된 것은 우리 인민군대가 받아 안은 최상의 특전이고 행운”이라고 말함.
- 또 이 신문은 동상의 제작과 관련, “만수대창작사 공훈조각창작단 등에서 수령숭배심과 충정의 마음을 다 바쳐 불과 1년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백두산 3대장군의 군복상 동상을 최상의 수준에서 모시었다”고 소개

■ 김정일동향

- 7/12 김정일, 비전향장기수 ‘김은환’의 80회 생일상 전달(7/13, 중방)
- 7/15 김정일, 지난달 말 준공된 평안북도의 대계도간석지와 압록강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7/15, 중통)
 - 김평해 평안북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당 중앙위 부장들인 장성택, 김경희, 태종수와 제1부부장인 리재일이 수행

■ 기타 (대남)

- 南 한상렬목사, 애국열사능과 용악산유원지 방문 및 범청학련 북측본부 성원들과 상봉(7/12, 중통)
- 黃北 서흥군 농업근로자들, 7/12 범안협농에서 이명길(농근맹 위원장/보고)·조준학(黃北 농촌경리위원장) 등 참가下 “더 많은 유기질거름을 생산 위한 쫓기모임” 진행(7/13, 중방)
- 만경대혁명사적관에 ‘2중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하는 의식 현지진행(7/14, 중방)

- 北 조선노동당 출판사, '김일성 전집 제87권'(1988년1월~12월 사이 김일성의 39건 노작 수록) 출판(7/14, 중방)
- 당대표자회를 성과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공장-기업소 꺾기모임, 인민경제 4대 선행부문 공장-기업소에서 진행(7/15, 중방)
- 김정일 저작(조국통일3대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 건결히 투쟁하자)은 “조국통일운동의 자주적 대를 세워주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통일을 이룩해 나갈 수 있는 확고한 지침”이라며 김정일 업적 선전(7/15, 중통·노동신문)
- 학생소년들의 '시와 노래무대', 김정일이 '대동강 해맞이'를 발표한 50돌을 맞아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7/15, 중통)
- 경공업·농업·연관 부문 공장·기업소·농장들, 당 대표자회의를 성과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꺾기모임 진행(7/16, 중방)

나. 경제

● 北…경공업생산 작년의 150%로 늘어(7/12, 조선신보; 노동신문; 연합신문)

- 북한이 올해 인민생활 향상의 '주공 전선'으로 정한 경공업 부문 생산이 작년보다 크게 늘었음.
- 북한 경공업성의 한청수 국장은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올 상반기 경공업 부문 생산이 작년의 1.5배로 장성(증가)했다”면서 “천, 신발, 내의 생산이 급속히 장성했고 특히 신발은 작년의 160% 이상 된다”고 밝힘. 한 국장은 이어 “작년에 비해 경공업에 대한 국가투자액이 높아져 원료 자재가 잘 보장되니 생산도 장성했다”면서 “경공업 공장들에서 생산되는 갖가지 제품들이 평양 시내 백화점들에 나가고 있는데, 번쩍번쩍하지는(신속하지는) 못해도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임.
- 노동신문은 사설에서 “최근 연간 어려운 조건에서 경공업 공장들이 기술적으로 개진(개선)되고 현대적인 경공업 공장들이 새로 일떠섰으며, 경공업의 생산 잠재력이 크게 장성(성장)했다”면서 “특히 화학·금속공업을 비롯한 기초공업 부문에서 주체화, 현대화가 힘있게 추진되고 생산적 양양이 일어나 경공업의 급속한 발전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주장

● 北…쌀값 다시 불안, 청진시 kg당 700원대(7/13, 데일리NK)

- 안정을 찾는 듯했던 북한의 쌀값이 최근 환율 상승과 함께 다시 오름세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짐.

- 매체는 북한 양강도 소식통을 인용, “작년 화폐개혁 직후 kg당 20(신권 기준)원대였던 함경북도 청진시의 쌀값이 올해 3월 중순 1000원대로 올랐다가 4월 초 500원대로 떨어졌으나 지난 5일 현재 700원대로 반등했다”면서 “이런 상승세라면 7월 말이나 8월 초에는 다시 1천원대에 육박할 수 있다”고 전망
- 이어 북한 당국이 화폐개혁 이후 가격 강제인하와 군량미 방출 등의 조치로 쌀값을 안정시키려 노력해왔으나 지난달 110원에서 최근 150원까지 오른 중국 위안화 환율의 상승세로 쌀값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고 말함.
- 매체는 또 “북한 당국이 오는 9월 44년만에 열리는 당대표자회를 앞두고 연일 경제적 성과를 강조하고 있으나 정작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식량 가격은 안정시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환율은 한번 상승하면 내려가지 않는 속성이 있어 특별한 조치가 나오지 않는 한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

기타 (대내 경제)

- 北 평양화초연구소, 창립(2000/7/14) 10돌을 맞으며 화초생산업체들과의 과학기술교류, 공동연구 등 화초품종 보급 사업에서 성과 이룩(7/12, 중통)
- 성천강전기공장에서 신형 전동기(전기 주파수에 관계없이 필요한 회전수 자동보장) 개발 보도(7/15, 중방)
- 北 강령은정차재배원, 여름철 차잎 수확 시작(7/16, 중통)

다. 군사

- 6월말 北·中國경서 양측 경비대원 총격전(7/15, 자유아시아방송(RFA))
 - 최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북·중 국경에서 지난달 말에도 북한 국경경비대원과 중국 공안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짐.
 - 이 방송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7시경 양강도 김형직군 인근 부대의 국경경비대원 2명이 밀수꾼과 함께 압록강을 건너다 중국 공안에 발각되자 공중에 자동소총을 발사하며 혼란을 틈타 도주
 - RFA는 북측의 현지 소식통을 인용, “북한 국경경비대 하사관과 대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밀수꾼 2명과 국경을 넘어 중국측 밀수꾼을 기다리다

- 중국 공안에 발각됐다”면서 “이들이 뗏목을 타고 도주하자 공안이 권총을 발사했고 북한 경비대도 응사해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 양강도 혜산시 주민 최모씨는 RFA와 전화통화에서 “총격전이 벌어지자 완전 무장한 국경경비대와 중국 국경공안이 출동해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고 전함.
 - 문제를 일으킨 북한측 국경경비대와 밀수꾼은 현장에서 체포돼 후창군의 경비대 대대본부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짐.
 - RFA는 또 양강도 무역관리국 간부의 전언을 인용, “북·중 국경의 긴장이 고조되자 중국 당국이 국경경비 임무를 공안(경찰)에서 인민해방군(정규군)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북한 당국이 거칠게 반발했다”고 밝혔으며, 북한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북·중 국경에 배치되는 것을 우려해 국경경비대를 인민보안부 소속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방송은 덧붙임.

라. 사회·문화

● 北 홍루몽, 中 순회공연 18일 막 내려(7/12, 연합뉴스)

- 북한 피바다가극단의 대형 가극 ‘홍루몽’이 오는 18일 다롄(大連) 공연을 마지막으로 2개월여에 걸친 중국 순회공연의 막을 내린다고 화상신보(華商晨報) 등 중국 언론들이 보도
- 피바다가극단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에 맞춰 지난 5월 6일 베이징에서 첫선을 보인 것을 시작으로 후허하오터((呼和浩特)와 창사(長沙), 우한(武漢), 푸저우(福州), 선전(深圳), 충칭(重慶), 시안(西安), 텐진(天津), 창춘(長春) 등 중국의 10대 도시를 순회하며 홍루몽을 공연하였으며, 지난 5~7일에는 베이징에서 3회에 걸친 앙코르 공연에 나서기도 함.
- 피바다가극단은 이어 12~13일 이틀간 선양(瀋陽)에서 홍루몽을 공연한 뒤 다롄으로 무대를 옮겨 17~18일 중국 순회 마지막 공연을 펼치고 귀국길에 오름.
- 중국 관영 신화사를 비롯한 중국 언론들은 홍루몽이 관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으며 출연 배우들 역시 높은 인기를 누리는 등 이번 순회공연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현지 언론들도 북한 배우들의 의상이나 취미 등을 상세하게 소개하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고 보도

● **스위스시계 北수출 ‘제로’(7/13,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고위층에서 선물로 많이 쓰이는 스위스제 시계가 올해 단 1개도 북한에 수출되지 않음.
- 스위스 ‘시계산업연합’의 필리프 페고라로 통계국장은 RFA에 “올해 1~5월 북한에 단 1개의 시계도 수출되지 않았다”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북한 고위층에서 선물로 쓰이는 스위스제 시계가 유엔의 대북제재 품목에 포함됐기 때문일 수 있다”고 말함.
- 방송은 이 단체의 자료를 인용, 2005년 한해 2천여 개에 달했던 스위스 시계의 대북 수출량이 2006년에는 사치품 등의 수출을 금지한 유엔 대북제재 ‘1718호’ 때문에 26개로 급감했으나 그 후 2007년 284개, 2008년 449개, 작년 662개로 다시 급증세를 보였다고 설명

● **수학올림피아드서 북한팀 실격(7/13, 자유아시아방송(RFA))**

- 최근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제51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IMO)에서 북한팀이 실격한 것으로 전해짐.
- 방송은 “북한팀의 실격 사실을 IMO 운영위원회 측이 확인해줬지만 자세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면서 “북한은 1991년 스웨덴 대회에서 부정행위로 실격된 바 있어, 이번에도 부정행위를 했거나 규칙을 위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함.
- 이어 “IMO에서 두 번이나 실격된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다”면서 “이번까지 4년 연속 IMO에 참가한 북한팀은 매년 순위를 올려왔다”고 덧붙임.
- 1990년 중국 대회에 처음 출전해 19위를 한 북한은 그 후 2007년 베트남 대회에서 8위, 2008년 스페인 대회에서 7위, 2009년 독일 대회에서 5위를 기록

● **북한 대학가에 인터넷 ‘위키백과’ 열풍(7/14, NK지식인연대)**

- 단체는 북한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평양 대학가에서 인터넷 ‘위키백과(위키피디아 백과)’ 내용을 출력해 만든 책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함.

- 이 단체에 따르면 북한 대학가에서 ‘재밋는 백과사전’으로 통하는 이 책 (A4용지 200쪽 분량)의 인기가 높은 이유는, 북한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다른 나라들의 정치·경제·문화 분야 지식과 세계인들의 살아가는 모습 등이 상세히 정리돼 있기 때문임.
- 평양외대와 김책공대에서 처음 등장한 북한의 ‘위키백과’ 책은 그 후 김일성대, 평양외대, 평양컴퓨터기술대 등으로 급속히 퍼져 지금은 평양 모 대학의 청년동맹 간부가 빌려 볼 정도로 대학가에 널리 보급돼 있음.
-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북한 당국이 ‘진원지’인 김책공대 학생들로부터 수습 권의 ‘위키백과’를 압수하고 유통경로로 추정되는 USB 검열을 벌이는 등 단속에 나섰지만 책 내용에 정치성이 없어 적발돼도 처벌은 ‘사상투쟁 무대’에서 비판받는 정도로 끝난다고 함.
- 단체는 ‘위키백과’ 외에도 북한에서는 최근 한국과 미국 드라마 DVD가 활발히 대여되는가 하면 한국의 최신음악이 담긴 MP3 플레이어가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등 외부문화 유입이 급속히 늘고 있다고 덧붙임.

● 北, 오징어철 동해 출어 엄격 통제(7/15,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당국이 탈북을 막기 위해 최근 오징어철을 맞은 동해상으로 민간인 선박이 단독 출어하는 것을 엄격 통제하고 있음.
- 이 방송은 중국인 수산물 무역상의 전언을 인용, “6월 중순부터 청진, 어랑, 김책 앞바다에 오징어떼가 나타났는데 해상 통제가 심하다”면서 “오징어철을 맞아 어로공(어부)들이 가족, 친척까지 데리고 바다에 나가려고 하지만 보위부에서 ‘바다출입증’을 내주지 않고 있다”고 말함.
- 함경북도 온성의 한 주민은 “보위부에서 바다출입증을 내주지 않아 보름을 기다리다 빈손으로 돌아왔다”며 “나처럼 ‘삿발이’ 갔다가 바다에도 나가보지 못하고 허탕친 사람들이 많다”고 RFA에 말함.
- 방송은 또 “(출어 통제를 하지 않는 평소에도) 먼 바다에 나갈 때는 어선들을 3~4척씩 묶어 서로 감시하며 조업하도록 한다”면서 “이는 공해상에서 일본이나 한국으로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임.

● 北…류경호텔 공사 재개 후 15명 사고死(7/16, 도쿄신문)

- 신문은 북한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1987년 착공 후 자금 부족 등으로 공사를 중단했다가 2008년 여름 공사를 재개한 류경호텔 공사 현장에서 15명의 인부가 숨졌다고 전함.
- 희생자들은 고층 외벽공사 등에 동원된 병사와 ‘돌격대’로 불리는 노동자들이며, 대부분 안전벨트 등 안전조치가 허술한 공사장에서 일하다 추락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1987년 류경호텔 건설공사가 시작된 이후 숨진 인부는 모두 50여명
- 북한은 1987년 프랑스 기술과 자본으로 평양 보통강 구역에 피라미드형 류경호텔을 짓기 시작했고 5년 뒤 자금난으로 중단했으나, 이후 2009년 4월 이집트 오라스콕이 1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공사를 재개했으며 2012년 완공될 예정
- 류경호텔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북한에서 가장 높은 105층(약 300m) 규모로 지어지고 있으며, 김 국방위원장 가족의 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이 사업을 맡고 있으며, 2012년 4월 15일 고(故)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에 맞춰 완공될 예정

● 北, 영양부족 주민 셋 중 하나(7/18, 연합뉴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펴낸 ‘한눈에 보는 보건지표-아시아판 (Health at a Glance-Asia)’에서 북한은 영양부족 상태의 인구가 세 명중 한 명 꼴이고 5세 미만 영유아는 네 명중 한 명이 평균 이하의 체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고서의 분석결과 북한 주민의 하루 평균 에너지 섭취량은 아시아권의 20여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가장 낮았으며 탄수화물, 지방 등 에너지 섭취량은 OECD 평균이 하루 3천374kcal, 한국이 3천73kcal인데 반해 북한은 2천146kcal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北방송 ‘평양·평남에 100mm ↑ 폭우’(7/18, 조선중앙방송)

- 방송은 오후 8시 뉴스 말미에 6시부터 오후 3시 사이 평양시에 131mm의 비가 내린 것을 비롯해 평양시 삼석구역과 강남군에 각각 144mm와 121mm가, 평안남도 용강군과 강서군에 121mm와 117mm가 내렸다고 보도

- 또 남포시에 116mm가 내리고 평안남도의 덕천군과 성천군, 숙천군, 영원군, 북창군 등지에 101~106mm가 왔다고 덧붙임.
- 방송은 “서해 중부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평양, 신의주, 평성, 사리원, 해주, 강계, 혜산, 청진, 함흥, 원산 등의 지방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렸고 밤에도 비가 내릴 것”이라며 “그밖의 지방에서는 주로 갠 날씨였다”고 밝힘.

기타 (대내 사회·문화)

- 北, 《세계인구의 날》(7/11) 즈음 7/12 ‘인구일제조사 및 재생산건강’에 관한 토론회(인민대학습당) 및 인구연구소의 ‘인구소식’ 특간호 발간 등 활동 진행(7/13, 중통)
- 北 여자축구 대표팀, 7/13 20세 미만 여자월드컵경기대회 조별리그에서 브라질에 1:0 승리(7/14, 중방)
- 최상급 축구연맹전 4차 경기(6/10~7/17) 진행(7/14, 중통)
- 北 사회과학출판사, ‘우리나라의 우수한 민족문화유산 자료’ 새로 출판(7/15, 중통)
- 北, 평양 반월도 수영장·만경대 물놀이장·남포 등지에서 7~8월 해양체육월간사업 활발히 진행(7/15, 중통)

2 대외

- 北신문…日, 선박 검사시 무자비한 보복타격(7/13,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 신문은 일본에서 북한 관련 선박을 대상으로 한 화물검사특별조치법이 4일부터 시행된 것과 관련, “만일 일본이 공해상에서 우리 선박을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그 즉시 우리 군대의 무자비한 보복타격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신문은 이날 ‘용납할 수 없는 무분별한 망동’이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일본 법원이 재일 조총련에 거액의 채권이 있는 정리회수기구에 대해 조총련의 중앙본부 건물을 압류할 수 있다고 판결한 사실과 화물검사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점을 싸잡아 언급, 이는 “우리 공화국(북)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행위이며 우리에게 대한 노골적인 정치, 군사적 도발”이라 말함.
 - 신문은 이어 “우리는 일본과 계산할 것이 너무도 많다”며 “보복타격은

세기를 이어 계속되는 일본의 모든 죄악을 총결산하는 것으로 될 것”이라고 주장

- 화물검사특별조치법은 지난해 6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1874호 결의 이후 일본 의회에 상정됐지만 줄곧 계류 상태에 있다가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일본 중의원(하원)에 이어 지난 5월 20일 참의원(상원)에서 통과

● **日, 조선학교 학생 4만여명→8천명(7/18, 산케이신문)**

- 신문은 일본의 조선총련계 조선학교 학생 수가 1970년대 4만여명에서 8천여명으로 감소했다고 보도
- 이 신문에 따르면 북한과 조선총련의 지원을 받는 조선학교 학생은 1970년대 160개교 4만여명에서 현재는 73개교 8천300명으로 크게 줄었음.
- 한국계 학교로 초등부와 중등부, 고등부가 개설돼 있는 도쿄한국학교의 경우 조선학교로부터의 전학생은 연간 1명이 될까말까한 정도였으나 올봄에는 4명으로 늘었으며 이 학교에는 조선학교로부터의 전학생이 모두 11명 재학 중임.

■ 기타 (대의 일반)

- 박익춘 외무상, 작별 방문한 駐北 독일 대사와 담화(7/12, 중통)
- 北-필리핀 외교관계 설정 10주년 즈음 기념집회 및 영화감상회, 전영진(대외문화연락위 부위원장) 등 참가하 평양에서 진행(7/12, 중통·평방)
- 몽골혁명승리 89주년 즈음 駐北 몽골대사관 성원들과의 친선모임 및 영화감상회, 전영진(대외문화연락위 부위원장) 등 참가하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7/12, 중통·평방)
- 김영남, 離任 駐北 독일 대사 ‘토마스 쇠퍼’와 담화(7/13, 중통)
- 쿠바 내각수상, 6/25 김정일과 김영남에게 생일축전에 대한 답전(7/13, 중방)
- 김영남, 몬테네그로 국경절 즈음 ‘필리브 부야노비츠’ 대통령에게 축전(7/13, 중통)
- 김영남, 부룬디 공화국 대통령에게 재선 축전(7/13, 평방)
- 리화근 콜롬비아 駐在 北대사, 7/6 駐在國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정(7/14, 중방)
- 인도네시아 투쟁민주당 중앙지도이사회 총위원장, 7/8 自國 駐在 北대사 정춘근 접견(7/14, 평방)

3 대남

● 北·유엔사, 천안함 실무회담 내일 개최(7/14, 연합뉴스)

- 천안함 피격사건을 다룰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의 대령급 실무회담이 오는 15일 판문점에서 개최
- 유엔사는 14일 “북한군의 제안을 받아들여 15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대령급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힘.
- 북한군은 전날 오전 ‘행정적인 이유’로 회담 연기를 요청한 데 이어 오후 늦게 대령급 실무회담을 15일 오전 10시에 하자는 내용의 통지문을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로 보냈으며, 실무회담에는 군정위 비서장인 커트 테일러 대령과 북한군 박기용 대좌(대령)가 대표로 참석
- 앞서 북한은 지난 9일 유엔사에 전달한 통지문에서 “남조선 당국이 우리의 (검열단 파견) 제안을 반대하고 있는 조건에서, 조·미(북미) 군부 장령급(장성급) 회담에서 천안호 사건을 논의하자는 미군측 제의에 유의하기로 했다”면서 “조·미 군부 장령급회담 개최와 관련한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 7월13일 10시 판문점에서 대좌급 실무접촉을 가질 것을 수정, 제의한다”고 밝힘.

● 北, 두 동강난 천안함 연상 포스터 배포(7/14,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은 대외적으로 천안함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천안함 폭침을 연상시키는 선전 포스터를 만들어 주민들과 군대에 배포
- 방송은 최근 사업차 북한을 방문한 중국인 사업가가 찍었다는 포스터 사진을 촬영 시점과 장소를 언급하지 않은 채 공개했는데, 이 포스터에는 주먹으로 함선을 내려쳐 두 동강 내는 그래픽과 ‘덤벼들면 단매에(일격에)!’라는 선전 문구가 담겨 있음.
- 중국인 사업가는 방송에 “북한의 무역 간부들이 천안함 사건의 범인으로 북한을 지목한 남한 정부에 대해 모략이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 차례 들었다”면서 “함선을 두 동강 내는 선전 포스터는 이런 주장과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함.
- 그는 또 “북한 사람들은 군사력에 대해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듯했

다”면서 “특히 무역 간부들은 ‘유엔에서 아무리 제재를 해도 우리는 끄떡 없다’고 말하곤 했다”고 덧붙임.

● **北, 유엔성명 발표 전부터 승리 선전(7/17, 자유아시아방송(RFA))**

- 방송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천안함 관련 의장성명이 나오기 하루 전부터 의장성명을 자신들의 ‘외교적 승리’로 선전했다고 전함.
- 이 방송은 복수의 대북 소식통의 전언을 인용, “북한 당국이 안보리 의장성명(한국시각 9일 밤 발표)이 나오기 전인 8일 오전에 의장성명을 자신들의 승리로 자축하는 내용의 노동당 지시문을 각지에 내려보냈다”면서 “7월8일 지시문”으로 알려진 이 문건은 ‘유엔무대에서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의 반공화국 모략책동이 날날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고 밝힘.
- 평양시 모 구역 당 간부는 RFA측과 전화통화에서 “8일 오전 각 구역 당 회의실에서 의장성명과 관련된 당 지시문이 전달됐다”며 “의장성명은 우리 외교전의 승리’라고 공장과 기업소마다 집중적으로 선전전을 펼치라는 지시였다”고 말함.
- 함경북도 청진시 간부도 “당 지시문은 (의장성명과 관련해) 조성된 정세를 언급하면서 주민들을 각성시키는 공연활동을 적극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지시문은 또 공장 기업소들과 예술선전대원들이 불러야 할 노래로 ‘발걸음’ 등 4곡을 지정해 줬다”고 전함.

● **통일부, ‘北, 임진강댐 방류 가능성 통보’(7/18, 연합뉴스)**

- 통일부는 “북측이 오늘 오후 2시께 경의선 군 통신선을 통해 ‘지금과 같이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저녁 8시 이후 임진강 상류 댐의 물을 불가피하게 방류할 수 있다’고 통보해왔다”고 설명
- 북한 매체 등에 따르면 장마전선의 북상으로 전날 개성시 인근 장풍군에 143mm 등 황해북도와 강원도 등에 집중호우가 내렸으며, 북한 전 지역에도 사흘째 비가 내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북측의 이 같은 통보는 지난해 9월 6일 임진강 상류 황강댐의 물을 예고 없이 방류, 우리 측 임진강 유역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경기도 연천군에서 우리 국민 6명이 사망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임.
- 남북은 이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10월 14일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

을 개최해 재발방지를 위한 사전통보체계와 관련, 댐 명칭, 방류량, 방류 이유 등을 담은 양식을 전달하면서 방류 시 사전 통보를 요구했고 북측은 이를 수용했음.

- 당시 북측은 회답에서 “임진강 사고로 남측에서 뜻하지 않게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가족에 대해 심심한 조의를 표명한다”고 밝혔음.

기타 (대남)

- 유엔 안보리의 천안함 피격사건 의장성명 채택 관련 “함선침몰 사건의 국제화가 결코 문제해결의 방도가 아니라”며 우리 정부의 국제공조 비난 및 “검열단 수용 및 공동조사” 持續 주장(7/14, 중통·노동신문)
- 국군의 해외파병 전담부대 편성은 “미국과의 정치군사적 동맹 강화와 해외파병책동을 적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7/14, 중방)

07.19-07.25

7월

4주차

1. 대내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사회·문화
2. 대외
3. 대남

1 대내

가. 정치

- **北김정일, 평양제사·방직 선전대공연 관람(7/20,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예술소조와 평양방직공장 기동예술선동대의 공연을 관람한 것으로 전해짐.
 - 통신은 합창 ‘장군님은 우리 아버지’, 여성중창 ‘우리 공장구내에서 피꼰새 노래하네’ 등의 공연 내용에 대해 김 위원장이 만족을 표시하고 “군중문화 예술활동을 강화할 데 대한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밝힘.
 - 김 위원장은 또 “노동계급이 대고조의 진군 나팔소리, 혁명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며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창조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다”고 덧붙임.
 - 이번 공연 관람에는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리영호 군 총참모장, 우동측 국방위원,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겸 당 행정부장,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김경희(경공업)·태종수·김양건(통일전선) 당 부장이 수행

- **北…회령, 청진에 반체제 전단(7/23, 아사히신문)**
 - 북한 함경북도 회령과 청진 등지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이 뿌려져 북한 당국이 범인 검거에 나섰다.
 - 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24~25일 회령시에 ‘장군님(김정일)은 21세기의 빛나는 태양이 아니고, 우리에게 가져다준 것은 암울뿐’이라거나 ‘김정일 시대를 끝내자. 우리는 밥을 먹고 싶다’는 내용의 전단 수십 장이 살포
 - 북한 치안 당국은 전단을 회수해 불태우는 한편, 전단을 뿌린 인물을 찾으려고 치안부대를 총동원하고 있음.
 - 또 지난달 하순 청진에 있는 김일성 전 주석의 동상 주변 등에서도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을 적어놓은 북한 돈 5천원권 지폐가 대량으로 발견되었으며, 지폐에는 ‘망명구국행동대’라는 단체 명칭이 적혀 있었다고 덧붙임.

● 北김정일, 평양교예단 공연 관람(7/24,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교예단의 종합교예(서커스)공연을 관람했다고 보도
- 평양교예단은 체력교예 '다각비행', 수중교예 '집체조형', 희극교예 '두 동무', 동물교예 '곰 줄넘기' 등 국제교예축전에서 금상을 받은 작품들을 무대에 올렸으며, 김 위원장은 공연 관람 후 "사회주의적 민족 교예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주체를 확고히 세우고 사회주의적 내용에 민족적 형식을 옹계 결합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함.
- 이날 공연 관람에는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우동측 국방위원,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당 중앙위 부장들인 장성택·김경희·태종수·김영일·김양건 등이 수행

● 北, 전군·전민에 비상경계 태세 지시(7/24, 자유아시아방송(RFA))

- 방송은 북한 국방위원회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보복성전'을 다짐한 가운데 북한이 전군·전민에 비상경계태세를 지시했다고 전함.
- 이 방송은 함경북도에 주둔한 북한군 사정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 "북한 군부가 전체 부대들에 '미제와 남조선괴뢰군이 동해상에서 벌이는 군사훈련은 우리나라(북)를 겨냥한 예비침략전쟁'이라고 전달했다"면서 "북한군 각 군단과 특수병종, 기계화 부대와 민간 교도대 무력까지 모두 군사훈련에 들어갔다"고 전함.
- 소식통은 "7월 1일 '하기훈련'이 시작돼 북한군은 이미 훈련에 동원된 상태로, 북한군 총참모부는 '하기훈련'과 관련한 '인민무력부 훈련요강'을 각 부대에 하달한 뒤 최근 추가로 지시문을 내려 보내, "적들의 군사연습을 주의 깊게 주시하고 있다가 만약 덤벼들면 단매에 쳐부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덧붙임.

■ 김정일동향

- 7/19 김정일, 박리군 노인(女, 平北 룡천군 신암리)에게 100살 「생일상」 전달(7/19, 중통)
- 7/20 김정일,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예술소조원들과 평양방직공장 기동예술선동대 공연 관람 및 「감사」 전달(7/20, 중통·중방)
 - 김영춘(인민무력부장), 김정각(軍 총정치국 제1 부국장), 리영호(軍 총참모장), 우동측(軍 대장), 장성택(黨 부장), 김기남(黨 비서), 김경희·태종수·김양건(黨 부장들) 등 동행 관람

- 7/21 김정일, 희천발전소 건설에서 모범을 보인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7/21, 중방)
- 7/21 김정일, 강심환(김일성훈장 수훈자)과 허철룡(北적십자종합병원 교수)에게 「생일상」 전달 (7/21, 중방)
- 7/24 김정일, 평양교예단 공연 관람(7/24, 중통)
 -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우동측 국방위원, 김기남 당 중앙 위 비서, 당 중앙위 부장들인 장성택·김경희, 태종수·김영일·김양건 등이 수행

기타 (대내 정치)

- 대계도간석지 완공(6/30) 관련 “21세기의 장쾌한 기적, 위대한 창조물, 김정일의 선군영도력” 등으로 선전 및 쏘민의 “당대표자회와 당 창건 65돌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자”고 분발 선동 (7/19, 중통·노동신문·중방)
- 과학기술적 성과를 이룩한 지식인들에 대한 국가학위학직 수여식, 7/21 진행(7/22, 중통)
- 원산농업대학 실장 박제은에게 원사칭호,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오희복·강좌장·임태근·김책공대 교원 이봉식에게 후보원사칭호 수여 등
- 당대표자회는 “우리 일심단결의 위력을 과시하는 뜻깊은 계기로 된다”며 쏘민은 “김정일을 일심 단결의 유일한 중심”으로 “절대적인 신뢰심을 간직하고 김정일의 두리에 굳게 단결할 것” 강조 (7/22, 중통·노동신문)
- 〈전승절〉 (7/27, 조국해방전쟁 승리의 날) 57돌 경축 청년학생들과 전국 직명 일꾼·직명원들의 웅변모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과 중앙노동자회관에서 각각 진행(7/22, 중통)

나. 경제

● 北쌀값 kg당 1천원 돌파(7/20, 데일리NK; NK지식인연대)

- 북한의 쌀값이 kg당 1천원을 돌파하는 등 식량가격이 치솟고 있지만 외화사정 악화에 장마까지 겹쳐 주민들의 식량 확보에 비상이 걸림.
- 매체는 “지난 18일 함경북도 회령의 쌀값은 kg당 1천50원으로 지난 1일과 비교하면 두 배 가량 올랐다”며 “양강도 헤산, 신의주의 쌀값도 각각 1천원, 950원대로 폭등했다”고 밝힘.
- 이어 평양 내부 소식통을 인용, “북한 당국은 지난 5월 ‘6~8월까지 각 지역, 단위별로 식량문제를 자체 해결하라’는 지시를 내린 이후 새로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미 6월부터 소규모 공장 노동자에 대한 식량 배급이 중단됐다고 소개하였으며, “노동자들이 기업소 주변 텃밭에서 채소나 곡식류를 수확해 나눠 가지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런 기업소도 얼마 되지 않아 식량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임.
- NK지식인연대도 20일 “쌀값 상승의 원인은 북한 당국의 달러지급 중단”

이라며 “최근 북한의 외화사정이 악화되면서 당국이 지난주부터 외화별 이 기관에 대한 달러 지급을 금지(중단)했다”고 전함.

- 이 단체에 따르면 함북 무산시장에서는 지난 14일까지 kg당 700원에 거래되던 쌀이 3일만에 1천200원으로 폭등했고 같은 기간 옥수수가격도 400원에서 600원으로 올랐음.

● **中, 라진이어 청진항도 확보...9월 개통(7/22, 연합뉴스)**

-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투먼(圖們)시 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연변하이화(延邊海華)무역공사가 북한 당국으로부터 청진항 부두 사용권을 확보했다”며 “투먼 통상구에서 북한의 남양을 거쳐 청진항으로 가는 화물 철도수송에 대해서도 북한 철도성과 합의를 마쳤다”고 밝힘.
- 이 관계자는 “연변하이화공사는 오는 9월부터 청진항에서 부산을 오가는 컨테이너선을 운항할 계획이며 곧 중국 남방지역 화물 운송에도 나서게 될 것”이라며 “청진항 항로 개척에 따라 투먼을 통한 대외 무역이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고 전망
- 연변하이화공사는 중국의 3개 물류업체와 해상 운송계약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1천만 위안(18억 원)을 들여 청진항에서 컨테이너 운반에 사용될 크레인 제작에 나섰고 투먼-청진 간 철도 수송에 쓰일 50량의 화물 열차를 이미 북한에 보낸 데 이어 150량을 추가로 제작 중임.
- 투먼시는 다음 달부터 호시(互市)무역을 시행키로 하는 등 북한과의 교역 확대에도 나섰음.
- 호시무역이란 변경 주민들이 통행증만으로 자유롭게 드나들며 물품을 거래하는 것으로 무관세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함.
- 오는 29일 개통되는 훈춘-라진항-상하이 해상 항로에 이어 청진항을 이용한 동해 뱃길까지 확보함에 따라 헤이룽장(黑龍江)과 지린(吉林) 등 중국 동북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곡물이 중국 남방지역이나 동북아시아 국가 등으로 진출할 길이 열리게 됨.
- 중국은 러시아와 북한에 가로막힌 동북지역의 해상 항로 확보를 위해 북한 라진항과 청진항 사용권 확보에 공을 들여왔으며 2008년 다련(大連)의 창리(創立)그룹이 라진항 1호 부두 사용권을 확보했음.

- **北은행들, 해외 17개 은행에 37개 계좌 보유(7/23, 미국의 소리(VOA))**
 - 북한 은행들이 중국 등 12개국 은행 17곳에 모두 37개의 계좌를 열어 놓고 있음.
 - 방송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1718위원회'(일명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를 인용, "북한 은행들의 해외계좌는 중국과 유럽국가들에 집중돼 있다"며 이같이 말함.
 - 국가별로는 중국은행(중앙은행) 11개, 중국건설은행 5개, 홍콩 HSBC은행 1개 등 절반 가까운 17개가 중국계 은행에 개설돼 있으며, 그밖에 러시아, 스위스, 덴마크, 헝가리, 폴란드, 이탈리아, 독일, 벨라루스 등 범유럽권 8개국의 9개 은행에 11개 계좌가 있고, 말레이시아와 카자흐스탄에도 1개씩 열려 있음.
 - 북한의 은행별 해외계좌수는 '압록강 조선통일발전은행'이 21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조선광선은행 9개, 동북아시아은행 4개, 고려상업은행이 3개임.
 - 북한 동북아시아은행에 근무한 적이 있는 탈북자 김광진씨는 VOA에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와 미국의 BDA(방코델타아시아) 제재 등으로 북한 은행들의 해외계좌가 많이 감소한 것 같다"면서 "북한 은행의 해외계좌는 북한 정권으로 현금이 들어가는 주된 통로여서, 미국이 다시 BDA식 제재를 실행할 때 주요 타깃이 될 것"이라고 말함.
 - 그는 또 "북한은 미국의 추가 금융제재를 피하기 위해 개인 명이나 외국 의 위장회사 명의로 계좌를 열어 금융거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임.

기타 (대내 경제)

- 北 의학과학원 어린이영양관리연구소, '감자살즙영양산유'를 어린이들 건강증진에 이용(7/20, 중통)
- 北, 제25차 아시아국제우표전람회(2010, 방콕) 관련 새우표(소형전지 1종) 발행(7/20, 중통)
 - '영리한 너구리' 등 아동영화들의 인상적 장면을 보여주는 우표(묵음전지 1종)도 발행
- 黃北道 축산부문 일꾼 등, 올해 상반기 기간 동안 염소·토끼 수를 계획의 112.5%, 125.9%, 젖생산 115% 성과 보도(7/21, 중방)

다. 사회·문화

- **中서 펼친 北홍루몽 공연, 다롄서 종영(7/19, 중국신문사)**
 - 북한 피마다가극단의 대형 가극 ‘홍루몽’이 18일 다롄(大連) 공연을 마지막으로 2개월여에 걸친 중국 순회공연의 막을 내렸으며, 가극단은 다롄 공연을 마친지 하루만인 19일 오전 국경도시 단둥(丹東)을 거쳐 평양으로 돌아감.
 - 중국 원작을 가극화한 북한판 홍루몽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에 맞춰 지난 5월 6일 베이징에서 첫 선을 보인 것을 시작으로 후허하오터((呼和浩特)와 창샤(長沙), 우한(武漢), 푸저우(福州), 선전(深圳), 충칭(重慶), 시안(西安), 텐진(天津), 창춘(長春) 등 중국의 13개 도시를 순회, 30여차례 공연됨.
 - 198명의 단원이 참가한 이번 중국 순회공연은 한국어로 진행됐으나 중국어 자막이 나오고 중국인들이 워낙 친숙한 소재여서 상당한 호응을 얻었고 배우들도 인기를 누렸다고 통신은 전함.

- **북·중 청소년축구대표팀, 평양서 두 차례 평가전(7/19, 조선중앙통신)**
 - 10월 중국 산둥(山東)성 쑤보(濰博)시에서 열리는 ‘2010 아시아축구연맹 청소년(U-19) 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북한 대표팀과 중국 대표팀이 평양에서 두 차례 평가전을 가졌음.
 - 통신은 “이달 15일과 18일 평양 양각도 축구경기장에서 경기가 열렸는데 조선팀(북한팀)이 2대1, 6대2로 두 경기 다 이겼다”고 말하며, 중국팀은 지난 12일 북한 조선인민군 소속의 ‘만경봉팀’과도 경기를 가져 1대2로 패했다고 덧붙임.

- **北통신…FIFA 지원, 종합축구단 숙소 리모델링(7/1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국제축구연맹(FIFA)의 지원을 받아 ‘국가종합축구단’ 숙소의 리모델링 공사를 마침.
 - 통신은 “FIFA의 ‘꿀 협조계획’(꿀 프로젝트)에 따라 조선 국가종합축구단에 선수, 감독을 위한 숙소가 새로 꾸려졌는데, 연건평 2천100㎡에 6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소는 침실, 식당, 목욕탕, 수영장, 녹화 시사실

등을 갖췄다”면서 “오늘 준공식에 축구협회 위원장인 리룡남 무역상과 모하메드 빈 함맘 아시아축구연맹(AFC) 회장이 참석했다”고 말함.

- 김일성대학 교수를 지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조명철 선임연구원은 “북한에서 국가종합축구단은 남녀, 연령대별 축구대표팀을 포괄하는 조직을 의미한다”고 말함.
- FIFA는 1999년부터 ‘골 프로젝트’를 시작해 가난한 나라의 축구 기간시설 확충을 돕고 있으며, 북한에는 2001년 이후 155만 달러를 지원

● **北, MP3·DVD 반입금지…기관·프로그램도 교체(7/21,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당국이 ‘제국주의 사상과 문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최근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MP3, DVD·CD플레이어 등의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음.
- 방송은 북한 량강도 대흥단군의 소식통을 인용, “지난 6일 라디오와 녹화기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라는 당의 방침이 내려왔다”며 “보위부·보안부·체신성의 일꾼과 기술자로 구성된 ‘중앙당검열대’가 각 도에 파견돼 집중 검열을 벌이고 있다”고 말함.
- 북한에서 ‘녹화기’는 VCR, CD플레이어, DVD플레이어를 통칭하는 말
- 방송은 또 “이번 당 방침은 무역단위(무역조직)와 해외 방문자의 녹화기나 MP3 반입을 아예 금지하고 있다”면서 “개인 소유의 외제 녹화기는 조종기관을 교체하고, 구형 녹음기와 MP3의 라디오 기능도 제거하도록 했다”고 말함.
- 함경북도 청진시 소식통은 이 방송에 “중앙당검열대’는 세관, 무역기관은 물론 개인 집까지 나와 등록되지 않은 녹화기나 MP3를 무조건 회수해 간다”면서 “아울러 인민반 단위로 주민회의를 열고 체신소와 컴퓨터 봉사소를 찾아가 개인이 보유한 DVD플레이어와 MP3를 빨리 개조하라고 독려하고 있다”고 전함.
- 여기서 MP3 등 전자기기의 개조는, ‘조종기관’과 프로그램을 북한 정보 산업지도국에서 만든 것으로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하면 외국에서 반입된 CD와 DVD를 재생하지 못한다고 방송은 설명

● 北...중앙통신 ‘집중호우’ 심야보도(7/23, 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통신은 23일 0시30분 구체적 피해 상황은 언급하지 않은 채 평안북도와 자강도 지역에 전날 하루 최고 2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졌다고 전함.
-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각각 23일 오전 6시와 7시, 전날 오후 평안북도의 운산군, 함경남도의 신흥군과 함흥시에서 불어난 강물로 고립됐던 주민 68명을 공군 ‘비행기’ 4대가 긴급 출동해 구조했다고 전함.
- 이들 방송은 “운산군에는 21일 0시부터 22일 오후 3시까지 39시간 동안 204mm가 왔는데 특히 22일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동안 79mm가 집중적으로 퍼부어 군 전체가 물에 잠기기 시작했다”면서 “갑자기 불어난 큰물(홍수)로 1천 정보 가까운 농경지가 순식간에 물에 잠겼다”고 전함.
- 이들 매체에 따르면 북한에는 지난 16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강수량이 가장 많은 개성 인근 장풍군의 경우 16~19일 나흘간 332mm의 ‘물폭탄’이 쏟아졌음.

● 北에 여름 전염병 확산, 속수무책(7/23, 자유아시아방송(RFA))

- 방송은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되면서 북한 전역에 전염병이 번지고 있지만 치료약이 크게 부족한데다 당국의 특별한 대책도 없어 피해가 늘고 있다고 전함.
- 방송은 북한 현지 소식통들을 인용, “해마다 여름철이면 콜레라, 파라티푸스, 장티푸스, 성홍열 같은 전염병이 돌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곤 했는데 최근에는 병원체가 확인되지 않은 전염병까지 번지고 있다”면서 “청진, 무산, 부령 등에서는 악성 여름감기가 널리 퍼졌지만 별다른 대책 없어 가을이 와 수그러지기만 기다리는 실정”이라고 밝힘.
- 또 “북한 보건당국이 설사병 치료용 링거를 생산하는데 주력하고 있지만 북한에서 만든 의약품의 신뢰도가 낮아 중국산이 장마당에서 불티나게 팔린다”면서 “손발을 깨끗이 씻고 식초를 많이 마시라”는 식의 예방법을 주민들에게 교육하고 있기는 하나 의약품이 너무 부족해 설사병을 잡기는 역부족”이라고 덧붙임.

기타 (대내 사회 문화)

- 北, 7/16~19 사이 각 지역들에 집중豪雨 보도 (7/19, 중통)
- 조선기록영화촬영소, 기록영화 '주체철에 깃든 사랑과 믿음의 전설' 제작(7/19, 중통)
- 北·中청년종합축구팀 경기, 7/15과 7/18 평양 양각도축구장에서 진행(7/19, 중통)
- 4.25예술영화촬영소, 7/20 예술영화 '햇빛 밝아라' 제1부 제작 및 시사회 진행(7/20, 중통)
 - 당과 군대, 국가 간부들, 우당위원장, 당, 무력,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꾼들 등 감상
- 김정숙평양제사공장·평양방직공장 예술소조원들의 공연, 黨·政간부들 참석下 만수대예술극장에서 진행(7/21, 중통)
- 조선민속박물관에서 7/1부터 10월까지 가구유물전시회(함, 궤, 농, 장으로 구분되는 가구들과 서사가구, 소반 등 이조시기 대표적 유물 등) 진행 中(7/21, 중통)
-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8월초 5월1일경기장에서 개막예고(7/22, 평방)

2 대외

가. 일반

- 유엔, 올 하반기 北에 500만 달러 구호기금(7/20, 자유아시아방송(RFA); 미국의 소리(VOA))
 - 두 방송에 따르면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지난 16일 국제사회의 지원 감소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유엔 기구의 대북사업을 돕기 위해 '중앙긴급구호기금'(CERF)에서 5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
 - OCHA의 스테파니 벵커 대변인은 “북한에서 활동하는 모든 유엔 기구에 긴급구호기금이 분배될 수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아무래도 식량안보가 북한의 가장 긴급한 사안인 만큼 예년처럼 세계식량계획(WFP)에 가장 많이 배분될 것”이라고 RFA에 말함.
 - VOA는 이와 관련, “OCHA를 통해 북한에 지원될 긴급구호기금이 올해에는 상반기 800만 달러, 하반기 500만 달러 해서 모두 1천300만 달러 정도 될 것 같다”면서 “이를 작년의 1천900만 달러(상반기 1천 만달러, 하반기 900만 달러)와 비교하면 연간 지원액은 32%, 하반기 지원액은 45% 줄어든 것”이라고 밝힘.
 - 벵커 대변인은 VOA에 “아프리카 사헬 지방의 식량난 등 다른 나라의

- 위기상황이 급박해지는 바람에 북한에 대한 지원액이 줄었다”고 설명
- VOA는 “올 상반기 국제사회의 인도적 대북지원이 모두 1천170만 달러로 작년 동기 2천400만 달러의 절반에도 못미쳤다”면서 “특히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4월 이후에는 개별 국가 지원이 전혀 없었다”고 덧붙임.
- 금년 하반기 OCHA는 총 4천100만 달러의 긴급구호기금을 북한 등 9개 나라에 지원할 예정인데, 북한은 차드·콩고(각 800만 달러), 예멘(700만 달러)에 이어 네번째로 많은 지원을 받는 것임.
- OCHA는 올 연말 북한에 대표단을 보내 지원된 기금이 제대로 분배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

● **北통신 “박의춘 외무상, ARF 참가 위해 출발”(7/20,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박의춘 외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대표단이 아세안지역연단(ARF) 상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20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밝힘.
- 또 “조선대표단은 이어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천년기(밀레니엄) 개발목표 이행 검토에 관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상급 특별회의에 참가하는 등 이번 에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를 방문한다”고 덧붙임.

● **북한 외무상, 27년만에 미얀마 방문(7/21, 미국의 소리(VOA))**

- 박의춘 외무상이 1983년 아웅산 폭탄테러 사건으로 단교했던 미얀마를 오는 29일 북한 외무상으로는 27년만에 처음 방문할 예정
- 방송은 외신 보도를 인용, “박 외무상은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한 뒤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미얀마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박 외무상은 이번에 라오스와 인도네시아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북한 외무상이 미얀마를 방문하는 것은 27년만에 처음”이라고 밝힘.
-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박의춘 외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대표단이 아세안지역연단(ARF) 상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을 출발했으며, 베트남과 라오스, 인도네시아를 방문한다”고 밝혔으나 미얀마 방문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음.
- 북한과 미얀마는 단교 후 24년만인 2007년 외교관계를 회복했으며, 그 후 북한이 미얀마에 무기를 제공했다는 설 등이 나오고 있다고 VOA는 덧붙임.

- 국교 회복 이듬해인 2008년 10월 미얀마의 니얀 윈 외무장관은 북한을 방문해 박의춘 외무상을 만난 바 있음.

● 北…美 추가제재는 유엔 성명 위반(7/22, 연합뉴스)

- 북한은 22일 미국의 추가 대북제재는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힘.
- 북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대표단 대변인인 리동일 외무성 군축과장은 이날 베트남 하노이 국제컨벤션센터(NCC)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전날 발표한 추가 대북제재가 “천안함 사태에 대한 안보리 의장성명에 위반된다”고 밝히며, “국제사회의 우려와 관심이 커지는 속에서도 어제 남조선과 미국은 합동군사연습을 하겠다고 합의하고 발표했다”며 “이는 조선반도는 물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엄중한 위협”이라고 지적
- 그는 “안보리 의장성명은 서로 자제하고 평화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선반도 현안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면서 “이러한 의장성명의 정신에도 위반된다”고 재차 강조
- 리 과장은 “6자회담은 우리가 이미 참가하고 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여기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는 직접 혹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라는 천안함 의장성명의 정신에도 부합한다”고 말함.
- 또한, ‘미국이 대화를 제의하면 응하겠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동등한 조건에서 6자회담에 참가할 것이며 유관국들이 그러한 취지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이미 입장을 밝혔다”며 “유관국에는 미국도 포함돼 있다”고 답함.
- 리 과장은 “조선반도 비핵화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면 미국은 대화 분위기를 깨뜨리는 군사훈련과 제재를 하기 전에 이러한 조건을 마련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대화해야 결실이 나올 것”이라고 말함.
- 그는 이날 오전 박의춘 외무상과 양제츠 외교부장과 회담에 언급, “조·중 친선관계는 전통적인 우호관계”라며 “전통적인 친선관계는 최고위급 왕래를 비롯해 오늘과 같은 외교부장급 접촉을 통해 보다 더 강화 발전되고 있다”고 말함.

● 北, ‘美 군사조치에 물리적 대응할 것’(7/23, 연합뉴스)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가하고 있는 북한 대표단의 대변인 격인 리동일 외무성 군축과장은 이날 오후 베트남 하노이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기자들과 도어스텝(약식 기자회견)에서 “많은 공격무기를 장착한 조지워싱턴호가 참가한 이상 한·미연합훈련은 더 이상 방어훈련이 아니다”라며 “미국의 군사조치에 대해 물리적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밝힘.
- 리 과장은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에 대한 또 하나의 적대 행위로 조선반도는 물론 아시아 지역의 안정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북한은 이를 강력히 비난한다”고 밝힘.
- 그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 ARF 회의에서 한국이 “사죄를 운운하며 또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시도했다”고 지적한 뒤 “천안함 사건은 진상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우리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것은 절대 용납 못한다”고 말함.
- 리 과장은 “안보리 의장성명에서도 북한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에 유의한다는 요점이 있고 앞으로 직접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조했다”며 “북한은 이에 대해 평등한 조건에서 6자회담에 나가 평화협정 문제, 조선반도 비핵화 문제를 다룰 것임을 엄정히 천명했다”고 말함.
- 그는 또 이날 ARF 회의에 언급, “최근 조선반도 정세 악화는 60년째 존재해 온 정전협정 체제의 위험성을 실증해 줬고 평화협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것을 증명해줬다”며 “오늘 ARF에서 박의춘 외무상은 조선반도 평화보장과 관련한 이 같은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고 전함.

● 北…러시아, ‘천안함조사’ 투명성 의문제기(7/24, 연합뉴스)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가한 북한 소식통은 24일(현지시간) 하노이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 대표단이 우리 측에 천안함 조사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다”면서 “진상을 공개하게 되면 ‘납조선과 미국이 난처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다”고 밝힘.
- 이 소식통은 ‘러시아 측이 조사결과 보고서를 보여줬느냐’는 질문에 “공

- 식 통보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한 뒤 “러시아 측은 민군 합동조사단이 참여한 외국 조사관들의 실체나 투명성도 의문시 된다고 했다”고 전함.
- 그는 또 천안함 사태의 후속 대응으로 한·미 양국의 연합훈련에 대해 “중국도 한·미 연합연습에 대해 불만스러운 태도를 보였다”면서 “우리 측 군부도 어떻게 나올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함.

● 北, ‘美 제재에 물리적 조치로 대응’(7/24,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북한 외무성이 미국의 추가적인 대북 금융제재 조치와 관련해 “강력한 물리적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함.
-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을 통해 “얼마 전에 진행된 미국·남조선 ‘외교 국방장관 회담’이라는 데서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규모 전쟁연습과 추가적인 제재를 강행한다는 것을 공식 발표했다”며 “미국의 도발책동은 우리가 정한 금지선을 넘어서는 것이며 이런 조건에서 우리도 미국이 그어놓은 금지선에 더 이상 구애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주장
- 그는 “미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거역하고 군사적 도발과 제재압박으로 나오기로 한 이상 우리는 이미 천명한 대로 핵억제력을 더욱 다각적으로 강화하고 강력한 물리적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서 대응할 것”이라며 “그 후과에 대한 대가는 전적으로 미국이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
-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조(북)·미 회담과 6자 회담을 비롯한 모든 대화를 거부함으로써 국제사회앞에 자기가 한 공약을 다 뒤집어 엮었으며 전쟁연습 강행과 제재를 통한 압박강화로 나오고 있다”며 “미국이 칼을 내밀면 칼을 내대는 것이 우리의 대응방식이다. 우리는 대화와 전쟁에 다 준비되어 있다”고 호언함.

● 北박의춘 ARF서 북한 경제발전 성과 상황소개(7/24, 연합뉴스)

- 북한의 박의춘 외무상이 지난 2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 안보포럼(ARF)에서 천안함 사태로 북한 인민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짐.
-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박의춘 외무상은 전날 ARF에서 “지난 몇 달간

- 전쟁 직전의 폭발적인 조선반도 정세가 공화국(북한)의 안정과 인민에 피해를 줬고 경제에 극심한 손해를 가져왔다”고 밝힘.
- 박 외무상은 또 발언의 시작부터 북한의 경제발전 성과를 소개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전해짐.
 - 그는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2012년)을 맞아 강성대국 달성을 인민에 선포함에 따라 지난해 강철, 기계공업 등을 비롯한 인민 경제에 기적적 성과를 거뒀고 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면서 “금년에는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해 인민 경제 발전에 총력적 힘을 집중하고 있다”고 소개
 - 박 외무상은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전국 방방곡곡에 현장지도를 다녔고 국제적 투자와 관광업 확장, 경제개발 확대 등 중대한 정책을 확정해서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인 정세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
 - 그는 이어 “남조선 당국은 군부의 일방적 조사결과만 있는, 그래서 남조선 내부에서도 의혹이 제기되는 천안함 사건을 들고 나와 우리를 어렵게 한다”고 주장

기타 (대의 일반)

- 미국이 “조선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로 나온다면 평화협정체결은 문제로 되지 않으며, 비핵화과정도 빠른 속도로 추진될 것”이라고 ‘평화협정체결’ 持續 주장(7/19, 중통·노동신문)
- 일본의 제22차 국회 참의원 선거결과 與小野大(44:51) 정치현실은 “정국이 풍파와 곡절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예상(7/19, 중방)
- 北-러 공동선언 발표(2000/7/19) 10돌 즈음 사진전시회 및 영화상영주간 개막식, 7/19 김정숙(대외 문화연락 위원장) 및 駐北 러시아 임시대리 대사 등 참가下 대동문영화관에서 진행(7/19, 중통)
- 北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日 아사히신문의 ‘北붕괴설 연재기사’를 “공화국의 영상을 깎아보려는 용납 못할 망동”이라고 비난하며 “정치적 도발행위에 대해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7/20, 중통)
- ‘오키나와 미군기지를 조선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억제력’으로 밝힌 외교문서 공개 관련 “조선반도 지배를 통하여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려는 美·日의 더러운 흥정놀음”이라고 비난(7/20, 중통·노동신문·평방)
- 김영남, 7/19 벨기에 국경절 즈음 同國 국왕에게 축전(7/20, 중통·중방)
- 김영남, 콜롬비아 독립 200주년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7/20, 중통·중방)
- 駐北 이집트대사관 성원들과의 친선모임(이집트의 7월 23일 혁명 58돌 즈음), 서호원(北·이집트 친선협회 부위원장) 등 참가下 평양방직공장에서 진행(7/22, 중통)
- 김영남, 이집트의 민족적 명절인 7월23일 혁명 58돌 즈음 대통령에게 축전(7/22, 중통)

3 대남

- 北신문 “한·미 해상연합훈련, 엄중한 도발”(7/19, 조선중앙통신)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이달 하순 동해상에서 진행될 한·미 해상 연합훈련에 대해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비난
 - 통신에 따르면 이 신문은 논평에서 “최신예 전투기 80대를 탑재하고 1천 km의 작전반경을 가진 미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투입된다는 사실만으로도 해상연합훈련의 위험성이 드러난다”면서 “남조선 당국은 훈련 강행이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 정세에 미칠 파국적인 후과를 심사숙고해 전쟁연습 계획을 당장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

- 北최태복 의장 “한반도, 전쟁 접경 치달아”(7/20, 연합뉴스)
 - 최태복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은 “평화와 민족통일을 바라는 대다수 민족의 열망과 달리 한반도 상황은 전쟁의 접경으로 치달고 있다”고 주장
 - 최 의장은 이날 낮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차 세계국회의장회의의 연설에서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 “올해 3월 남한의 군함인 천안함이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에 침몰했을 때 남한 정부는 억지로 이 사건을 북한과 연계시키려 시도했다”며 “그 결과 한반도에는 전쟁의 불구름이 드리워졌다”고 말함.
 - 최 의장은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이익을 얻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미국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
 - 그는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4월 핵 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북한을 핵무기 불사용 대상국가에서 제외한 것을 거론하며 “이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핵 위협정책을 계속 추구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힘.
 - 또한, 그는 “미국과 남한 보수세력이 히틀러에 의해 저질러진 ‘의사당 방화사건(Reichstagbrand)’을 연상시키는 적대적 모략사건을 연출해 우리의 생존권과 자주권을 위협하는 것을 추호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강조
 - 북한은 지난 1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군사논평원 글을 통해 천안함 사건 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 ‘의사당 방화사

건’ 등 역사적 사례들을 들며 “천안함 침몰 북 관련설은 날조”라고 주장한바 있음.

- 최 의장은 이날 이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미국은 부시 행정부의 전철을 밟지 말고 평화협정 체결 제안을 받아들이고 남북관계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함.
- 최 의장은 연설이 끝난 뒤 실무자의 안내를 받아 지체 없이 회의장을 빠져나갔으며, 연설을 경청한 박희태 국회의장이 주차장까지 따라나가 대화를 시도했으나 끝내 외면한 것으로 알려짐.

● 北, 임진강 댐 방류계획 추가 통보(7/22,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18일에 이어 22일 다시 임진강 상류 댐의 방류계획을 우리 측에 통보
- 통일부는 “북측이 경의선 군 통신선을 통해 ‘7월 22일 오전 6시부터 임진강 상류에 있는 댐들의 방류가 예상된다’는 내용을 통보해왔다”고 밝힘.
- 북측은 방류 예정시간보다 조금 늦은 오전 6시 40분께 ‘북측 군사실무책임자’ 명의로 우리 측 ‘남측 서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 앞으로 통지문을 보냄.
- 통일부는 이에 따라 북측의 댐 방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강홍수통제소를 비롯해 한국수자원공사, 경기도, 연천군 등 관련 기관에 북측의 통보 내용을 전파
- 북측은 앞서 지난 18일에도 경의선 군 통신선을 통해 ‘지금과 같이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저녁 8시 이후 임진강 상류 댐의 물을 불가피하게 방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려왔으며, 북측은 당시 댐을 실제 방류한 것으로 관측됨.

● 北, 또 팩스공세…‘7.28 재보선 심판’ 주장(7/23, 연합뉴스)

-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측은 최근 우리 측 모 종교단체에 7.28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내용의 팩스를 보내온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팩스는 북측 종교단체 명의로 중국을 통해 들어온 것으로 알려짐.
- 북측은 팩스에서 최근 경찰과 국가정보원의 한국진보연대 수사를 언급하며 이명박 정부가 진보세력을 탄압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도 ‘날조극’이라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짐.

● 北통신, ‘국방위 검열단 현지조사 구체안 제시’(7/23,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북한측이 판문점에서 열린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 판문점대표부 대령급 실무회담에서 북한 국방위원회 검열단의 현지조사를 요구하면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고 밝힘.
- 통신에 따르면 북측은 이날 실무회담에서 “우리 국방위원회 검열단의 현지조사가 선행되어야 쌍방의 조사결과에 따라 조·(북)미 군부 장령(장성)급 회담을 개최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은 물론 북남 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토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방위원회 검열단은 20~30명으로 구성하고 ▲조사기간은 쌍방 합의에 따라 3~5일 또는 그보다 더 길게 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을 제시
- 또 북측은 ▲검열단의 현지조사에는 현장답사와 ‘물증’분석, 증언청취, 자료수집과 요해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최대로 동원하고 ▲미군측은 국방위원회 검열단이 요구하는 모든 사건관련 자료들과 대상, 물증들을 제공해야 하며 ▲국방위원회 검열단왕래는 북한측 차량과 판문점을 통한 육로를 이용하고 ▲국방위원회 검열단원들에 대한 안내와 편의제공, 신변안전보장 등 현지조사와 관련한 모든 실무적 보장은 미군측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통신은 밝힘.
- 북측은 또 동해에서 실시할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내달 실시 예정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대해 “대화분위기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또 하나의 군사적 도발”이라며 “앞에서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대해 떠들고 뒤에서는 우리를 반대하는 군사적 모험에 매어달리는 미국의 이중적인 태도는 조선반도 정세를 전쟁국면으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처사”라고 비난
- 통신은 “쌍방은 제3차 판문점 조미 군부 대좌급 실무접촉을 29일경에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덧붙임.

● 北국방위, 한·미연합훈련에 ‘보복성전’ 다짐(7/24, 조선중앙통신)

- 북한 국방위원회는 25일부터 동해상에서 대규모로 진행되는 한·미 연합훈련 등과 관련해 “강력한 핵억제력으로 당당히 맞서나갈 것”이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의도적으로 정세를 전쟁접경

- 에로 몰아가고 있는데 대응하여 필요한 임의의 시기에 핵억제력에 기초한 우리 식의 보복성전을 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은 전함.
-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우리 식의 강위력한 억제행동으로 침략자들의 무모한 군사적 도발책동을 짓부셔 버릴 것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 연합훈련과 내달 실시될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우리에 대한 군사적 압살을 노린 노골적인 도발행위”라고 비난하며 이같이 말함.
 - 성명은 이어 “미제가 핵 또는 상용무기로 우리를 공격하거나 침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9.19공동성명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뒤집고 직접적인 군사적 도발책동에 매달리고 있는 조건에서 그에 대응한 전면적인 보복조치를 취하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응당한 선택”이라고 주장
 - 또 연합훈련 등을 “사상 최대규모의 핵전쟁연습소동”이라고 규정하고 “미제가 핵을 휘두르고 괴뢰들이 거기에 추종하면 할수록 우리의 핵억제력은 자위의 궤도를 따라 비상한 속도로 강화될 것이며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더욱더 요원해질 것”이라고 강조
 - 이와 함께 “이러한 군사적 도발은 ‘천안’호 사건의 ‘북 관련설’을 부정하고 조선반도의 긴장을 평화적으로 완화시킬 것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요구와 유엔의 의사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 아닐 수 없다”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천안’호 사건을 계속 우리와 억지로 연계시키고 있는 조건에서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기 위한 모든 조치를 끝까지 취하게 될 것”이라고 성명은 덧붙였다.

기타 (대남)

- 연내 패트리엇미사일부대 배치계획 추진 관련 “北을 겨냥한 상전의 미사일 방위체계에 정식 가입하려 한다”며 “외세와 야합하여 제2의 조선전쟁 도발으로 미친 듯 질주하고 있다”고 비난 (7/20, 평방)
- 北 『민화협』 대변인 담화, 한국진보연대 등 통일운동단체들에 대한 “파쇼적 폭거, 탄압소동이 감행되고 있다”고 선동 발표(7/21, 중동)
- 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단 발표 관련 “날조극, 모략극”이라며 “검열단 및 공동조사 수용” 持續 주장(7/21, 평방)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07.26-07.31

7월

5주차

1. 대내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사회·문화

2. 대외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1 대내

가. 정치

● 北, 당 대표자회 참가자 선출 진행중(7/26, 자유북한방송)

- 북한이 오는 9월 초순으로 예정된 노동당 대표자회를 앞두고 회의 참가자를 선출하고 있음.
- 방송은 ‘함경북도 통신원’의 전언을 인용, “당대표자회 참가자들을 선출하는 사업이 당 기관에서 극비리에 진행되고 있다”며 “당 내부사업으로 진행하는 당 대표자회 참가자 선출 원칙이 중앙당으로부터 하달됐다”고 밝힘.
- 이번 당대표자회 참가자는 당 하부의 말단조직인 당 세포비서를 비롯한 핵심당원을 위주로 선출하되 당 간부들은 적은 인원만 참가한다는 원칙이 시달됨.
-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노동당 규약은 “당대회 또는 당대표회의 대표자는 차하급 당조직의 당대표회 또는 당총회에서 선거한다”며 “당대회 대표자의 선출 비율은 당 중앙위원회가 결정하며, 도·시·군 당조직의 당대표회 대표자 선출 비율은 당 중앙위원회가 작성한 규정에 따라 해당 당 위원회가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함경북도 통신원은 또 “당대표자회를 앞두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당의 위대성 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당원들 사이에서도 당 생활을 회피하는 경향이 농후하다”면서 “당 생활총화에 참가하기 싫어 서면으로 생활보고를 하는 당원이 생겨나고, 수입의 2%에 해당하는 당비까지 제대로 내지 않아 당 간부들이 당 회의 때마다 큰소리를 친다”고 전함.
- 통신원은 이어 “당원이 당 활동에 6개월 이상 참가하지 않으면 자동출당된다는 내부 규정이 있지만 최근에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임.

● 北, 김일성-김정일 동격화 징후(7/27, 열린북한방송)

- 북한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영원한 수령’인 고 김일성 주석과 동격화하려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남.

- 방송이 공개한 북한 군 기관지 ‘조선인민군’(4월 14일자)은 2면 기사에서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김일성-김정일 강성대국을 일떠세울 백두산 혁명강군의 드팀없는 신념”이라는 대목에서 ‘강성대국’ 앞에 김일성 주석과 김 위원장 이름을 나란히 인용하였으며, 이어 “보고자들은…위대한당의 선군혁명 영도 따라…김정일 강성대국을 하루 빨리 일떠세우기 위해…싸워나갈 데 대해 강조했다”면서 ‘김정일 강성대국’이라는 표현을 사용
- 신문 사설은 또 “백두의 선군영장을 충직하게 받들어…김정일 통일강국을 일떠세우고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가자”면서 ‘김정일 통일강국’이라는 표현을 사용
- 북한 매체들은 1994년 7월 사망한 김일성 주석의 이름을 민족이나 조국 앞에 써 ‘김일성 민족’, ‘김일성 조선’ 식으로 표현해왔으나, ‘조선인민군’ 처럼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이름을 나란히 붙여 쓰거나 김 위원장의 이름을 단독으로 쓴 예는 외부에 처음 전해짐.
- 방송은 “후계자 김정은이 조부 김일성과 같은 반열에 아버지 김정일을 올려놓고 역사적 인물로 미화함으로써 자신의 충성심으로 과시하고 입지를 굳히려 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

● 北김정일, ‘정전’ 경축음악회 관람(7/28,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조국해방전쟁 승리’(6.25전쟁 정전) 57주년을 기념하는 공훈국가합창단의 경축음악회를 관람하였다고 전함.
- 김 위원장의 이번 ‘공개활동’ 보도는 지난 24일 조선중앙통신이 평양교예단 공연 관람 소식을 전한 이후 나흘만에 나온 것
- 김 위원장은 ‘김일성 원수께 드리는 노래’,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수령이시여 명령만 내리시라’, ‘승리의 열병식’ 등의 공연이 끝난 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역사적 승리는 조국의 운명을 생사존망의 위기에서 두 번 구원한 민족사적 사변이었다”면서 “그 어떤 힘도 자주독립 사회주의로 나가는 우리 인민의 전진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현실로 확증한 자랑찬 승리였다”고 말했다고 소개
- 이번 공연 관람에는 최영림 내각 총리, 김영춘 국방위 부위원장 겸 인민무력부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겸 당 행정부장, 최태복·김국태·김기

남 당 중앙위 비서,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리영호 군 총참모장, 주상성 인민보안부장 등이 수행

- 김 위원장은 이달 들어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예술소조와 평양방직공장 기동예술선동대 공연(20일 보도), 평양교예단 종합교예 공연(24일 보도)에 이어 이번까지 세 차례 공연을 봤음.

● 北…김정일→김정은 ‘해외비자금 이관’ 진행중(7/28, 열린북한방송)

- 미화 40억 달러 규모로 알려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해외 은닉 비자금을 후계자인 셋째 아들 김정은에게 넘겨주는 작업이 리철 전 스위스대사의 주도 아래 진행되고 있음.
- 방송은 ‘북한의 고위급 소식통’을 인용, “리철 전 스위스대사가 지난 3월 북한으로 돌아간 이유는 김정일의 해외 은닉 비자금을 김정은에게 점진적으로 넘겨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귀국 후 리철은 김정일의 지시를 받아 김정은에게 해외비자금 관리 노하우를 전수하면서 이관 작업을 은밀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힘.
- 방송은 또 “북한에서 김정은 후계구도의 공개적 후견인이 장성택(김 위원장의 매제)이라면 리철은 숨은 후견인”이라면서 “리철이 김정은 후계를 막후에서 조종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함.
- 방송은 이어 “리철의 본명은 립철인데 김정일을 따라 입당하고 나서 1980년 제네바로 파견될 때 리철로 바뀐 것”이라면서 “김정은이 스위스 베른 공립학교에 다닐 때 학부형 역할을 맡을 정도로 리철은 김정은과 가족같이 각별한 사이”라고 덧붙임.
- 1980년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 공사로 부임해 제네바와 첫 인연을 맺은 리철은 그 후 UN사무국 주재 상임대표부 대사를 거쳐 1998년부터 스위스 대사를 겸임했으며, 지난 3월 귀국 전까지 스위스 외교가를 무대로 활동하면서 스위스, 룩셈부르크 등의 은행 비밀계좌에 김 위원장의 비자금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짐.

● 北김정일, 당간부들에 고급승용차 160여대 선물(7/30,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1874호가 사치품의 북한 수출을 금지하

-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근 당 고위간부들에게 ‘벤츠’로 추정되는 고급승용차 160여대를 나눠준 것으로 전해짐.
- 방송은 ‘북한과 무역사업을 하는 중국인 사업가’의 전언을 인용, “김정일 위원장이 얼마 전 도(道)당 고위간부들에게 고급승용차를 선물로 나눠줬다”며 “김 위원장이 보내준 선물을 전달하는 행사가 전국적으로 열렸다고 밝힘.
 - 사업가는 또 “김정일로부터 이미 승용차를 받은 도당 책임비서나 조직비서, 선전비서 등은 이번에 제외되고 아직 승용차가 없는 근로단체 비서와 도당 부장급이 대상이었다”면서 “함북도당에만 11대의 승용차가 선물로 내려왔다”고 설명
 - 또 헤산시 소식통의 전언을 인용, “7월 23일 헤산시 경기장에서 김정일이 선물한 승용차를 전달하는 전달식이 열렸다”면서 “선물로 내려온 승용차는 독일 벤츠(다임러사)와 중국 자동차회사의 합영회사 제품인 것으로 소문났는데 승용차 뒷면에는 ‘MBC’라는 로고가 들어가 있다”고 소개
 - 소식통은 “전국적으로 이번에 나눠준 승용차가 160여대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들 승용차의 반입 경로와 시점, 전체 가격 등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덧붙임.
 - 독일 다임러사는 중국의 ‘베이징자동차’와 합작해 중국에서 메르세데스-벤츠 승용차를 생산하고 있어, 김 위원장이 이번에 선물로 나눠준 승용차도 중국산 벤츠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北김영남 ‘홍루몽, 북·중 우의의 상징’(7/30, 신화통신)

- 통신은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2개월여의 중국 순회공연을 마치고 귀국한 북한 피바다가극단의 ‘홍루몽’에 대해 “북·중 양국의 우호 증진에 큰 공헌을 했다”며 극찬했다고 보도
- 피바다가극단이 지난 29일 평양대극장에서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의 외교관들과 평양 관객들을 위해 홍루몽을 공연했으며 이 자리에서 김 상임위원장이 류홍차이(劉洪才) 주북한 중국대사에게 “홍루몽의 중국 공연이 큰 성공을 거두고 중국인들로부터 찬사도 받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고 통신은 전함.

- 김 상임위원장은 이어 “이번 공연은 북·중간의 단순한 문화 교류를 넘어서 양국의 우의를 재차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홍루몽은 북·중 우의의 상징”이라고 평가
- 류 대사는 이에 대해 “홍루몽이 북한 예술의 정수를 선보였을 뿐 아니라 양국간 두터운 우의를 다지게 했다”며 “홍루몽에 이어 북한에서 준비 중인 가극 ‘양산박과 축영대’도 성공을 거두길 바란다”고 화답

● 北김정일, 자강도 일대 공장 현지지도(7/31,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강도의 강계트락포르(트랙터)종합공장, 장자강공작기계공장, 9월방직공장, 장자산종합식료공장, 강계기초식품공장, 강계고려약가공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전함.
- 강계트락포르종합공장을 방문한 김 위원장은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소방대의 ‘소화훈련’을 참관했으며, 장자강공작기계공장에서는 “최첨단 기술에 기초한 기술개조사업에 역량을 집중해 생산공정의 현대화, 정밀화, 제품의 규격화, 표준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
- 김 위원장은 또 신설된 장자산종합식료공장을 방문해 생산공정을 둘러본 뒤 강계기초식품공장에 들러 “식품 부문에 대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 기술지표의 유일성을 보장하며 생산공정의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
- 제약공장인 강계고려약가공공장에서는 “고려약(한약)의 치료 효과를 높이자면 결정적으로 고려약 생산을 과학화, 공업화해 약을 엑스화(엑기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통신은 전함.
- 앞서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의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예술소조와 평양방직공장 기동예술선동대 공연(20일 보도), 평양교예단 종합교예 공연(24일 보도), ‘조국해방전쟁 승리’(6.25전쟁 정전) 기념 공훈국가합창단 경축음악회(28일 보도) 관람 소식을 전했다지만 사진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 현지지도에서는 관련 사진을 공개함.
- 박도춘 자강도 당 위원회 책임비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겸 당 행정부장, 당 중앙위 부장인 김경희, 홍석형, 태종수와 제1부부장인 주규창, 리재일이 수행

김정일동향

- 7/28 김정일, '조국해방전쟁 승리'(6.25전쟁 정전) 57주년을 기념하는 공훈국가합창단의 경축음악회 관람(7/28, 중방)
 - 최영림 내각 총리, 김영춘 국방위 부위원장 겸 인민무력부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겸 당 행정부장, 최태복·김국태·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리영호 군 총참모장, 주상성 인민보안부장 등이 수행
- 7/28 김정일, 자강도의 강계뜨락또르(트랙터)종합공장, 장자강공작기계공장, 9월방직공장을 현지 지도(7/30, 중통)
 - 박도춘 자강도 당 위원회 책임비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겸 당 행정부장, 당 중앙위 부장인 김경희, 홍석형, 태종수와 제1부부장인 주규창, 리재일이 수행
- 7/28 김정일, 인민군대를 성심성의로 원호한 선교구역 종합식당 등 일꾼에게 「감사」 전달(7/28, 중방)
- 7/31 김정일, 자강도 강계시의 경공업부문 공장들(장자산종합식료공장·강계기초식품공장·강계고려약공장·희천청년전기연합기업소) 현지지도(7/31, 중통)
 - 박도춘 자강도 당 위원회 책임비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겸 당 행정부장, 당 중앙위 부장인 김경희, 홍석형, 태종수 등이 수행
- 7/31 김정일, 희천청년전기연합기업소 현지지도(7/31, 중통)
 - 박도춘 자강도 당 위원회 책임비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겸 당 행정부장, 당 중앙위 부장인 김경희, 홍석형, 태종수와 제1부부장인 주규창, 리재일이 수행

기타 (대내 정치)

- 《전승절》(7/27 조국해방전쟁승리) 57돌 관련 김일성의 “비범한 영군술에 의한 자랑찬 승리”라며 김정일의 선군영도 ‘당위성, 정당성’ 강조(7/26, 중통·노동신문)
- 《전승절》(7/27 조국해방전쟁승리) 57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김영춘(인민무력부장, 보고), 김기남(사회) 등 참가하 평양체육관에서 진행(7/26, 중통·평방)
 - 주석단 : 김영남, 최영림, 전병호, 최태복, 이영호, 김정각, 김국태, 김기남, 양형섭, 김영대 등
- 訪北 한상렬 목사,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및 혁명사적지 등 답사(7/27, 중통)
- 《남녀평등권법령》 공포(7/30) 64돌 관련 ‘천리마 동상’에 여성상이 새겨진데 대해 전하며 金父子의 “여성의 자유와 해방, 정치와 군사 등 각 분야 참여보장 등 배려” 칭송 및 “조선여성의 긍지높은 삶” 선전(7/29, 중방·노동신문·중통)
- ‘평양산원’ 개원(1980/7/30) 30돌 즈음 지난 30년간 “600여쌍의 세쌍둥이를 길러냈다”고 성과 자랑 및 “김정일의 100여차에 걸친 의료기구 등 전달, 무상치료제 실시 등 사회주의 제도” 선전(7/29, 중방·중통)
- 北,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무연탄 가스화에 의한 비료생산공정 건설에서 위훈을 세운 일꾼들과 기술자들에게 표창수여(7/29, 중통)

나. 경제

● 北 금융제재로 수출대금 동결 ‘전전공공’(7/26, 연합뉴스)

- 미국이 북한 정권으로 흘러드는 돈을 죄기 위한 대북 추가 금융제재를 추진하는 가운데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창구인 광산 업체들이 이미 지난해 핵실험 이후 취해진 국제사회의 대북 금융제재로 수출대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 25일 중국의 광산업계와 대북 무역상들에 따르면 북한의 대표적인 광물인 마그네사이트 생산업체인 ‘조선마그네샤크링카공업총회사’가 대북 금융제재 이후 수출대금의 송금중계를 맡겼다는 외국계 은행이 없어 지난해 유럽에 수출한 460만 달러(55억 원) 규모의 아연과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음.
- 중국 광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5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국제적인 대북 금융제재가 강화되면서 유럽계 은행은 물론 중국의 은행들조차 북한 무역업체들의 수출대금 송금중계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유럽의 수입 업체들이 이미 아연과 대금을 지급했으나 송금받을 길이 막혀 북한이 이를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힘.
- 관계자는 “북한의 다른 광물 수출업체들도 사정은 비슷하다”며 “광물 이외에는 외화벌이를 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북한이 외국계 은행들의 송금 중단 조치로 광물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외화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함.

● 北 ‘평양 10만호’ 사업, 자재난으로 큰 차질(7/28, 데일리NK)

- 북한이 ‘강성대국’을 선전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평양 10만호’ 사업이 시멘트 등 자재 부족으로 큰 차질을 빚고 있음.
- 매체는 ‘평양 소식통’을 인용,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하는 3만5천세대만 해도 현재 공정률이 40%대에 머물고 있다”면서 “기본 골조공사를 9월까지 마치고 미장과 내부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었는데 시멘트 부족으로 아직 외형도 완성되지 못한 상태”라고 밝힘.
- 매체는 이어 “‘평양 10만호’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장성택 당 행정부장이 ‘석탄이라도 팔아서 시멘트를 조달하라’고 긴급 지시해 외화벌이 기관들에 총동원령이 떨어졌다”고 말함.

- 북한의 '평양 10만호' 사업은 2012년까지 평양 지역에 주택 10만 세대를 건설한다는 것인데, 그 중 평양 중심부 1만5천세대와 북쪽 룡성구역부터 남쪽 력포구역에 이르는 철도연선의 2만세대는 당초 올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짐.
- 북한 당국은 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조달하기 위해 전국의 공장과 기업소에 총동원령을 내렸으나 희천발전소 등 대형 건설사업과 겹치면서 지난 6월부터 시멘트 등 자재난이 심해졌음.
- 사업 추진 조직으로 설립된 '평건투자개발그룹'의 투자의향서를 보면 '3월에 진행되는 기초공사에만 30만톤의 시멘트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북한의 연간 시멘트 생산량은 남한의 12%인 640만톤에 불과하다고 덧붙임.
- 매체는 "원래 이 사업은 2012년을 목표로 하는 '강성대국 건설'을 과시하기 위해 시작됐는데 현재는 후계자 김정은의 업적으로 선전되고 있다"면서 "만약 공사에 차질이 생겨 완공 시점이 크게 늦춰지거나 하면 김정은의 이미지를 훼손할 수도 있다"고 지적

● 北, 무산 철광석 중국에 팔아 옥수수 대량수입(7/29, NK지식인연대)

- 북한이 최근 함경북도 무산광산 철광석의 중국 수출을 2배 이상으로 늘려 옥수수를 대량 수입하고 있음.
- 단체는 '현지 통신원'의 전언을 인용, "무산세관을 통과해 중국으로 들어가는 철광석의 양이 7월 초에 비해 2배로 증가했다"면서 "20일 전만 해도 무산세관을 통과하는 25t 트럭이 하루 평균 50~60대였는데 요즘은 100대 이상으로 늘어 하루 철광석 수출량도 1천200여t에서 2천500t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밝힘.
- 통신원은 또 "철광석을 운반하러 들어오는 중국 트럭에 옥수수 포대가 가득 실려 있는 광경이 자주 목격된다"면서 "북한이 철광석을 중국에 수출한 대금으로 옥수수를 사들이는 것 같다"고 말함.
- 이처럼 옥수수 수입이 단기 급증하면서 이달 중순 kg당 1천200원까지 치솟았던 무산시장의 쌀값이 900원대로 떨어졌고, 옥수수 값도 kg당 600원에서 500원으로 하락했다고 덧붙임.
- 한편 7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외화사정 악화로 북한 외화벌이 기관에 지

급되던 수입대금용 달러가 끊겨 식량 수입이 일시 중단되는 바람에 일부 지역의 장마당 쌀값이 kg당 1천200원대까지 폭등했다고 설명

● 北, 화폐개혁시 예금 50만원 8월부터 교환(7/29, 데일리NK)

- 북한 당국이 작년 11월 말 화폐개혁 당시 조선중앙은행에 예금된 주민들의 돈을 구권 50만원 한도 내에서 8월 1일부터 100대 1로 환산해 신권으로 바꿔준다고 공고
- 매체는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면서 구권 50만원은 현재 사용 중인 신권 5천원에 불과해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전망하며, “북한의 이번 조치가 화폐개혁 이후 개인보유 자산이 줄어들면서 주민생활이 어려워진 것을 감안해 생활고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분석
- 매체는 화폐개혁 직전 북한 시장에서 쌀이 1kg당 2천원 안팎에 팔렸기 때문에 당시 50만원이 있으면 쌀 250kg을 살 수 있었다면서 소식통의 언급을 통해 “이미 모든 물가가 화폐개혁 이전으로 돌아와 쌀 1kg에 1천 원이고, 50만원을 저금했다가 5천원을 돌려받으면 이제 쌀 5kg밖에 사지 못한다”고 북한 사정을 전함.
- 매체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신·구화폐의 교환비율을 1:100으로 했던 지난해 11월말 화폐개혁 당시 세대당 15만원 한도에서 신권을 교환해주고 구권을 저금토록 하면서 예금을 반드시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1992년 4차 화폐개혁 때 주민들의 예금을 몰수했었던 일 때문에 실제 저축에 참여한 주민은 많지 않았음.
- 북한은 화폐개혁 이후 물가폭등을 비롯한 부작용이 잇따르자 지난 3월 화폐개혁을 주도한 박남기 전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을 총살함.

● 北, 평양-상하이 직항 8월 6일 시작(7/29, 중국신문사)

- 북한 고려항공이 평양과 중국 상하이(上海)를 오가는 직항노선을 내달 6일부터 운행할 예정
- 상하이의 포털사이트(www.online.sh.cn)에 따르면 이 노선은 오는 10월 5일까지 한시적으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에 평양을 출발, 상하이에 도착한 뒤 저녁에 평양으로 돌아가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
- 고려항공은 현재 베이징과 선양(瀋陽) 등 중국 내 2개 도시에서 정기노선

을 운영하고 있지만 올해 4월부터 중국인의 북한 단체관광이 활발해지면서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취항 도시 확대를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짐.

- 평양-상하이 간 노선은 전세기 차원으로, 북한과 중국은 운행 상황을 지켜보며 정기노선으로의 승격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기타 (대내 경제)

- 동해지구에 건설되는 '금야강발전소' 언제(물을 막기 위해 쌓은 둑) 완공(7/29, 중방)
-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에서 신형 극소형발전기(발전능력 500w, 주파수 60Hz) 생산 및 만포방사공장의 7월 중순 현재 연간계획 117% 초과 달성 등 경공업제품생산 생산성과 선전(7/29, 중통)
- 北-中 '경제기술협조에 관한 협정' 조인식, 리용남(무역상), 류홍재(駐北 中 대사) 등 참가下 평양에서 진행(7/29, 중통)

다. 사회·문화

● 北함경북도, 불법 컴퓨터프로그램 집중 단속(7/27, 데일리NK)

- 북한 당국이 DVD, MP3 같은 전자기기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가운데 국경을 접해 월경, 밀수 등이 빈번한 함경북도에서는 중문판 윈도 XP 같은 불법 컴퓨터 프로그램도까지 집중 단속하고 있음.
- 매체는 함경북도 내부소식통을 인용, 함경북도 당 위원회가 '합동검열단'을 조직해 지난달 20일부터 국외 영상물에 대한 집중 검열에 들어갔는데 동영상과 음악을 재생하는 관련 프로그램도 중점 단속하고 있다고 밝힘.
- 원래 북한 내에서는 당국이 지난해 허가한 리눅스 기반의 '붉은별' 프로그램만 사용할 수 있으나, 컴퓨터 대부분이 중국에서 들어오는데다 '중문판 윈도XP'나 '중문판 MS Office' 같은 불법 CD가 장당 3~5위안(북한 공식환율 57~95원)에 거래돼, '붉은별'보다 중국 프로그램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 함경북도가 검열 대상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시킨 이유도 최근 북한 내에 데스크톱과 노트북 컴퓨터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중국산 프로그램으로 외장 하드디스크나 USB 메모리를 돌려 한국 영화와 음악을 접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임.

- 통신은 현지 소식통이 전한 말이라면서 “이번 컴퓨터 프로그램 검열이 보위부나 보안부가 아닌 함경북도 당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지난해 말 김정일이 어머니(김정숙) 고향 회령에 다녀간 뒤로 함경북도에 대한 중앙의 관심과 배려가 높아지는데 여전히 이 지역에서 밀수, 월경 등 비사회주의 요소가 많이 발생해 9월 당대표자회를 앞두고 정지작업을 벌인 셈”이라고 덧붙임.

● 北 월드컵대표팀, 귀국 후 사상비판 회부(7/27, 자유아시아방송)

- 2010 남아공월드컵 본선에서 포르투갈에 7-0으로 지는 등 세 경기 모두 패한 북한 축구대표팀이 귀국 후 사상비판에 회부
- 방송은 ‘북한 내부소식에 정통한 중국인 사업가’의 전언을 인용, “지난 2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월드컵에 참가한 축구선수들을 놓고 사상투쟁회의가 열렸다”면서 “하지만 재일교포인 정대세와 안영학 등은 제외됐다”고 밝힘.
- 평양시 소식통은 “조직지도부 부부장과 박명철 체육상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월드컵에 참가한 대표선수들에 대한 대논쟁 모임이 있었다”며 “체육성 산하 각 종목별 선수들과 평양체육대학, 김일성종합대학, 김형직사범대학 체육학부 학생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고 말함.
- 소식통은 이어 “대표팀의 김정훈 감독과 선수들을 무대에 올려놓고 체육성 산하 종목별 선수대표와 대학대표의 비판이 벌어졌으며, 리동규 해설원이 개별 선수의 결함을 지적하면 다른 참석자들이 뒤이어 비판했다”면서 “회의 말미에는 대표팀 선수들을 한 명씩 내세워 김정훈 감독을 비판하게 했다”고 설명
- 방송은 신의주 소식통의 전언을 인용, “이번 대논쟁의 내용이 ‘김정은 청년장군의 믿음을 저버렸다’는 것이어서 누구든 책임을 져야 하는데 아마 김정훈 감독은 무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임.

● 北 ‘만성적 식량난’…수해컸던 2008년보다는 양호(7/28, 미국의 소리(VOA))

- 세계식량계획(WFP)은 현재 북한이 확보한 식량이 수요보다 25% 가량 부족하다고 보고, 식량위기 5단계 중 하위 두번째인 ‘만성적 식량난’ 상태로 분류

- WFP의 레나 사벨리 북한 담당 대변인은 VOA와 전화인터뷰에서 “북한이 ‘만성적 식량난’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특히 동북부의 함경남·북도와 량강도 지역의 식량 안보가 남부나 해안가에 비해 더 취약하다”고 밝힘.
- 사벨리 대변인은 이어 “북한 당국은 주민 1인당 하루 350그램의 식량을 배급한다고 보고했지만 입증하기는 어렵다”면서 “WFP와 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의 식량이 필요한 것보다 25% 부족하다고 본다”고 말함.
- WFP를 비롯한 유엔 기구들은 ‘식량안보 인도주의 단계 통합분류’(IPC)를 토대로, 개별 국가의 식량난을 ‘대체로 식량안보 확보’, ‘만성적 식량난’, ‘극심한 식량과 생계 위기’, ‘인도주의적 비상사태’, ‘기근과 인도주의적 재해’의 5단계로 나누는데 이에 따르면 북한은 하위 두 번째 단계에 해당
- 북한의 수해가 심각했던 2008년에도 WFP는 대부분의 지역을 2단계로 분류했지만, 동북부 지역은 3단계로, 일부 군 지역은 4단계로 평가
- VOA는 “지난 2년간 WFP가 대북사업 모금에 어려움을 겪어, 2008년 640만명이던 수혜 대상자수가 올해엔 250만명으로 줄었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사벨리 대변인은 “올해 대북사업을 위해 9천600만 달러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6%인 609만달러만 모금됐다”고 말함.

● 北 개성에 50년만의 ‘큰비’…호우 피해 속출(7/29, 조선중앙TV)

- 최근 개성 등 북한 곳곳에 집중호우가 쏟아져 피해가 속출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50년만에 최고 강우량을 기록한 개성시의 경우 이달 12~19일에만 지역에 따라 최고 324mm(평균 300mm)의 비가 내려 다른 곳보다 피해가 컸음.
- 특히 지난 22일 밤에는 불과 3시간 사이 128mm의 비가 쏟아져 2천850여종의 논밭이 물에 잠기고 다리 4곳과 구조물 6개, 살림집 118곳, 여러 곳의 도로가 유실
- 비 피해는 강원도에서도 심했는데 23일 오전 5시를 전후해 내린 집중호우가 원산청년발전소에서 나오는 물과 합쳐지면서 평양과 원산 사이 관광도로 30m가 3m 깊이로 패었음.
- 또 이 도로 밑의 원산시 샘물공급관과 성돈 지구의 상수도관이 파괴되고, 발전소 통신케이블이 절단돼 전력생산에도 차질을 빚었음.

- 자강도에도 22일 저녁부터 23일 새벽까지 폭우가 쏟아져 23일 하루에만 630여 세대의 살림집이 침수되거나 무너졌고, 장자강이 넘치면서 전천과 만포 사이 도로와 다리 20여 곳, 논밭 500정보(495여만㎡)가 유실
- TV는 18~20일 사흘간 폭우가 내린 함경남도 신흥군의 피해 상황을 화면으로 내보내면서, 이 지역 한 광산의 선광장(캐넌 광석을 추려내는 곳) 노동자들이 위급한 상황에 빠졌다가 헬기로 구조됐다고 전함.
- 이어 신흥군에 내린 비로 성천강 수위가 385cm나 높아져 살림집 220곳과 공공건물 65곳이 완파됐고 영광군과 신흥군을 잇는 영신다리 등 여러 곳의 다리와 1천m 이상의 도로, 500정보의 논밭이 침수됐다고 전함.

● 北가극 ‘홍루몽’, 中서 인기몰이(7/29, 인터네셔널 헤럴드 트리뷴(IHT))

- 지난 5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방중과 함께 중국을 방문, 최근 순회공연을 마친 피바다 가극단의 가극 ‘홍루몽(紅樓夢)’이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음.
- 신문은 피바다 가극단이 홍루몽 순회공연차 중국 단둥(丹東)에 도착한 5월 2일 현지 언론이 ‘파파라치’ 수준으로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쫓았고, 이들의 사진이 인터넷에 돌면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전함.
- 신문에 따르면 당시 중국 언론은 피바다 단원들의 태도가 “쾌활하고 친근했다”고 전하고 이들이 좋아하는 음식까지 자세히 소개하는 한편, 홍루몽이 “영화 ‘아바타’ 이후 중국에서 가장 인기를 끌었다”고 평가하는 등 큰 관심을 나타냈다고 전함.
- 신문은 김 위원장 방중과 맞물린 시기 베이징 공연에서 객석이 매진된 것을 비롯, 지난 18일 다롄(大連)에서 순회공연을 마칠 때까지 중국 각지 공연이 만원사례를 기록할 만큼 관객 호응도 뜨거웠다고 전함.
- 신문은 이어 피바다 단원들이 홍루몽 성공 이유에 관한 질문을 받자 “친애하는 영도자(김정일) 동지의 지도와 견해를 따랐다”고 답했다면서, 김정일이 2009년 중국과 수교 60주년을 맞아 홍루몽 개작을 결정했다는 배경도 자세히 설명
- 신문은 또 최근 김 위원장이 “조선 인민들이 세계 문화에 대한 이해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면, 홍루몽 개작과 함께 차이콥스키의 오페라 ‘예프게니 오네긴’ 제작도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함.

● 北 아리랑 공연 인기...작년보다 관람객 늘 듯(7/30, 자유아시아방송 (RFA))

- 방송은 북한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8월 2일 시작되는 집단체조 ‘아리랑’ 공연의 외국인 관람객은 작년보다 많이 늘어날 것 같다고 전망.
- 스웨덴의 북한 전문 여행사 ‘코리아 콘솔트’(Korea Konsult) 측은 이 방송에 “‘아리랑’ 공연의 인기가 매우 높아 미국인, 유럽인 등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북한 관광을 신청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예약자가 20% 늘었다”면서 “북한이 정치적인 이유로 관심을 끌수록 북한 관광이 인기를 얻는 경향이 있다”고 밝힘.
- 관광산업이 북한의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으로 부상하면서 함경남도 함흥, 함경북도 칠보산, 황해남도 해주 일원과 라진·선봉 지역 등이 새로 개방돼 고려여행사가 이들 지역을 둘러보는 관광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방송은 전망.
- 고려여행사 측은 “4월 초부터 함흥시내와 마전유원지, 사찰 등을 둘러보는 상품을 개발해 모객에 나섰다”면서 “8월 15일 북한 ‘조국해방의 날’(광복절)에 이뤄질 첫 관광에 영국, 독일, 네덜란드, 미국 등에서 20여 명이 예약했다”고 말함.

기타 (대내 사회·문화)

- 피바다가극단 창작가·예술인 환영모임, 안동춘(문화상) 등 참가자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에서 진행(7/26, 중통)
- 최상급축구연맹전 4차 경기(男:11개·女:8개팀 참가, 30일간 진행) 종료(7/26, 중통)
- 제25차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 입소식 진행(7/27, 중통)
- 《김일성상》 계관작품 경희극 ‘산울림’, 원산공연 개막(7/27, 중통)
- 조선예술영화 ‘햇빛 밝아라 1부’에 대한 주체적문예사상연구모임 진행(7/29, 중통)
- 피바다 가극단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홍루몽’ 귀환공연, 평양대극장에서 진행(7/29, 중통)

2 대외

가. 일반

● 판문점 北대위, ‘美 침략야심 불변’ 주장(7/28, FTV뉴스)

- 판문점 북한측 지역을 지휘 중인 북한군 대위는 “모든 사물이 변하지만 세상에서 유일한 불변의 사실은 미국이 우리를 침략하려는 야심이다.”라고 주장
- 뉴스에 따르면 이 북한군 대위는 “조선에서 전쟁이 멈춘지 반세기가 이미 지났으나 우리는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

● 北역류 곶즈 단식농성 중(7/31, 미국의 소리(VOA))

- 방송은 북한에 역류 중인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곶즈씨가 자살 시도에 이어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고 전함.
- 이 방송에 따르면 데이비드 하웰 영국 외무차관은 지난 28일 영국 의회에서 열린 북한 관련 토론에서 “곶즈씨가 현재 단식농성 중”이라고 밝힘.
- 하웰 차관은 이날 토론 중 한 의원이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곶즈씨의 자살기도 소식을 언급하며 그의 상태를 묻자 이같이 답하고, “영국정부는 평양의 대사관을 통해 현재 곶즈씨의 상황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으며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임.

● 北박의춘, 미얀마 외무장관과 회담(7/31,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북한과 미얀마의 핵 협력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의 박의춘 외무상이 30일 미얀마의 행정수도 네이피도에서 니얀 윈 미얀마 외무장관과 회담을 가졌다고 전함.
- 양측은 “두 나라 사이의 친선 관계 발전 문제와 호상(상호) 관심사로 되는 지역 및 국제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힘.
- 회담에는 북측에서 박 외무상을 비롯한 일행과 미얀마 주재 북한 대사가 참석했고, 미얀마측에서는 외무성 정치총국장, 아세안총국장을 비롯한 관련 관료들이 참가했다고 통신은 전함.

- 박 외무상의 미얀마 방문은 북한 외무상으로서는 27년만으로, 북한과 미얀마는 1983년 아웅산 폭탄테러 사건으로 단교한 뒤 24년만인 2007년 외교관계를 회복

기타 (대외 일반)

- 김영남, 駐北 스웨덴 대사 離任 접견(7/26, 중통)
- 北 박의춘 외무상 일행, 7/25 라오스 비엔티안 도착(7/26, 중방)
- 《정전협정》 체결(1953/7/27) 57주년 관련 북핵문제 등 現한반도 주변 정세에서 미국의 “對北정책 전환 및 평화협정체결 결단” 주장(7/27, 중통·민주조선)
- 北 박의춘 외무상과 라오스 외무상(통론 씨쑤릿) 회담, 7/26 라오스에서 진행(7/27, 중통)
- 日 자위대의 韓美합동군사연습 옵서버 자격 참가는 “미국이 3각 군사동맹을 완성하여 대조선침략 실현의 돌격대로 써먹으려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적들의 무분별한 군사적 망동에 대해 고도의 경계태세를 갖출 것” 주장(7/28, 중통·노동신문)
- 한국戰 시기 미군의 ‘역사유물 약탈범죄’를 비난하며 “문화재들의 반환과 정신문화적·물질적 피해와 손실에 대한 성실한 인정과 사죄 및 배상” 촉구(7/28, 중통)
- 김영남, 페루 독립 189돌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7/28, 중통)
- 최태복(黨 비서), 베트남 농민동맹대표단(단장: 원 꾸옥 끄영 농민동맹중앙위원장)과 담화(7/28, 중통)
- 김영남, 駐北 독일 新任대사 ‘게르하르트 티데만’ 신임장 접수(7/29, 중통)
- 김영일 黨 중앙위 국제부장, 訪北 ‘호정약’ 中 외교부장 조리와 담화(7/29, 중통)
- 駐北 이집트 대사, 7월 23일 혁명’ 58돌 즈음 김용준(교육위원장), 김형준(외무성 부상), 문성모(외교단사업국장) 등 초청下 연회 개최(7/29, 중통)
- 駐北 말레이시아 대사과 대사관 성원들, 평양시 강동군 봉화협동농장에서 친선노동(7/29, 중통)
- 김영남, 모로코 국경절 즈음 ‘모하메드 6세’ 국왕에게 축전(7/29, 중통)
- 김영남, 파키스탄 여객기 추락사고 관련 同國 대통령에게 위문전문(7/29, 중통)

나. 6자회담(북핵)

- 北김영춘 “발전된 방법으로 핵억제력 강화”(7/26,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인민무력부장 김영춘은 26일 “미국의 가증되는 핵위협에 대처하여 우리는 새롭게 발전된 방법으로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김 부장은 이날 정전협정 체결 57주년을 맞아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중앙보고대회 연설을 통해 “오늘 조선반도에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반공화국(반북) 대결과 새전쟁 도발책동으로 하여 언제 전쟁이 터질

지 모를 일촉즉발의 정세가 조성되다”며 이같이 말하고 “이것은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주적 권리이며 백두의 담력과 공격정신으로 적들을 맞아 아치고 백승만을 떨치는 우리 혁명무력의 무자비한 대응방식”이라고 주장했다고 이들 방송은 전함.

- 김 부장이 발언한 ‘새롭게 발전된 방법에 의한 핵억제력 강화’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지난달 26일 이미 언급한 것임.
- 그렇지만 북한 국방위원회가 24일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보복성전’을 다짐하며 “강력한 핵억제력으로 맞서 나갈 것”이라고 말한 데다 같은날 외무성도 미국의 추가적인 대북 금융제재 조치에 대해 “핵억제력을 더욱 다각적으로 강화하고 강력한 물리적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최근들어 ‘핵억제력’ 발언을 잇달아 내놓고 있어 주목됨.
- 그는 이어 “만약 미제와 이명박 역적패당이 우리의 거둬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도발한다면 우리는 자위적 핵억제력을 포함한 무진막강한 군사적 잠재력을 총폭발시켜 침략자들과 그 본거지들을 모조리 초토화함으로써 적들에게 진짜 전쟁이 어떤 것인가를 똑똑히 보여주고 전쟁의 화근을 깨끗이 없애버릴 것”이라고 강조
- 또 천안함 사건에 언급, “미국이 저들의 추악한 정치 군사적 목적달성을 노리고 이명박 역적패당과 공모 결탁하여 꾸며낸 파렴치한 날조극이며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새로운 침략전쟁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한 특대형의 범죄사건”이라고 주장
- 이와 함께 그는 전체 북한주민들에게 “주체적인 전쟁관점과 반제 계급의 식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온사회에 군사중시 기풍을 확고히 세워 국방공업을 최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며 군사를 성실히 배우고 온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더욱 튼튼히 다지며, 만단(만반)의 전쟁준비를 갖출 것”을 촉구

기타 (6자회담(북핵))

- 오바마 정권은 출범년도에 “北의 2차 핵시험을 촉발시켰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천안함 피격사건의 “강은 양면술(韓美합동군사연습 ↔ 美北 대령급 실무접촉) 외교로 정세를 오판하면 北은 같은 일(핵실험)을 되풀이 할 수 있다”고 시사(7/26, 조선신보)
- 일본 外相의 6자회담 재개 부정적 발언(조기재개 곤란, 北 태도여하에 따라) 관련 “일본은 6자회담의 핵방공, 불청객으로 이 문제해결에 끼어들 아무런 명분도 없다”고 ‘일본의 6자회담 배제’ 주장(7/26, 중통·노동신문·평방)

3 대남

● 北, 이번엔 ‘더 큰 억제력 대응’ 위협(7/27, 조선중앙통신)

-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한미 합동군사연습과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과 관련 대변인 성명을 내고 “적들의 억제력 과시에 선군으로 다져진 더 크고, 더 무서운 억제력으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 대변인 성명은 “미국과 괴뢰들이 무력 시위니, 경고니 하면서 누구를 놀래워보려 하지만 우리 인민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면서 “힘은 힘으로, 제재는 제재로 짓뭇개 놓는 것이 우리의 기질이고 본때”라며 이같이 위협함.
- 성명은 또 “(천안함 사건의) 진상이 아직 해명되지 못해, 유엔에서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 데 대한 의사표시가 되고, 우리 국방위원회 검열단 파견 문제에 관한 협의가 조·미 사이 진행중”이라면서 이런 상황에 제재 등이 언급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
- 앞서 북한은 24일 국방위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한·미 합동군사연습에 맞서 “핵억제력에 기초한 우리 식 보복성전을 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고, 같은 날 북한 외무성 대변인도 미국의 추가 제재에 “핵억제력을 더욱 다각적으로 강화하고 강력한 물리적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함.

● 北, ‘평양상주사무소 추진’ 북민협에 초청장(7/28, 연합뉴스)

- 북한이 대북 인도지원단체들의 연합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에 초청장을 보내, 이 단체의 평양 상주사무소 설치 계획이 실현될지 주목
- 박현석 북민협 사무총장은 28일 “북한에서 초청장을 받았고 통일부에 초청장을 첨부해 8월 4일부터 7일까지 방북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신청했다”며 “북측과 비자발급 문제 등을 논의 중”이라고 말함.
- 통일부가 북민협의 방북신청을 허가하면 천안함 사태에 따른 5.24 조치 이후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을 제외한 첫 방북임.

- 당초 북민협은 7월 21일이나 28일 방북할 수 있도록 초청장을 보내달라고 북측에 요청했으나 중국을 거쳐 초청장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된 것으로 알려짐.

● 北...‘잇단 한·미군사연습은 전쟁도발’(7/28, 연합뉴스)

- 통신은 31일 동해상에서 벌어진 한미합동군사연습 등을 거론하면서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새 전쟁을 도발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함.
- 통신은 이날 ‘제2의 6.25를 몰아오는 북침실동연습을 단죄한다’ 제목의 고발장을 발표해 올해 연말까지 한미 양측이 10여 차례의 합동군사연습을 벌이기로 한 것을 거론하면서 “연이어 벌이는 연합훈련들이 그 규모와 기간 그리고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일찍이 있어보지 못한 사상 최대의 선행침략전쟁연습이라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함.
- 통신은 “또 다시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이 제2의 6.25전쟁을 도발한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모든 자위적 억제력을 총발동하여 침략자들을 일격에 격멸소탕하고 미국이 우리 인민에게 끼친 죄악을 총결산하고야 말 것”이라고 덧붙임.

■ 기타 (대남)

- 韓美 연합군사훈련 실시(7/25~28)는 “우리(北)에 대한 입체적인 실동연습”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7/26, 중통·노동신문)
- 이번 국회의원 「재보선」(7/28)은 “통일세력 對 분열세력 등 세력간 심각한 정치적 대결”이라고 離間 및 “보수집권세력에게 반대표로 심판” 선동(7/27, 평방)
- 韓美 해상연합훈련 관련 규모나 내용상 “공화국에 대한 침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명백히 전쟁연습이고 새 전쟁도발의 서곡”이라고 주장(7/28, 평방)
- 대통령의 제3차 한-SICA(중미통합체제) 정상회의 참석 및 참가국 정상들의 천안함 피격사건 규탄 ‘특별선언문’ 발표를 “외세의존, 사건의 국제화”라며 “검열단 및 공동조사 수용” 주장(7/29, 중방)
- 北의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핵억제력 강화 등 강경대응 표명은 “작용에 대한 반작용”으로 선군노선 목표는 “평화실현 즉, 2012년 강성대국건설”이라고 代辯(7/29, 조선신보)

08.01-08.08

8월

1주차

1. 대내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사회·문화

2. 대외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1 대내

가. 정치

● 北김정일, 2.8비날론연합기업소 현지지도(8/2,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2월초 연이틀 2.8비날론연합기업소를 방문하고 3월에는 10만여명의 함흥시민이 운집한 가운데 열린 함경남도 2.8비날론연합기업소 준공 경축 군중대회에 참석하는 등 이 기업소에 큰 애착을 보이고 있음.
- 김 위원장은 공장의 생산시설을 둘러본 뒤 “2.8비날론연합기업소 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이와 함께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상건설과 과학기술개조사업을 계속 힘있게 내미는 것”이라고 강조
- 그는 “기업소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전기, 무연탄을 비롯한 원료와 자재를 제때에 충분히 대주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잘해 설비의 만가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시
- 이날 현지지도에는 광범기 함경남도 당 책임비서와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겸 당 행정부장,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김정희, 홍석형, 태중수 당 부장이 동행

● 北김정일, 함경남도 기업소 현지지도(8/3,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룡성기계연합기업소 선군주물공장과 흥남비료연합기업소 가스화대상건설장을 현지지도
- 김 위원장은 룡성기계연합기업소 선군주물공장의 내부를 돌아본 뒤 “공장을 현대화하고 기계생산을 늘이는데 주강과 주물, 단조와 같은 기초공정이 중요하다”면서 “최신식 설비로 장비된 이 공장의 역할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고 말함.
- 김 위원장은 이어 흥남비료연합기업소 가스화대상건설장을 찾아 “가장 실리있는 주체적 비료생산체계를 완성하는데 총역량을 집중해 공사를 앞당김으로써 짧은 기간 내에 비료 폭포가 쏟아지게 해야 한다”고 지적

- 또 “나라의 화학공업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근본적으로 일신시키고 비약적으로 발전시키자면 가스화대상 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내는 것과 함께 화학공업의 중요한 기초원료의 하나인 메탄올 생산공정 건설도 다 그쳐야 한다”고 주문
- 이날 현지지도에는 광범기 함경남도 당 책임비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겸 당 행정부장,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김경희, 홍석형, 태종수 당 부장 등이 동행

● 北김정일, 함남도 인민소비품 전시회장 시찰(8/4,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노동당의 ‘8월 3일 인민소비품’ 방침 제시 26주년을 맞아 열리고 있는 함경남도 인민소비품 전시회를 시찰
- 김 위원장은 전시된 옷과 신발, 식료품, 가정용품 등을 둘러본 뒤 “당 창건 65돌을 맞는 올해에 인민생활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려는 것은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며 “모든 인민소비품 생산단위에서 비약의 폭풍을 세차게 일으켜 10월의 대축전장에 충성의 노력적 선물을 안고 땀땀이 들어서자”고 강조
- 그는 “인민들은 생활이 유족해지고 문화수준이 높아질수록 질 좋은 상품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며 “중앙과 지방의 경공업공장을 만부하(풀가동)로 돌리고 모든 단위에서 생산자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발양시켜 ‘8월 3일 인민 소비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데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덧붙임.
- 이날 시찰에는 광범기 함남도 당 책임비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겸 당 행정부장,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김경희, 홍석형, 태종수 당 부장 등이 동행

● 北김정일, 금야강군민발전소 건설장 현지지도(8/5,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금야강군민발전소 현장을 둘러보고 “이 발전소는 나라의 전기화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면서 조기 완공을 독려한 뒤 기념촬영을 했다고 전함.
- 계획 시설용량 18만kW의 이 발전소 공사는 금야강 상류에 대규모 댐을 쌓아 인공호수를 만든 뒤 여러 개의 계단식 발전소를 세우는 것으로, 상류의 댐은 지난달 말 완공

- 이날 현지도에는 광범기 함경남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 행정부장, 김기남 당 비서, 홍석형·태종수 당 부장, 현철해, 리명수 국방위 국장이 수행

김정일동향

- 8/ 2 김정일, 2.8비날론연합기업소 현지도(8/2, 중통·중방)
 - 광범기(함경남도위 책임비서), 장성택(黨부장), 김기남(黨비서), 김경희·홍석형·태종수(黨부장들)동행
- 8/ 2 김정일, 용성기계연합기업소 선군주물공장과 흥남비료연합기업소 가스 화대상 건설장 현지도(8/3, 중통)
 - 광범기 함경남도 당 책임비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겸 당 행정부장,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김경희, 홍석형, 태종수 당 부장 등이 동행
- 8/ 4 김정일, 함경남도 인민소비품전시회장 참관(8/4, 중통)
 - 광범기(함남도 黨 책임비서),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 김기남(黨 비서), 김경희·홍석형·태종수(黨 부장) 등 동행
- 8/ 4 김정일, 서성구역 하신동 초급당 12세포 당원 등에게 「감사」 전달(8/4, 중방)
- 8/ 4 김정일, 이경희 노인(평양시 보통강구역 보통강1동)에게 100살 「생일상」 전달(8/4, 중통)
- 8/ 5 김정일, 완공단계 금야강군민발전소 건설장 현지도(8/5, 중통·중방)
 - 광범기(咸南道黨 책임비서),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 김기남(黨비서), 홍석형·태종수(黨부장), 현철해·리명수(국방위 국장) 등 동행
- 8/ 7 김정일, 김정일, 희천발전소 건설을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8/7, 중통)

기타 (대내 정치)

- 조선노동당은 수령의 '불패의 전위대오', '강철의 전투대오', '조직사상적 순결체'라며 영도자의 두리에 일심단결이 있는한 주체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8/2, 중통·중방·노동신문)
- 김일성 저작(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 1991.8.1) 발표일 즈음 南에서 "동족대결정책을 끝장내고 남북협력과 접촉을 가로막는 모든 제도적 장치를 제거하는 것은 민족대단결의 기본요구"라고 강조(8/2, 중통·노동신문)
- 北의 선군정치는 "미국과 그 앞잡이들의 북침도발책동을 짓부시고 조선반도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믿음직한 방패"라며 선군정치의 위대성 선전(8/3, 중통·노동신문)
- 김정일 저작(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발표 13돌 즈음 따져작 해설 및 "조국통일3대현장 구현과 6.15·10.4선언 고수 이행" 선동(8/4, 중통)
- '소할바령회의(김일성 조직)' 70돌기념 사회과학부문 연구토론회 진행(8/5, 중통)
 - 최희정(黨부장), 태형철(사회과학원장), 혁명사적, 과학, 교육, 黨간부 양성기관 일꾼들 등 참가

나. 경제

● 北, 라선시에 국제공항 구상(8/5, 요미우리신문)

- 신문은 중국과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대외무역 거점인 라선시에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북한이 평양 외의 첫 국제공항을 라선시에 건설해 러시아와 중국, 몽골과 연결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착공 전망이 어렵다고 전함.
- 북한에는 현재 국제공항이 평양에만 있으며 항공편도 중국의 베이징과 선양을 연결하는 정도임.
- 재정난에 처한 북한이 새로운 국제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중국 등에서 외자를 끌어들이 수 밖에 없어 중국 측에 계획을 타진했지만 중국 측은 탁상공론이라고 일축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함.
- 무역항인 라선시는 올해 1월 평양과 같은 형태의 중앙정부 직할 ‘특별시’로 승격
- 라선시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토지사용권을 획득했고, 몽골도 지난 4월 경제무역에 관한 각서에 서명

● 北조선무역은행 美법원서 패소(8/7, 연합뉴스)

-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이 대만의 한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피소된 사건과 관련해 미 연방 뉴욕법원이 대만 은행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림.
- 리처드 J 설리번 뉴욕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4일(현지시간) 고소인인 대만 메가인터넷서널커머셜뱅크(MICB)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선무역은행에 총 676만8천228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 뉴욕총영사관의 한 관계자는 6일 “북한이 상업계약 분쟁과 관련해 미국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최근 외자 유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북한이 이번 판결로 상환능력, 신뢰도 등 대외신용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사업에 차질을 빚게돼 해외 자금 확보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기타 (대내 경제)

- 흥남가스화대상공사장, 대형산소분리기 공기흡입골돌 건설 선전(8/2, 중방)
- 北 조선우표사, 가요일(애국가, 진달래)을 소개한 새 우표 발행(8/3, 중통)
- 평양 만수대거리에 '평양비단상점' 개업(8/4, 중통)
- 검덕광업연합기업소, 200세대 살림집 건설 완공(8/5, 중방)
- 北, '예성강청년2호발전소' 준공식 진행(8/5, 중통)
 - 최영림(내각총리), 최용해(황해북도 당책/준공사), 허택(전력공업상), 동정호(건설건재공업상), 배달준(국가건설감독상) 참가
- '2.16과학기술상' 수여식,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8/5, 중통)
 - 최태복(黨비서), 이자방(국가과학기술위 위원장), 김용진(교육위 위원장), 장철(국가과학원 원장) 등 참가

다. 사회·문화

● 北TV, 홍콩 액션영화 '엽문'방송(8/1, 조선중앙TV)

- TV는 8시 40분 '외국영화' 코너에서 홍콩 액션영화 '엽문'을 우리말 더빙으로 방송하면서 '중국예술영화 격술가 엽문'이라는 제목과 함께 별다른 설명 없이 중국어 자막과 함께 바로 영화를 상영함.
- 북한 전 지역이 시청권인 중앙TV가 오락물이라고 할 수 있는 홍콩 액션 영화를 방영한 것은 이례적임.

● 北쌀값 폭등세 지속...열흘 새 50%↑ (8/2, 자유아시아방송(RFA))

- 환율 상승과 폭우 피해 등의 악재로 북한의 쌀값이 kg당 1천원을 돌파한 지 열흘 만에 또다시 1천500원까지 폭등
- 방송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지난달 30일 쌀 가격은 함경북도 회령시 장마당에서 kg당 1천300원~1천500원, 무산군에서 1천400원, 청진시에서는 1천500원 이상"이라고 전함.
- 방송은 "식량가격 상승의 첫 번째 원인인 환율이 위안 당 200원에서 300원으로 열흘 새 50%가량 오른데다 폭우 피해까지 겹치면서 쌀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지난달 중순 북한의 중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함경남도 와 평안남도를 잇는 양덕고개의 철로가 끊겨 열차운행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잇따라 지방의 식량 재고 부족이 심해졌다"고 밝힘.

● 北, 南가요 가사 바꿔 ‘찬양가요’로 불리(8/2, 데일리NK)

- 매체는 중국의 관광객에서 입수한 동영상이라면서 평양 모란 전시장 식당에서 지배인으로 일하고 있는 김청희씨가 기타를 연주하며 남쪽 가수 최진희의 노래 ‘사랑의 미로’를 ‘찬양가요’로 개사해 부르는 모습을 공개
- 매체는 이 영상에 대해 “올해 초 중국 관광객에 의해 촬영된 것”이라며 “김 씨는 남한 노래에 가사만 바꿔 김정일에 대한 흠모와 충성을 손님들 앞에서 과시한다”고 설명
- 김씨가 개사해 부른 노래의 제목은 정확치 않은 가운데 노래의 시작 부분인 ‘그토록 다짐을 하건만 사랑을 알 수 없어요/ 사랑으로 눈 먼 가슴은 진실 하나에 울지요’는 “아침이 어디서 오는지 백두에 올라가봤죠/ 하늘 땅을 여는 폭포서 해돋이 보고 알았죠”로 바뀌었음.
- 또 노래의 클라이맥스 부분인 ‘끝도 시작도 없이 아득한 사랑의 미로여’는 ‘우리 장군님 모습 빛나는 해돋는 백두여’로 개사됨.
- 매체는 “(남한 가요의 가사를 바꿔부르는 것은) 북한 내부 곳곳에 파고든 ‘한류’의 실체가 엿보이는 장면”이라며 “실제 평양의 많은 식당에서 ‘남한 노래’가 불리고 있다”고 소개
- 매체는 “남한 관광객, 혹은 해외 동포들을 겨냥한 선택”이라며 “그러나 언제 어느때 닥칠지 모를 ‘검열’에 대비해 노래 가사를 ‘김정일에 대한 흠모’ 내용으로 바꾸어 부른다”고 덧붙임.

● 北집단체조 ‘아리랑’ 공연 개막(8/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집단체조 ‘아리랑’ 공연을 2일 평양 5월 1일경기장에서 개막
- 통신은 “공연은 힘있고 기백 넘친 체조동작과 아름답고 우아한 음악무용, 천변만화하는 배경대와 화려한 전광장치 등으로 황홀한 예술의 신비경을 펼쳐보였다”고 소개
- 이날 개막식에는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과 강능수 내각 부총리, 내각 간부들, 평양 시내 근로자들이 참석해 공연을 관람
- 특히 이번 공연에는 중국군의 6.25전쟁 참전 60주년을 기념해 제5장 ‘친선 아리랑’을 추가하고 강화되고 있는 북·중 친선관계를 상징적으로 담았음.
- 북한은 ‘아리랑’ 공연을 관광객 유치로 통한 외화벌이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고려여행사를 통해 4박 5일 일정으로 ‘아리

랑’ 공연을 보러 단체관광을 가면 왕복 항공료, 호텔숙박비, 각종 입장료 등을 모두 합쳐 1천390유로(한화 약 216만원)가 들며, 공연 관람료는 좌석에 따라 80유로 내지 300유로(한화 12만5천원~46만5천원)를 별도로 부담해야 함.

● 北집단체조 ‘아리랑’에 판다 등장 (8/3, 중국신문사)

- 북한이 지난 2일 평양에서 개막한 집단체조 ‘아리랑’ 공연에 중국에 대한 우호의 제스처로 판다가 등장
- 신문은 일본 교도통신을 인용, 올해 아리랑 공연에는 처음으로 ‘친선아리랑’의 내용이 추가됐다고 보도
- ‘친선아리랑’에선 공연자들이 중국을 상징하는 판다로 분장하거나 중국 전통 민속의상을 입고 나와 작은 북을 치기도 했다고 통신은 전함.
- 또 참가자들은 ‘조·중 우의와 압록강 강물은 영원할 것이다’, ‘조·중 우의는 근원이 오래고 앞으로도 길게 이어질 것이다’ 등의 글자를 카드섹션으로 만들기도 함.
- 북한은 올해 중국군의 6.25전쟁 참전 60주년을 기념해 아리랑 공연에 제5장 ‘친선아리랑’을 추가, 북·중 친선관계를 상징적으로 표현

● 北홍남시 수해로 120여명 사망(8/3, 자유아시아방송(RFA))

- 지난달 중순 북한에 내린 집중폭우의 피해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함경남도 홍남시에서 약 120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큼.
- 방송은 함경북도 청진시의 믿을만한 소식통을 인용, “지난달 22일 내린 폭우로 성천강의 제방이 넘치면서 강 하류지역인 함경남도 홍남시에 살던 주민 2천여 명이 완전 고립됐다”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군의 직승기(헬기)로 구조됐지만 홍남시 하덕리에 농촌지원을 나왔던 고등중학생 40명을 포함한 주민 120여명은 구조되지 못했다”고 전함.
- 소식통은 “구조에 나선 헬기는 공중 구조장비가 없어 착륙을 해야 하는데 이 지역에서는 착륙할 장소를 찾지 못해 구출에 실패했다”고 덧붙임.
- 방송은 또 “지난달 26일부터 나흘간 내린 폭우로 철길이 끊어져 8.15를 앞두고 백두산 현지답사를 떠난 당 관리 60여 명을 태운 특별열차가 량강도 운흥군에 고립된 상태”라고 밝힘.

- 방송은 “북한이 장마철이 되기 전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비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웠지만 구조장비가 부족한데다 산에 나무가 없어 비가 조금만 내려도 산사태가 일어나 피해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 함경남도 신홍군인민위원회 김대혁 사무장은 3일 조선중앙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우리 군이 입은 피해는 3년 전의 수해에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재난”이라면서 “살림집과 상하수도망을 보수하고 대동천 제방 등 중소하천 제방을 다시 쌓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함.

● 北 압록강 범람 위기…신의주 대홍수 우려(8/4, 데일리NK)

- 지난달 중순부터 내린 폭우로 압록강 유역의 댐 수위가 크게 높아져 하류의 신의주 지역에 큰 홍수가 우려됨.
- 매체는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 “압록강 수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수풍댐을 포함해 압록강 상하류의 댐들 대부분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면서 “평안북도 수풍 지역에 7월 한 달 동안 예년의 두 배에 가까운 436mm의 비가 내렸는데 또 한 차례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신의주에서 큰 홍수가 날 수도 있다”고 밝힘.
- 이어 “신의주와 인접한 중국 단둥시의 경우 압록강 하천의 범람을 우려해 강변에 대규모 수방벽을 설치하고 주변 상점들에 위험을 경고하는 통지문을 보냈다”면서 “북한도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범람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며, 오히려 단둥시가 뚝을 높여 신의주 지역의 피해를 키울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 한 신의주 주민은 이 매체와 전화통화에서 “시 인민위원회에서 하천을 정비하고 집 수리를 하라고 독려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비책은 없는 것 같다”고 전함.

● 北, 中관광객에 ‘아리랑’ 관람 강요(8/4, 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최근 개막한 집단체조 ‘아리랑’을 북한관광 필수코스로 정해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관람을 강요하는 것으로 알려짐.
- 북한관광 상품을 다루는 단둥(丹東)의 한 여행사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 당국이 아리랑 관람을 북한관광의 필수코스”에 포함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아리랑을 관람하지 않고는 북한관광에 나설 수 없다”고 말함.

- 단동의 또 다른 여행사도 “북한의 요구에 따라 북한관광 상품에 아리랑 관람을 필수코스로 정했다”며 “다른 관광코스는 선택의 여지가 있지만 아리랑은 반드시 관람해야 한다”고 전함.
- 이 관계자는 “중국인 관광객에만 해당하며 다른 외국인들은 아리랑을 관람하지 않아도 북한관광을 할 수 있다”고 덧붙임.

● 北, 기독교인 3명 처형(8/4, NK지식인연대)

- 매체는 북한 당국이 지난 5월 평안남도 평성시의 한 ‘지하교회’에서 주민 23명을 체포해 주동자 3명을 처형했다고 전함.
- 또한 북한 현지 통신원을 인용, “5월 중순 평성시 구월동의 한 지하교회에서 주민 23명이 보위부에 체포돼 주동자 3명이 처형당하고 나머지 20명은 요덕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다”면서 “처형된 사람들은 중국에서 기독교를 접하고 북한으로 돌아와 가족과 친지들에게 전파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함.
- 이어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신의주에서도 전도 활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 신의주 주민 여러 명이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면서 “생활고로 인해 주민들이 쉽게 미신이나 종교에 빠질 수 있다고 보고 북한 당국은 기독교 사건이 적발되면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한다”고 덧붙임.
- 한편 국제 기독교선교단체 ‘오픈도어즈’에서 북한 선교를 담당하는 폴 에스타브룩스 목사는 작년 12월 미국 RF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가정과 지하교회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기독교 신자수가 40만~50만명에 달한다는 얘기를 북한 내부 소식통으로부터 들었다”고 밝힌 바 있음.

● 北수해복구에 군인, 대학생 대거투입(8/5, 자유아시아방송(RFA))

- 지난달 중순 이후 북한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해 군인과 대학생이 복구 작업에 대거 투입되고 있음.
- 방송은 북한 사정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 “홍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군인과 대학생을 대규모로 동원하고 있다”면서 “군부대들이 주둔지 수해복구에 동원되고 대학생까지 나선 것으로 미뤄 상황이 아주 좋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함.

- 이어 “북한에서는 대학마다 여름방학 기간이 다른데 올해에는 학생들을 동원하기 위해 지난 1일 모든 대학이 일제히 방학에 들어갔다”면서 “피해가 큰 함경남도 함주군, 신흥군의 경우 함흥수리대학과 함흥사범대학 학생들이 피해 복구에 나섰지만 기계 장비가 부족해 삽이나 가래로 토사를 걷어내고 있다”고 말함.

● 北, 수해 관련 외부지원 요청 안해(8/5, 미국의 소리(VOA))

- 지난달 중순 이후 북한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일부 기반시설 파괴 등 피해가 발생했지만 북한 당국은 아직 유엔 등 외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있음.
- 유엔 아동기금(UNICEF)의 제프리 킬리 아시아 사무소 대변인은 4일 “최근 유니세프 관계자가 북한의 홍수 피해 지역을 둘러보고 일부 기반시설이 파괴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북한내에서 활동하는) 다른 유엔기구와 국제 비정부기구들의 의견도 참조했다”고 말함.
- 킬리 대변인은 그러나 “북한 당국이 현재 홍수 대책을 관장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지도 않고 있다”고 덧붙임.
- 방송은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대비해 유니세프가 북한에 전달할 긴급 구호물품 10만명 분을 준비해놓고 있다”고 밝힘.

● 北, 량강도에 탈북자 가족 격리수용(8/5, NK지식인연대)

- 북한 당국이 약 3개월 전부터 탈북자 가족들을 격리시키기 위해 량강도 오지에 수용하고 있음.
- 단체는 현지 통신원을 인용, “현재 량강도 백암군 유평노동자구에 전국 각지에서 추방된 수 십 세대의 탈북자 가족들이 모여있다”며 “이들은 주로 (중국과 맞닿은) 함경북도와 량강도 지역에서 추방된 주민들이고 함경남도와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추방된 주민들도 일부 있다”고 밝힘.
- 또 “이곳에 온 탈북자 가족들은 모두 가족 단위로 오두막 같은 집을 배정받고 열악한 환경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야 한다”며 “일종의 ‘추방촌’인 이곳은 수용소처럼 철조망이나 24시간 감시하는 인원은 없지만 워낙 깊은 산골이라 빠져나가기 힘들고, 설령 빠져나가도 주민 통제가 심한 북한 사회의 특성상 타지에 정착하기 힘들다”고 소개

- 단체 관계자는 “과거 탈북자 가족들은 거주지와 같은 도에서 가장 외진 곳으로 추방되거나 북·중 국경지역의 평안도 산골마을 같은 곳으로 보내 졌지만 이번처럼 따로 수용되기는 처음”이라며 “정치범 수용소의 전 단계로 볼 수 있는 이 추방촌은 지난 5월 호구조사와 함께 탈북자 가족에 대한 ‘집중 검열’ 이후 조성됐다”고 설명

● 北통신 “지난달 폭우로 5천500여 세대 침수”(8/5,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5일 지난달 중순부터 내린 폭우로 북한 전역의 주택과 공장, 기업 소가 큰 피해를 입었고 자강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함.
- 통신은 해당기관이 종합한 자료를 인용, “전국적으로 5천560여세대의 살림집(주택)과 350여동의 공공건물, 생산건물이 파괴 및 침수됐고, 1만4천 850여정보의 농경지가 침수, 매몰되거나 유실됐다”고 밝힘.
- 또 “자강도와 함경남도에서는 각각 673세대, 486세대의 주택이 완전히 파괴돼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함.
- 이번 비로 황해남도와 평안남북도, 함경남도 지역에서만 7천380여정보가 침수됐고, 평안남도와 강원도 등지에서 강과 하천의 둑이 무너지고 도로와 다리가 침수되거나 파괴됐다고 통신은 소개
- 또 “15만kVA변압기 2대와 7만5천kVA변압기 1대 등 전력 설비가 파괴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철로가 쏟아져 내린 흙과 돌로 뒤덮이거나 유실되면서 열차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고 전해 각종 설비 피해도 큰 것으로 보임.

● 北김정숙 고향 회령 ‘마약범죄 도시’ 전략(8/6, 자유아시아방송(RFA))

- 방송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모 김정숙의 고향인 함경북도 회령시가 ‘마약 범죄의 도시’로 변하고 있다고 전함.
- 방송은 자사 통신원과 조선족 여행자의 전언을 인용, “북한 당국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회령시에서는 마약에 취해 살인, 폭행 등을 저지르는 강력범죄가 범죄가 꼬리를 물고 있다”면서 “필로폰이 흔한 이 도시에서는 공동 구입시 비교적 싼 값에 마약을 구할 수 있어 가정주부들끼리 모여 필로폰을 하기도 한다”고 밝힘.
- 북한의 기관들은 외화벌이 등을 위해 직접 마약거래에 나서는 예가 많은

- 데, 함흥에서 제조한 마약을 국경 도시인 회령시를 통해 중국 지린성 등에 내다파는 루트가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달 중순 회령 친척집에 다녀왔다는 조선족 최강림(가명)씨는 RFA에 “한 형제가 보위부원을 살해한 혐의로 처형당하는 장면을 목격했는데, 이들은 사건 당시 마약을 복용해 매우 흥분한 상태였다고 들었다”고 말할.
 - 최씨는 또 지난달 12일 가정주부들이 함께 필로폰을 흡입하다 한 명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사망했고, 열흘 뒤에는 한 남성이 환각 상태에서 29세 여성을 강간하려다 살해한 사건도 발생했다고 전함.
 - 방송은 회령시의 대학생 소식통을 인용, “노동단련대에서도 공공연히 마약을 하는데, 지난달 9일에는 한 노동단련대 수용자가 마약을 복용한 반장에게 맞아 죽는 사건이 터져 단련대 대열지도원이 해임되기도 했다”고 소개
 - 방송은 “언제부턴가 함흥에서 생산되는 필로폰이 당국의 단속으로 유통되지 못하자 순도가 떨어지는 개인 제조 마약이 나돌고 있다”면서 “마약의 성분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 살인, 자살 같은 부작용이 생기는 것 같다”고 덧붙임.

● 北TV ‘신의주 등 압록강유역 3천정보 침수’(8/7, 조선중앙TV)

- TV는 이날 오후 8시 뉴스 시간에 압록강 상류지역과 중국의 동북지방에 폭우가 내려 압록강 하류의 수위가 높아진 결과 “평안북도 안 여러 지역에서 큰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며 “신의주시에서는 이번 큰물로 시의 상단리에 위치한 7, 9호 펌프장이 침수돼 시안의 여러 지역에 대한 음료수 공급이 중단됐다”고 밝힘.
- 방송은 또 “평안북도에서는 이번 큰물에 대처해 위험지역의 주민을 소개하는 한편 제방을 높이고 물이 들어 올 수 있는 구역에 흙마대를 쌓아놓는 등 필요한 모든 대책을 취하고 있다”고 말함.

기타 (대내 사회·문화)

- 「전국 8월3일인민소비품전시회」, 조영철(식료일용공업상) 등 참가下 중앙경공업제품 건본관에 서 개막(8/3, 중통)
- '세계어머니젖먹이기주간'(세계모유수유주간, 매년 8월 첫째 주) 행사, 駐北 유엔아동기금 대표 와 WHO 대표부 성원 등 참가下 咸南 함흥에서 진행(8/4, 중통)

2 대외

가. 일반

● 후진타오, 주중 北대사 신임장 받아(8/1, 연합뉴스)

- 후진타오중국 국가주석이 최병관 신임 주중 북한대사로부터 신임장을 제정 받음.
- 2000년부터 10년간 근무한 최진수 전임 대사의 후임으로 지난 4월 말 부임한 최병관 대사는 부임 3개월여 만에 후 주석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통신은 1일 신임장 제정 소식을 전하면서 후진타오 주석이 “선대 지도자들이 키워 온 양국 우호관계는 국제정세의 변화에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발전돼 왔다”면서 “중국은 양국 당과 인민의 공통된 자산인 양국 우호관계를 ‘전통을 중시하고 미래에 대처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정신’에 따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

● 中외교관 20여명, 금강산 관광(8/5,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는 4일 북한주재 자국 대사관 직원 20여명이 최근 북한 외무성 초청으로 금강산을 관광했다고 밝힘.
- 외교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북한 강원도기행’이라는 제목의 기행문에서 지난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간 강원도를 방문하는 길에 금강산 관광을 했다고 말함.
- 중국 대사관 직원들은 리칭장(李慶江) 참찬(參贊·참사관)의 인솔 아래 황계광중학교, 원산농업종합대학, 송도원국제소년야영장 등을 둘러본후 금강산을 관광하면서 해금강과 구룡연에서 사진도 찍었음.

- 기행문에는 “금강산은 북한 최고의 명산이며, 만물상의 기이한 봉우리와 기암괴석, 해금강의 별유천지, 구룡연의 줄줄 흐르는 계곡물”이라는 북한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니 몸이 세상 밖 무릉도원에 있는 것 같았다고 적혀있음.

기타 (대외 일반)

- “포츠담 선언(1945.7)은 조선의 고유영토인 ‘독도’의 법적 지위를 국제적으로 확인해 주고 있다”며 日本의 역사왜곡과 독도강탈책동 비난(8/2, 중통)
- 김영남·최영림, 마케도니아 국경철 즈음 同國 대통령과 수상에게 각각 축전(8/2, 중통·평방)
- 김영남, 베닌 독립 50돌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8/2, 중통·평방)
- 日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참의원선거(7.11)에서 참패한 것은 “후덴마 미군기지 철수 중단 등 대미 굴종자세 때문”이라며 “민심을 등지고 사대를 일삼는 자들에게 차례질 것이란 시대의 버림과 파멸 뿐”이라고 주장(8/3, 중통·민주조선)
- 北 박의춘 외무상과 인도네시아 외무상 사이 회담, 8/2 인도네시아에서 진행(8/3, 중통)
- 민주공공 초대 대통령 ‘까씨’부부 가족, 7.28 自國 駐在 北대사 통해 김정일에게 선물 전달(8/4, 중통)
- 조선반도 평화보장과 비핵화과정 재개를 위해서는 “北·美 신뢰회복과 평화협정체결이 최우선”이라며 “평화협정체결 제안에 하루빨리 응해 나올 것” 주장(8/5, 평방)
- 박의춘(외무상), 8/4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부대통령과 담화(8/5, 평방)

나. 6자회담(북핵)

● 印尼외상 “北, 6자회담 복귀의향 표명”(8/2, 연합뉴스)

- 박의춘 북한 외무상이 2일 인도네시아를 방문, 마티 나타레가와 인도네시아 외무장관과 회담을 가짐.
- 나타레가와 장관은 이날 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 측으로부터 6자회담에 가까이 복귀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며 “조만간 모든 당사자가 대화, 즉 협상 프로세스에 복귀해야 한다”고 말함.
- 그는 대화에 빨리 복귀하지 않으면 사태가 제어 불가능한 상태로 전개될 위험이 있으며, 결국 원치 않는 상황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대화 재개는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 인도네시아의 견해라고 덧붙임.
- 나타레가와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북한과 다른 국가 간의 협상을 중재하겠다는 제안을 했느냐’는 질문에 인도네시아의 역할은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북한을 설득하고 지원하는 것일 뿐”이라며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6자회담에 도움이 되는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대답

기타 (6자회담(북핵))

- “北을 핵무기로 선제타격하고 압살하려는 것은 미국의 변함없는 속심”이라며 미국의 對北 핵압 살책동에 대처한 핵억제력 보유의 정당성 주장(8/5, 중통·노동신문·중앙)

3 대남

● 北신문 “전자전, 핵전쟁 모두 준비돼 있다”(8/2, 우리민족끼리)

- 매체는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일 “상용무기(재래식무기)에 의한 전면전쟁이든, 전자전이든, 핵전쟁이든 우리(북)는 모든것에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함.
- 매체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조선의 경고’라는 제목의 정론에서 이달 중순 실시될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비롯해 연말까지 예정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 “단순한 ‘억제력 과시’가 아니라 조선반도에서의 전쟁선언이며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새로운 냉전의 포고”라면서 이같이 말함.
- 신문은 “침략자들이 끝내 평화와 통일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원수들이 도발한 부정의의 전쟁에 정의의 통일대전으로 단호히 대답할 것”이라며 “우리 군대의 작전 반경은 한계가 없고 타격지점에는 제한이 없다”고 위협
- 또 “우리에게는 그 어떤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이 있다”며 “정의의 전쟁에서 우리가 잃을 것은 군사분계선이고 얻을 것은 조국통일”이라고 주장

● 북한군 “서해훈련에 물리적 대응타격”(8/3,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북한군 ‘전선서부지구사령부’가 3일 우리 군의 백령도 등 서해 5도 인근의 해상사격 훈련계획에 대해 “강력한 물리적 대응타격으로 진압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함.
- 사령부는 이날 통고문을 통해 “8월에 들어서면서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인근수역에서 지상, 해상, 수중 타격수단들을 동원하여 벌이려는 괴뢰군부호전광들의 해상사격소동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신성한 우리 공화국 영해에 대한 노골적인 군사적 침공행위이며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끝까지 고수해보려는 무모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이같이 위협

- 또 “이번 해상사격소동은 우리의 자위권을 노린 직접적인 군사적 침공행위”라면서 “이미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 바와 같이 조선 서해에는 오직 우리가 설정한 해상분계선만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
- 통고문은 이어 “불은 불로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선택한 불변의 의지이고 확고한 결심”이라고 말함.
- 이와 함께 “우리의 자위적인 대응타격이 예견되는 것과 관련하여 조선서해 5개 섬 인근수역에서 어선들을 포함한 모든 민간 선박들은 역적패당이 설정한 해상사격구역에 들어가지 말 것을 사전에 알린다”고 덧붙임.

● 北, 서해 기동훈련에 재차 ‘타격’ 위협(8/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5일 시작된 한국군의 서해 해상기동훈련을 “계획적인 군사적 도발”이라고 비난하면서 다시 ‘타격’ 위협을 가해옴.
- 통신에 따르면 조평통은 서기국 보도를 통해 “괴뢰 패당은 5일부터 9일까지 전쟁연습 기간 북남 쌍방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서해 5개 섬 인근 수역에서 우리를 타격하기 위한 지상, 해상, 수중 사격훈련을 벌이려고 하고 있다”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역적 패당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괴뢰 호전광들이 불질하면 예상을 초월한 가장 위력한 전법과 타격수단으로 도발자들과 아성을 짓뭉개 놓을 것”이라고 밝힘.
- 또 군사소식통을 인용해 서해기동훈련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의 모든 타격수단들은 지금 이 시각에도 합동해상전쟁연습에 돌아치는 목표들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다”며 “일단 사소한 공격기도라도 보이기만 한다면 즉시 전쟁광신자들과 살인장비들을 모조리 바다 깊이 수장해 버릴 것”이라고 말함.
- 통신은 “이번 전쟁연습들은 철두철미 우리 공화국과 동북아시아지역을 과녁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임.

● 北신문, “‘물리적 대응타격’ 빈말 아니다”(8/7,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 신문은 육·해·공 합동 해상기동훈련 사흘째인 7일 이 훈련에 대해 ‘물리적 대응타격’을 위협한 사실을 재차 거론하며 “우리의 경고는 결코 빈말이 아니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함.
- 북한군 전선서부지구사령부는 지난 3일 통고문을 통해 서해 해상훈련과

- 관련, “강력한 물리적 대응타격으로 진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신문은 이날 ‘용납 못 할 반공화국(반북) 군사적 도발’ 제하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괴뢰 호전광들이 조선 서해에서 벌여 놓은 대잠수함 훈련은 철두철미 북침전쟁도발의 전주곡”이라며 이같이 말함.
 - 신문은 이어 “괴뢰들이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고집하며 그 일대에서 북침전쟁연습소동을 감행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용납 못 할 도전”이라면서 “역적패당은 오직 불로써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결심”이라고 강조

● 北, 금강산호텔 7월 20일부터 운영(8/7, 조선신보)

- 신보는 북한 당국이 지난달 20일부터 내·외국인의 금강산 숙박관광을 위해 금강산호텔과 목란관(식당)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함.
- 신보는 불법 방북한 한상렬 목사의 강원도 원산시와 금강산 방문(8.2~5) 동행 취재를 통해 “앞으로는 금강산호텔에 숙박하면서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금강산호텔에서는 7월 20일부터 숙박하는 손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으며 외국인 관광객과 함께 국내 관광객들도 접수하고 있다”고 전함.
- 신문은 이어 “금강산면회소와 문화회관 등 남측 당국의 시설과 그 외 동결된 시설에는 입구에 각각 ‘몰수’, ‘동결’이라 쓰여진 딱지가 붙어 있고 사람은 드나들지 않고 있다”며 “현재 목란관(식당) 등의 북측 시설도 운영되고 있다”고 밝힘.
- 신문은 북한 국가관광총국 간부의 말을 인용, 지난 4월 8일 ‘조선명승지 종합개발지도국’이 금강산의 남한 당국 자산동결과 인원 추방, 관광사업자 변경 등을 밝힌 이후 “국내는 물론 외국인들의 금강산관광이 시작됐다”며 “그러나 지금까지는 원산에 숙박하면서 당일로 관광했다”고 소개

■ 기타 (대남)

- 강원도 지역에서의 統一部長官의 對北발언(1보 전진후 2보 후퇴는 바람직하지 않다 등)을 “현 파국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반통일적 입장”이라며 “북남관계의 개선보다 악화가 낫고 통일보다 분열이 낫다는 극악한 반통일궤변”이라고 비난(8/2, 중통·노동신문 평방)
- 「외통부」 장관의 對北발언(北 태도변화 없이 출구전략 논의할 수 없다) 관련 “반공화국모략소동

의 총파산으로 궁지에 몰린 대결광의 생떼질”이라며 “남북관계와 조선반도 평화에 백해무익한 매국역적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8/3, 중통·노동신문)

- 6.15실천연대에 대한 대법원의 ‘이적단체 판결’ 관련 “우리(北)의 선군정치와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찬양하고 선전한 이 단체의 이적단체 판결은 범죄행위”라고 선동(8/4, 평방)
- 外通部 長官의 천안함 피격사건 등 對北외교(美日 등 국제공조) 및 발언(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 등) 관련 “反北 제재구결”이라고 비난(8/4, 평방)
- 천안함 사건 관련 ‘안보리’ 의장성명을 상기시키며 “피해당사자로서 그 진상을 끝까지 밝혀내고 대가를 짚짚하게 계산할 것”이라고 주장(8/5, 평방)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08.09-08.15

8월

2주차

1. 대내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사회·문화
2. 대외
3. 대남

1 대내

가. 정치

- **北노동당, 조국통일 해야 강성대국 가능(8/9,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노동당이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먼저 ‘조국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요지의 지시문을 지난달 말 전체 당 간부와 당원에게 시달
 - 방송은 북한 내부사정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 “강성대국 건설과 관련해 북한이 처한 대내외 정세와 대책을 다룬 노동당 중앙위원회 지시문이 지난달 말께 각 도당을 거쳐 전국 시·군당에 내려갔다”면서 “지시문에는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당과 인민의 노력투쟁과 건설사업이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의 도전에 부닥쳐, 조국통일을 하지 않고는 강성대국 건설도, 사회주의 승리도 할 수 없게 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힘.
 - 이 지시문은 또 “미국과 남조선은 강성대국의 암적 존재이자 암초 같은 장애물로, 전당·전민이 총동원돼 조국통일을 앞당겨 수행하는 것이 강성대국 건설의 선결조건”이라면서 ‘강성대국 건설’보다 ‘조국통일’을 먼저 달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지시문은 이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은 장군님(김정일 지칭)의 뒤를 이을 청년대장(김정은)이 구상하고 있다”면서 “전체 당원과 근로자들은 백두에서 시작된 혁명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청년대장을 따라 힘차게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방송은 덧붙임.
 - 이 지시문이 내려간 뒤로 당 지시사항이 전달되는 시·군당의 ‘토요 정세강연’에서는 2012년까지 강성대국을 건설한다는 얘기가 사라지고 ‘미제와 남조선을 쓸어버리지 않고는 강성대국도 없다’는 식의 논리가 주입되고 있다고 방송은 전함.

- **北 ‘주민행정법’ 등 3개 법률 제정(8/9,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최근 ‘주민행정법’, ‘노동보호법’, ‘상업회의소법’ 3개 법률을 제정
 - 통신은 “주민행정법에는 주민행정사업의 직접적 담당자인 도(직할시),

- 시(구역), 군 인민위원회들이 주민행정사업을 바로 하는 데서 지켜야 할 원칙적 문제들이 규제돼 있다”고 전함.
- ‘주민행정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에 대한 식량공급사업과 살림집 보장사업, 먹는 물 보장사업, 교육교양사업, 노동행정사업, 상품공급사업, 보건위생사업 같은 인민생활과 관련한 모든 사업”이라고 설명
 - 주민행정부 제정은 북한 당국이 오는 2012년 ‘강성대국’ 달성을 앞두고 주민생활 향상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이를 체계화해 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보임.
 - 통신은 또 “노동보호법에는 노동안전교양사업과 노동보호 조건의 보장, 노동보호물자의 공급, 노동과 휴식, 노동안전규율의 확립을 비롯하여 국가의 노동보호정책을 관철하는 데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이, 상업회의소법에는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무역추진단체인 상업회의소의 설립과 활동원칙, 임무와 권한 등이 규제되어 있다”고 밝힘.
 - 북한은 지난 2004년 8월 상업회의소(KCC)를 설립했으며, 2008년 7월에는 내각에서 상업회의소 규정을 채택한 바 있음.
 - 통신은 이번 법 제정의 의미에 대해 “인민들에게 보다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과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노동조건을 보장해주며,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킬 수 있게 하는 데서 중요한 조치로 된다”고 덧붙임.
 - 북한은 올해 초 노동정량법, 농장법, 상수도법, 하수도법, 자연보호구법, 수출품원산지법, 선원법, 석탄법 8개 법률을 제정

● **北, 집단탈북 막기 위해 ‘전인민 감시’ 가동(8/11, 열린북한방송)**

- 방송은 량강도 혜산의 소식통을 인용, “전인민적 감시 운동을 벌여 탈북자의 도강(渡江)을 막으라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침이 지난 7일 각시, 군에 하달됐다”면서 “이번 조치는 한번에 4~5명씩 움직이는 가족 단위 탈북이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 방송은 또 “보위부가 각 인민반, 공장, 기업소에 지도원을 보내 이 방침에 대해 교육하고 있으며, 아울러 주거지를 옮기려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와 주민들 사이의 감시체제가 강화됐다”면서 “보위부는 가족 일부가 탈북한 세대에서 가족 단위 탈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특히 행방불명

자가 있는 가정을 철저히 감시토록 하고 있다”고 덧붙임.

-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일 위원장이 탈북을 막기 위해 전인민이 감시에 나서도록 지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방송은 덧붙임.

● **北, 평양서 징용피해자 등 증언 집회(8/11, 교도통신)**

- 북한이 일제강점기 징용피해자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이 참석하는 ‘증언 집회’를 열고 일본 정부에 조기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 명의의 서한을 채택
- 통신에 따르면 이날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집회에선 징용피해자 남성과 일본군위안부 출신 여성, 여성 원폭피해자와 유족 등 4명이 1시간 가량 식민지 시대 생활상을 증언했고, 이미 숨진 일본군위안부 출신 여성 11명의 증언을 담은 녹화 영상도 상영
- 평양 시민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관계자, 일본 조선대학교 학생 방문단, 일본 시민단체 간부 등 200명이 증언 모습을 지켜봄.
- 도야마(富山)현의 군수공장에 끌려가 중노동을 했다는 전용복(全龍福.82)씨는 “식민지 시대에 받은 고통도 크지만, 일본이 전후 65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사죄의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데 대해 더 큰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고, 히로시마(廣島)에서 피폭됐다는 이계선(李桂先.68)씨는 “국교가 없다는 이유로 재외 피폭자 지원에서도 제외됐다”고 한탄
- 이들은 또 피해자와 유족 일동 이름으로 “일본 정부는 65년간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피할 뿐만 아니라 일본군위안부 등에 대한 가해행위를 정당화하고 미화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과거 청산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요구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채택
- 통신은 북한이 일본 정부에 과거 청산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는 것은 6년 만이라며, 이날 집회에서 2002년 북일 평양선언이나 최근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의 한국 강제병합 100년 담화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고 전함.

● **北인민보안부는 국방위 산하(8/13, 교도통신)**

- 통신은 북한의 경찰 조직인 인민보안부가 국방위원회 산하 조직이라는 사실이 중국 발표문을 통해 확인됐다고 전함.

- 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 홍보사이트인 중국정부망(www.gov.cn)은 12일 중국 공안부 대표단이 지난 8일 방북해 ‘경찰 물자 기증서’에 서명했다는 내용의 발표문을 게재하면서 북측 초청 주체를 ‘국방위원회 인민보안부’라고 표기
- 북한 인민보안성이 인민보안부로 명칭이 바뀌었다는 사실은 올 4월 북한 방송을 통해 알려졌다.

● **北박봉주 전 총리 복권(8/15, 마이니치신문)**

- 신문은 3년 전 총리에서 해임돼 지방 기업 지배인으로 좌천됐던 박봉주(71) 전 북한 총리 등 장성택(64) 국방위 부위원장의 측근 20여명이 복권됐다고 평양 중추에 밝힌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
- 신문에 따르면 2007년 기업에 시급제(時給制)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가 비판을 받아 좌천된 박 전 총리는 최근 장씨의 부인이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생인 김경희(64)가 부장으로 있는 노동당 경공업부 2인자의 자리에 오름.
- 신문은 “장씨가 2003년계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에서 실각했을 때 함께 좌천된 측근 약 20명이 최근 1, 2년 사이에 모두 복권됐다”며 “그 수를 300명이라고 하는 간부도 있다”는 한 관계자의 말도 전함.

● **北김일성대 명예교수 윤기정 사망(8/15,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1980년부터 약 20년간 북한의 재정을 총괄한 김일성종합대학 명예교수 윤기정(여)이 사망했다고 밝히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이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인 김일성종합대학 명예교수 윤기정이 급성심장기능부전으로 13일 81세를 일기로 서거했다”고 보도
- 1980년 4월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정무원 재정부장에 발탁된 윤기정은 이후 18년간 김일성 주석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으며 국가재정을 집행, 이어 1999년 6월에는 경제간부양성기관인 인민경제대학 총장에 임명됐다. 1년 뒤 물러나 2000년 7월엔 김일성종합대학의 첫 명예교수가 됨.

김정일동향

- 8/11 김정일, 대계도간석지건설에 기여한 일꾼들과 건설자들 41명에게 표창(8/11, 중방)
- 8/14 김정일, '윤기정'(당 중앙위 후보위원) 영전에 화환 전달(8/16, 중통)
- 8/15 김정일, 8.15광복 65돌 즈음 러시아 대통령에게 축전 발송(8/15, 중방)

기타 (대내 정치)

- 황해제철연합기업소·함흥모방직공장 등, 8/8~9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전투적으로 일하며 생활하기 위한” 종업원 궤기모임진행(8/10, 중방)
- 쑥섬혁명사적지관리소 창립 20돌 기념 보고회 현지에서 진행(8/10, 중방)
- 대계도간석지 건설자 3천명에게 표창식, 8/10 양형섭(최고인민회의 상임총 부위원장/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전달)·최종건(平北道 인민위원장)·김국영(平北道黨 비서) 등 참가下 진행(8/11, 중방)
- 평양교예단 종업원들, 8/10 안동춘(문화상) 등 참가下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궤기모임 개최(8/11, 중방)

나. 경제

기타 (대내 경제)

- 제13차 전국 보건부문 과학기술성과전시회, 8/2~9 3대혁명전시관에서 2,500여건의 의학과학기술성과자료를 출품·전시된 가운데 진행(8/9, 중통)
- 2.8비날론연합기업소, 현대적인 건설 및 연조공정 새로 완공(8/9, 중통)
- 北 '국가우표발행국', 조국해방 65돌 기념 소형전지 1정 및 묶음전지 1정 등 기념우표 창작(8/11, 중방)
-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 건설에 투입된 군인건설자들의 하루 계획 200% 이상 달성, 낙랑-역포지구 공사장의 청년동맹 일꾼-건설자들의 살림집 골조공사 60% 수행 등 자랑(8/11, 중통)
- 김일성화김정일화연구센터, 김정일화를 오랫동안 피울 수 있게 하는 선도보존제 '청화' 개발(8/12, 중통)
- 신의주선박공장 일꾼-노동자들, 7월말 현재 연간계획 116% 초과 수행(8/12, 노동신문·중방)

다. 사회·문화

● 北수해지역에 설사병 확산(8/9, 자유아시아방송(RFA))

- 방송은 국제적십자사(IFRC)의 첫 북한 수해현장 보고서를 인용, “최근 함경남도 신흥시의 수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대표적 수인성 질병인 설사병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노약자와 여성을 비롯한 많은 주민들

- 이 불면증 등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충격 상태에 빠져 있다”고 말함.
- 또 “신흥시 지역에는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태에서 지난달 22일 다시 30분 가량 폭우가 쏟아져 마을 전체가 50cm 정도 물에 잠겼다”면서 “최소한 리 단위 진료소 4곳이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임.
 - 국제적십자사 측은 RFA에 “부상자들은 많지만 아직 중상자나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응급약을 처방받은 환자 가운데 일부는 회복되고 있다”면서 “다리 파손 등으로 차량 통행이 불편해져 자전거를 이용해 수해 지역에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있으나 아직 상당수 주민들에게 구호품이 전달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힘.

● **짬통더위에 北 맥줏집도 북적(8/10, 조선신보)**

- 평양 보통강 구역의 ‘경흥관 대동강생맥주집(경흥관 맥주집)’이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시민들로 북적거리고 있음.
- 신문에 따르면 거리가 먼 곳에서 찾아올 정도로 ‘특별한 존재’인 경흥관 맥주집에는 무더위를 생맥주로 식히려는 손님이 매일 3천 500명~4천명 씩 찾아오고 있음.
- 신문은 “경흥관 맥주집이 이처럼 붐비는 것은 1987년 개관 이래 처음”이라면서 “낮에는 주로 노인들과 가정주부가 오고, 저녁에는 퇴근길의 노동자, 사무원들이 많다”고 전함.

● **유니세프, 상반기 대북지원 모금 ‘제로’(8/11, 자유아시아방송(RFA))**

- 방송은 “지난 2월 유니세프가 작년보다 23% 줄어든 미화 1천만 달러를 올해 예산으로 책정하고 국제사회에 지원을 호소했지만 전혀 자금을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이에 따라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CERF)에서 지원받은 123만 달러로 겨우 대북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힘.
- 유니세프는 당초 △보건 200만 달러 △식수·환경위생 300만 달러 △교육 100만 달러 등으로 예산을 배정했으나 CERF 지원금으로 보건사업만 일부 실행하고 있다고 방송은 덧붙임.
- 유니세프의 패트릭 매코믹 대변인은 RFA에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도움이 급감하면서 식량지원조차 어려워져 5세 미만 어린이와 임산부의 영양 상태가 매우 나빠졌다”면서 “식수사업에도 차질이 생겨 북한 어린

이의 설사병이 크게 증가했고, 영아 사망률도 높아졌다”고 말함.

- 그는 또 “국제사회의 지원이 따라주지 않으면 대북사업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면서 “예산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하반기 사업도 보건과 영양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
- 이밖에 유엔이 금년 하반기 대북 구호기금을 작년 동기보다 45% 줄여 500만 달러로 책정하고,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대북 식량안보사업을 취소하는 등 여러 국제기구의 대북사업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北, 황남도 월당리서 청동기시대 집터 발굴(8/10, 조선신보)**

- 북한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가 황해남도 신원군 월당리에서 ‘팽이그릇 시기’(청동기 시대)의 집자리 유적을 발굴
- 신문에 따르면 장수산성의 외성 남문에서 동쪽으로 15km 떨어진 월당리 평지대에 자리잡은 이 집자리는 동북-서남 방향으로 놓인 장방형이며 길이 520~556cm, 너비 264~296cm에 면적은 약 16.28㎡임.
- 신문은 “집자리 움 깊이가 30~35cm이고 움벽은 곧고 온전하게 남아 있으며 진흙을 고루 퍼 다진 바닥에서 여러 가지 석기와 질그릇들이 나왔다”면서 “월당리 유적의 집자리와 유물들은 팽이그릇 시기의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힘.

● **中접경지 제외 북한 전역서 휴대전화 개통(8/11, 자유아시아방송(RFA))**

- 이달 들어 신의주 등 중국 접경 도시를 제외한 북한 전역에 휴대전화 서비스가 개통
- 방송은 복수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 “이달 1일부터 청진, 함흥, 강계, 사리원을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휴대전화를 쓸 수 있게 됐다”면서 “신의주, 만포, 혜산 등 국경 도시들에도 휴대전화 기지국은 설치됐지만 서비스 개통은 보류됐다”고 말함.
- 신의주의 한 소식통은 “지난 6월 국가안전보위부가 불법 휴대전화 단속의 어려움을 이유로 ‘국경 인접 지역의 휴대전화 개통을 보류해 달라’고 국방위원회에 제안했다”며 “보위부의 제지로 앞으로도 국경도시에서는 이동전화 사용이 힘들 것”이라고 RFA에 설명
- 방송은 “체신국(우체국)들에 휴대전화 판매소가 개설됐지만 구경하러 오

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면서 “이동료가 집 전화의 3배나 돼 휴대전화는 아직 과시용이나 비상통신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

● **北, 어린이·임산부 보건 급격 악화(8/12,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5세 이하 어린이와 임산부의 건강 상태가 식수 부족, 의료시설 낙후 등으로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
- 방송에 따르면 유니세프는 최근 발표한 ‘2010 인도주의활동 중간점검 보고서’에서 “북한 현장을 답사한 결과 5세 이하 어린이와 임산부들의 중증 영양실조가 급증할 것이라는 징후가 뚜렷했다”면서 “북한의 열악한 상하수도 설비와 낙후된 의료시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린이 설사병과 아동 사망이 급속히 늘어날 것”이라고 밝힘.
- 유니세프는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2만 5천명에게 안전한 식수를 제공할 수 있는 상수도 2개를 북한에 설치하는 한편 5세 이하 중증 영양실조 어린이 7천명에게는 영양강화 우유와 즉석 영양보충제를, 임산부 20만명에게는 미량영양소 보조제를 각각 지원

● **北, 휴대전화가입자 6월말 18만명 돌파(8/13, 미국의 소리(VOA))**

- 북한 내 휴대전화 가입자수가 서비스 지역 확대에 힘입어 올 상반기 말로 18만명선을 넘어섬.
- 방송은 북한에서 휴대전화 사업을 하는 이집트 ‘오라스콤 텔레콤’의 올 상반기 실적보고서를 인용, “6월 말 현재 북한 내 휴대전화 가입자수가 18만 4천 531명에 달했다”면서 “이는 작년 동기(4만 7천 863명)의 4배로 늘어난 것”이라고 말함.
- 오라스콤은 북한 체신성과 75대 25 비율로 투자한 합작회사 ‘고려링크’를 통해 2008년 12월부터 북한에서 휴대전화 사업을 하고 있음.
-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는 특히 올 2, 4분기에만 5만 9천명 늘어나 분기 단위 최대 증가를 기록
- 6월말 현재 가입자들의 휴대전화 사용시간은 월평균 327분으로 작년 동기(199분)보다 65%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고려링크의 매출은 작년 상반기 미화 1천200만달러에서 올 상반기 2천319만9천달러로 86%, 세전 영업이익은 280만달러에서 1천 869만 7천달러로 567% 증가

- 보고서는 “1년 전만 해도 평양에서만 쓸 수 있었던 휴대전화 서비스 지역이 12개 주요 도시와 22곳의 고속도로 및 철도 구간으로 확대됐는데 이는 북한 전역의 60%에 해당한다”면서 “고위 관리나 부유층, 외국인뿐 아니라 중간 계층이나 10대, 20대의 휴대전화 구입이 급속히 늘어 주요 7개 도시에서 판매대리점 10곳과 영업소 13곳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

● **평양과기대 내달 정식개교(8/12, 연합신문)**

- 평양과기대 개교를 준비해온 연변과학기술대학의 한 관계자는 “평양과기대가 개교에 필요한 모든 절차와 수속을 이미 완료했다”며 “다음 달 초 개교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관계자는 이어 “북한 전역에서 선발된 고교 졸업생 100여 명이 신학기부터 학부 과정을 밟게 될 것”이라며 “점차 학생 수를 늘려갈 것”이라고 말함.
- 그는 “정식 개교에 앞서 이미 지난 6월 김일성종합대학 등 명문대 졸업생 60여 명을 선발, 정보통신공학부와 농생명식품공학부, 산업경영학부 등 3개 학과의 박사과정을 개설, 운영 중”이라고 덧붙임.
- 그는 “평양과기대는 학부와 대학원을 함께 운영하지만 원칙적으로 우수한 학부 졸업생을 선발, 고급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는 대학원 대학을 지향하고 있다”며 “점차 보건의료학부와 건설공학부 등으로 학과를 늘리고 학생 수도 400~500명으로 증원할 것”이라고 설명
- 평양과기대는 동북야교육문화협력재단과 북한 교육성이 설립에 합의, 지난 2002년 착공식을 한 뒤 2003년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7년 만인 지난해 9월 완공했으며 이 대학 설립을 주도해온 김진경 연변과기대 총장과 북한 측 인사가 공동 총장으로 내정됨.

● **北중학생도 마약...‘복용자 총살’ 포고(8/13, 열린북한방송)**

- 방송은 최근 북한에서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자 종전의 마약 제조 및 판매자뿐 아니라 앞으로는 마약 복용자도 총살형에 처한다는 포고문이 나왔다고 전함.
- 2007년 개정된 북한 형법에는 ‘극히 무거운 형태의’ 마약밀수나 밀매 행위에 대해 사형과 함께 재산몰수형을 내리도록 규정돼 있으나 북한 당국이 마약복용자까지 총살한다고 발표한 것은 처음

- 이 방송은 함경북도 소식통을 인용, “지난 9일 함경북도 회령에서 ‘앞으로 마약을 하다 적발되는 사람은 총살형에 처해진다’는 내용의 인민보안부 포고문이 발표됐고 다른 지역에도 같은 포고문이 배포됐다고 한다”면서 “최근 들어 북한에서는 어른뿐 아니라 중학생들까지 공공연히 마약을 할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힘.
- 이어 “북한에서는 아편이나 대마초를 마약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포고문의 단속 대상은 필로폰”이라면서 “주민들 사이에 ‘얼음’ 또는 ‘빙두’로 불리는 필로폰은 함경남도 함흥에서 주로 생산된다”고 덧붙임.
- 방송은 또 다른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 “북한 보건성의 내부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2월 말 현재 필로폰을 1회 이상 사용했거나 현재 사용 중인 주민이 약 2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고 말함.

● **평양서 5세기 고구려 벽화고분 발굴(8/14, 교도통신)**

- 통신은 북한 평양의 락랑구역 동산동에서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구려 벽화 고분이 발굴됐다고 전함.
- 통신은 현장에 학자와 취재진을 보내 북한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측과 함께 발굴을 진행했다면서 이번 발굴이 고대 동아시아의 문화와 풍습, 일본 등과 문화교류 양상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함.

● **北, 체제선전에 트위터도 활용(8/15, 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최근 트위터 계정을 개설하고 체제선전에 나섬.
-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12일부터 트위터에 ‘uriminzok’(우리민족)이라는 닉네임으로 계정을 만들고, 자체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인터넷 주소(URL)와 함께 ▲전체 조선민족에게 고함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대답 ▲론평 가련한 창녀신세 ▲조국통일3대현장 등 9개의 글을 게시
- 그러나 이 웹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정보(사이트)’로 분류돼있어 국내에서는 접속해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
- 이 계정은 이름을 ‘uriminzokkiri’로, 위치는 ‘PYONGYANG’으로 기재했으며 15일 현재 팔로잉이나 팔로워는 없음.

기타 (대내 사회·문화)

- 날씨(06시 보도), 8월 9일 21~24시 사이 수풍에 56mm 폭우 및 오후와 밤에 평양에 비 소식 예보(8/10, 중방)
- 北 적십자회, 큰물피해를 입은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구호활동 활발히 진행中(8/10, 중통)
- 대동강외교단회관 수영장 문성모(외교단사업국 국장/개관사) 참가下 개관식 진행(8/10, 중통)
- 北 옥류관 창립(1960/8/13) 50주년 즈음 “6,800만 명에 달하는 각계층 인민들이 찾아 사회주의 혜택을 향유하고 하루봉사능력이 20배로 장성하였다”고 보도(8/10, 중방)
- “평양시 능라도에 위치한 반월도 수영장이 매일 초만원을 이루고 있다”고 선전(8/10, 중통)
- 조선4.26아동영화촬영소, 《빨간별》 제7부 ‘낮잠시간’·《길을 잃었던 꾀장이》 등 “어린이들 교육 교양에 도움을 주는 아동영화들” 제작(8/12, 중통)

2 대외

가. 일반

- 北, 美모니터요원에 한달만에 비자 내줌(8/9,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당국이 한 달 가까이 비자발급을 거부해온 미국 민간단체 모니터요원에게 최근 비자를 내줌.
 - 임명을 요구한 이 단체 대표는 RFA에 “북한이 갑자기 비자를 내줘 곧 평양에 갈 수 있게 됐다”면서 “북한 측은 지원 물품의 정확한 분배를 약속했고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에도 동의했다”고 말함.
 - 대표는 이어 “수년간 북한에 지원해왔지만 북한 관계자들은 정확한 분배를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아 이번에도 분배가 제대로 될지 확신할 수 없다”면서 “정확한 분배가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 지원을 중단하거나 연기하겠다”고 덧붙임.
 - 방송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본부를 둔 이 단체는 수년째 북한에 식량과 의약품을 보내고 있는데 전에도 북한 측이 지원물품을 임의로 분배해 갈등을 빚은 적이 있다”고 전함.
- 북한인, 中서 마약범죄로 무기징역(8/9, 제로TV)
 - 북한인 1명이 중국에서 마약을 밀수해 판매한 혐의로 검거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음.

- 방송은 산둥성 웨이하이(威海)시 중급인민법원이 최근 중국인 3명과 함께 마약범죄 혐의로 기소된 북한인 방모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보도
- 방씨와 중국인 타이(泰)모, 추이(崔)모, 명(孟)모씨 등 4명은 2009년 3월부터 7월까지 북한으로부터 들여온 마약 521g을 지린(吉林)성 창바이(長白)자치현에서 구매해 웨이하이로 들여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음.
- 이들 중 3명은 지난해 7월 13일 웨이하이 세관에서 히로뽕 300g을 몸속에 숨긴 채 들어오다 현장에서 체포됨.
- 법원은 방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 재산을 몰수한 뒤 강제추방했으며 타이씨에게도 유기징역을 선고하였으며, 추이씨와 명씨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형을 선고

● 中, 北에 경찰장비 지원 서명식(8/12, 중국정부망)

- 중국 정부가 북·중 변경지역 범죄단속을 위해 북한에 경찰용 장비를 지원
- 사이트는公安부의 류징(劉京)公安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북한 국방위원회 인민보안부의 초청으로 지난 8일 방북했으며 양측간 회담에서 ‘경찰물자 기증서’에 서명했다고 전함.
- 중국公安부의 이번 방북은 지난 6월 4일 새벽 북·중간 접경인 압록강에서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 주민들이 불법적인 무역거래를 하다가 북한 국경수비대의 총격으로 3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한 사건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짐.
- 사이트는 그러나 중국 정부가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구체적인 경찰 장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음.
- 양국의 공안당국간 회담에서 류 부부장은 “중국과 북한은 산과 강으로 접한 우방으로, 양국간 우의는 오랜 전통으로 배양돼 왔고 최근 북중 정상간의 노력으로 협력관계가 발전하고 있다”며 “공안부와 인민보안부간의 교류와 협력도 진일보시켜 양국의 국경범죄 척결에 공동 노력하자”고 발언
- 북한 측에서는 주상성 인민보안부장이 회담에 참석했다고 정부망은 전함.
- 압록강 총격사건 발생 후 중국 정부는 외교부와 랴오닝성을 통해 중앙

과 지방정부의 강력한 항의를 북한에 전달해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압박

- 그와 관련해 북한은 조사결과 ‘우발적인’ 충격이었다고 설명하면서 그로 인한 사망자들과 유가족에 슬픔과 애도를 랴오닝성 정부에 전하고 책임자들에 대한 엄벌과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

● 北, ‘日총리 담화에 실망’(8/13, 교도통신)

- 통신은 13일 평양발로 북한에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의 한국강제병합 100년 담화에 대해 실망감을 표시했다고 전함.
- 북한의 송일호(宋日昊.56)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 담당 대사는 이날 평양에서 교도통신과 인터뷰를 하고 “간 총리의 담화에는 사죄해야할 내용이 포함돼있지 않아 모든 조선 인민에게 실망감을 안겼다.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냄.
- 송 대사는 특히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 담화는 우리 나라(북한)를 포함해 일본의 침략을 받은 아시아 모든 국가에 대한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남조선(한국)만 대상으로 삼았다”며 “무라야마 담화보다 후퇴한 내용”이라고 혹평함.
- 그는 “이번 담화는 (내외 정책에서) 모순에 빠진 이명박 정권에 힘을 빌려주기 위한 목적에서 낸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며 “일본은 (식민지 지배를) 성실하게 반성하고, 하루라도 빨리 과거 청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

● 北, 폴란드 은행 통해 불법자금 송금(8/14, 자유아시아방송(RFA))

- 방송은 북한이 폴란드 은행의 계좌를 이용해 불법활동으로 벌어들인 외화를 본국으로 송금하고 있다고 전함.
- 폴란드에서 북한을 연구하는 니컬러스 레비씨는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폴란드의 ‘Kredyt’은행 계좌를 통해 폴란드 파견 노동자 수입과 함께 주류판매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벌어들인 외화 수입을 북한으로 보내고 있다”면서 “북한 대사관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산 술을 폴란드에 팔아 돈을 마련하며, 이 불법 활동 거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함.

- 이 은행이 속한 KBC그룹의 이사벨라 트오질로 대변인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Kredyt’은행은 지난 1990년 창립 이후 북한과 어떠한 경제 교류도 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국제적인 기준과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과 거래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함.

기타 (대외 일반)

- 김영남, 싱가포르국경절 45돌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8/9, 중통)
- 김영남, 파키스탄의 홍수피해 관련 同國 대통령에게 위문전문 발송(8/9, 중통)
- 중국 공안대표단(단장: '류경' 상무부부장), 8/8 평양 도착(8/9, 중통)
- 중국 청년친선 대표단(단장: '주장규' 공산주의청년단 중앙총 서기) 평양 도착(8/9, 중통)
- 김영남, 8/9 차드 독립 50돌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8/10, 중통)
- 양형섭(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 訪北 중·조 우호방문단과 담화(8/11, 중통)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최영림(내각 총리), 중국 감숙성 주곡현 산사태와 폭우피해 관련 '호금도' 주석과 '온가보' 국무원 총리에게 위문 전문(8/11, 중통)
- 김영남, 러시아의 산불피해 관련 '메드베제브'대통령에게 위문전문(8/11, 중통)
- 리영호 北 총참모장, 중국 공안대표단(단장: '류경' 中공안부 상무부부장)과 담화(8/12, 중방·중통)
- 北·中 청년 친선연합모임, 청년중앙회관에서 北 김철혁 비서 등 청년동맹 일꾼들과 中 청년친선 대표단 등 참가자 진행(8/12, 중통·중방)

3 대남

● 北해안포 10여발 남측 수역에 떨어져(8/10, 연합뉴스)

- 북한은 지난 9일 117발의 해안포를 사격했으며 이 중 10여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우리측 관할수역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
- 합동참모본부의 고위 관계자는 10일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어제 백령도 북방 해상으로 10여발의 해안포를 발사했으며 모두 NLL 남쪽으로 1~2 km 지점에 탄착되어 세 차례 경고 통신을 했다”고 밝힘.
- 이 관계자는 “북한은 어제 오후 5시 30분부터 33분 사이 해안포를 발사한 이후 추가 사격을 하지 않았다”면서 “우리 측이 세 차례 경고통신을 한 뒤 추가 도발이 없어 대응사격을 자제했다”고 설명
- 정부의 한 소식통은 “NLL 이남 500여m의 연평도 해상에도 1발이 떨어진 것으로 레이더 관측 결과 확인된 것으로 안다”고 전하였으며, 이에 합참

관계자는 “연평도 쪽은 영상감시장비로 확인한 결과 해안포가 NLL을 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측의 해상 합동훈련에 대한 대응조치 일환으로 판단한다”고 말함.

- 또 그는 “어제 오후 8시 25분과 8시 37분께 북한 연안지역에서 포성이 들렸으며 일부 조명탄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북한은 NLL 쪽으로 모두 110여발의 해안포를 발사했다”고 말함.
- 그러나 정부 소식통은 “군당국이 초병의 육안 관측과 레이더 탐지를 통해 백령도 인근으로 13발을, 연평도 쪽으로는 104발 등 모두 117발을 사격한 것으로 안다”면서 “전날 오후 8시가 넘어서는 북측 지역에서 10여발의 포성을 청취했다”고 전함.
- 북한이 해안포를 NLL 남쪽으로 발사한 데 대한 대응조치와 관련, “경고통신 이후 추가도발이 없어 대응사격을 자제했다”며 “작전예규와 교전수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대응했다”고 함참은 강조

● 北 “진짜 전쟁맛 보여줄 것”…포사격 이어 또 위협(8/10,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9일 끝난 우리 군의 서해 기동훈련을 비난하면서 “필요한 임의의 시각에 핵억제력에 기초한 우리 식의 보복성전으로 진짜 전쟁맛을 똑똑히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고 통신이 전함.
- 노동신문의 이같은 반응은 9일 오후 우리 군의 서해 기동훈련이 끝난 직후 북한군이 서해 NLL(북방한계선) 부근 해상에 해안포 117발을 퍼부은 이후 처음 나온 것
- 통신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개인필명 논설에서 “(최근의) 사태는 조선 서해상의 대규모 전쟁연습 소동이 방어적 훈련이 아니라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기 위한 군사적 침공행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같이 위협
- 신문은 또 “남조선 당국이 천안호 사건에 따른 ‘군사적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사상 최대의 합동 해상 전쟁연습을 벌인 것 자체가 우리에게 대한 노골적인 군사적 위협이며 도발”이라면서 “전쟁 위협이 떠도는 조선반도에서 절실하고 긴박하게 나서는 문제는 평화적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

-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지난달 24일에도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해 ‘핵 억제력에 기초한 우리 식의 보복성전’을 벌이겠다고 위협
- **北적십자 ‘한상렬 목사 15일 귀환’ 통보(8/11, 조선중앙통신)**
 - 불법 방북해 2개월간 북한에 머문 한상렬 목사가 광복절인 오는 15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할 것이라고 북한 적십자회가 남한의 대한적십자사에 통보한 것으로 통신이 밝힘.
 - 통신이 전한 통지문은 “평양에 체류하고 있는 남조선의 통일인사 한상렬 목사의 요구에 따라 15일 판문점을 통해 그가 남측 지역으로 돌아가게 된다”면서 “남조선 적십자사가 해당 기관에 통지해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목사의 무사 귀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함.
 - 북한 적십자회의 장재언 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통지문은 한적의 유종하 총재 앞으로 보내졌다고 통신은 덧붙임.
- **北조평통, 한국 이란제재 동참 움직임 비난(8/12, 조선중앙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한국정부의 이란제재 동참 움직임을 비난
 - 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문답을 통해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대북·대이란 제재조정관이 방한, 남측에 대이란 제재에 동참할 것을 요청한 사실을 거론하며 “괴뢰들은 대이란 제재 가담을 정식 결정하고 그 실행에 착수했다”면서 “이것은 괴뢰패당의 친미사대적, 반민족적 정체를 다시금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
 - 조평통은 이어 “한미동맹’은 침략적인 ‘세계제패’ 전략실현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역적패당의 친미사대적 추태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함.
- **北대남기구 ‘2012년, 조국통일 대문 여는 해로’(8/13,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중앙위원회가 13일 ‘전체 조선민족에게 고함’이라는 글을 발표, “2012년을 조국통일의 대문을 여는 역사적인 해로 빛내이자”고 촉구했다고 전함.
 - 조국전선은 8.15 광복 65주년에 즈음해 발표한 이 글에서 “통일의 시계바늘은 분열과 대결의 원시점으로 되돌려졌다”면서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하고 평화를 지키며 조국통일의 세기적 숙원을 실현하기 위한 거족적인 애국성전에 총궐기할 때가 왔다”며 이같이 주장

- 조국전선은 “거족적인 애국성전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귀중히 여기고 지키려는 통일애국세력과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하는 외세와 그에 아부 굴종하는 친미사대세력과의 치열한 대결전”이라고 말함.
- 이어 천안함 사건 등을 거론하며 “조선반도에서의 전쟁위험은 마지막계선을 넘어섰다”면서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미국과 괴뢰 호전광들의 대결과 전쟁책동을 결정적으로 저지 파탄시키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
- 또 “온 겨레는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여 민족해방의 8.15를 통일해방의 8.15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의 역사적 교훈과 오늘 조성된 사태는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가리키는 길뿐”이라고 주장

● 北, 한상렬 목사 20일로 귀환 연기 통보(8/14,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북한 조선적십자회가 14일 정부의 승인 없이 방북한 한상렬 목사가 오는 20일 오후 3시 판문점을 통해 귀환할 것이라고 대한적십자사측에 통보했다고 전함.
- 장재언 조선적십자회 위원장은 이날 유종하 한적 총재에게 보낸 통지문에서 “평양에 체류하고 있는 남조선의 통일인사 한상렬 목사가 판문점을 통해 20일 오후 3시에 돌아가게 됐다”고 밝힘.

● 北, UFG연습에 또 ‘무자비한 군사대응’ 위협(8/15, 조선중앙통신)

- 통신에 따르면 북한의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16일 시작되는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대해 대변인 담화를 내고 “우리 공화국을 노린 무모한 전쟁연습 소동이 극한계선에 이른 이 시각 우리 군대와 인민은 무자비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힘.
- 이어 “을지훈련을 비롯한 전쟁연습 소동은 본격적인 군사적 침공을 노린 실제적 행동단계”라면서 “우리가 단행할 군사적 대응은 이 세상 그 누구도 꺾어보지 못한 가장 호된 징벌”이라고 덧붙임.

- 한·미 양국의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16일부터 2주간 실시되는 올해 UFG연습에는 한국군 5만6천여명과 미군 3만여명이 참가하며, 우리 정부가 별도 진행할 을지연습에도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4천여개 기관에서 40만명이 참여할 예정

기타 (대남)

- 「외통부」 장관의 對北발언(北이 좋으면 가서 살라 등)을 비난하며 각계층 인민들에게 “사대매국 행위와 동족대결에 날뛰는 대결광신자들을 권력의 자리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선동(8/10, 중방)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08.16-08.22

8월

3주차

1. 대내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2. 대외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1 대내

가. 정치

- 北, 김정은 배지·초상화 대량 제작(8/16, 열린북한방송)
 -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내정된 셋째 아들 김정은의 배지와 초상화를 대량 제작해 놓고 있음.
 - 방송은 북한 고위급 소식통을 인용, “북한 만수대창작사 1호 창작실이 지난 4월 말 상부의 지시를 받아 김정은 초상취장(배지)과 초상화를 대량 제작했다”면서 “이르면 내달 당대표자회에서 일부 고위 간부들에게 김정은 배지를 선물로 나눠줄 수 있다”고 말함.
 - 만수대창작사는 북한의 최고 창작단체로 작가, 종업원 등 구성원이 3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 방송은 또 “김정일 초상화는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식화된 1980년대 초반부터 공식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김정일 배지의 경우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부터 공식 허용됐지만 일부 간부들만 달았고, 일반 주민들은 현재도 김일성 배지를 주로 단다”고 덧붙임.

- 北김정일 ‘산울림’ 공연관람(8/18,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3일만에 공개활동에 나서,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경희극 ‘산울림’ 공연을 관람
 - 김 위원장은 ‘산울림’에 대해 “시대의 명작”이라고 찬양하면서 “창작가, 예술인들이 대중의 정신력을 충 발동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경희극 ‘산울림’과 같은 명작들을 더 많이 창조하여 강성대국 건설대전에 펼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무한한 힘과 용기를 안겨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연 관람에는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 행정부장, 김기남 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국방위원회 국장들인 현철해·리명수와 광범기 함경남도 당 책임비서 등이 동행
 - 김 위원장은 국립연극단이 재창작한 ‘산울림’을 4월 27일 처음으로 관람

한 후 중국 방문(5/3~7) 직후인 9일에 이어 이번에 세번째로 관람

● 北, 김정일 지시 회령시 개발사업 2년째 지지부진(8/18, 자유아시아방송 (RFA))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모 김정숙의 고향인 함경북도 회령에 ‘음식점 거리’를 조성하라고 지시했으나 자금난으로 2년째 지지부진한 상태
- 방송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이 사업 얘기를 처음 꺼낸 것은 작년 2월 24일 김정숙의 고향 회령을 생애 처음 방문했을 때였음.
- 방송은 회령시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김 위원장은 직접 철근과 시멘트 공급 대책을 세워주고, 음식점들의 내·외장재 구입 자금으로 미화 80만 달러를 회령시 당 책임비서한테 내려보낼 정도로 관심을 보였다”고 말함.
- 북한 조선중앙TV는 작년 8월 이 사업을 소개하면서 “전문식당 7곳이 회령 음식점거리에 새로 들어서고 오산덕온반집 등 9개 식당이 새로 개건(리모델링)될 예정”이라고 전하기도 했음.
- 김 위원장의 특별지시로 비상이 걸린 회령시는 지난해 북한 당국이 전국적으로 벌인 ‘150일 전투’(대중노력동원, 4/20~9/16) 기간 사업을 완료한다는 목표 아래 인민반 부녀자들까지 동원해 공사에 매달렸으나 목표 시점까지 절반도 진척시키지 못함.
- 함경북도 당국은 이와 별도로 회령에 새로 들어설 음식점 경영권을 완전히 넘겨주는 조건으로 중국인 투자자를 끌어들이려 했으나 이 또한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전해짐.
- 회령시 소식통은 “인구 13만에 볼거리도 없는 변경도시에 음식점거리를 조성하고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은 중국인들의 비웃음만 샀다”면서 “완전 개방된 라진-선봉에도 투자를 꺼리는 중국인이 회령시에 투자를 하겠느냐”고 반문
- 회령시는 할 수 없이 완공 목표시점을 올해 8월 15로 1년 가까이 늦췄고, 급기야 올 4월에는 인민군의 군수물자 조달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8총국’(군수동원총국) 산하 1개 여단이 ‘음식점거리’ 공사에 긴급 투입됐으나 자금난 때문에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함.
- 다른 회령시 소식통은 RFA에 “김 위원장이 보태준 80만 달러로는 턱없

이 부족해 회령 인근에서 많이 나는 몰리브덴 원석과 옥돌 가공품까지 중국쪽에 내다 팔았지만 자금난을 풀지 못했다”면서 “자금부족으로 자재가 제때 조달되지 않다 보니 지금도 내·외장 공사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함.

● **北김정일 함흥 서호초대소서 2주간 정밀검진(8/20, 열린북한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달 2~14일 함경남도 함흥의 서호초대소로 프랑스 의료진을 불러 뇌혈관과 중추신경 계통의 정밀검사를 받았다고 방송은 전함.
- 이 방송은 북한의 고위급 소식통을 인용, “프랑스 의사 두 명이 김 위원장을 정밀 진단하기 위해 함경남도 함흥에 있는 서호초대소를 방문했다”면서 “이들 의사는 2008년 8월 김 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도 치료를 맡았으며, 이번엔 호위사령부 의료진과 함께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와 뇌혈관계, 중추신경계 검사를 했다”고 밝힘.
- 이어 “이번 검진은 김 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진지 만 2년이 되는 시점에 이뤄졌다”면서 “폭염과 호우가 교차하는 날씨에 김 위원장의 건강을 우려한 호위사령부 특별의료진의 요구가 있었다고 한다”고 덧붙임.
- 고위급 소식통은 “일반적으로 김 위원장은 여름휴가를 량강도 삼지연초대소에서 보낸다”면서 “하지만 올해엔 건강검진의 목적이 있어 삼지연과 기후가 비슷하고 프랑스 의료진이 이동하기도 편리한 서호초대소를 택한 것”이라고 설명

● **北박봉주 전 총리, 黨 제 1부부장으로 복권(8/21, 조선중앙방송)**

- 방송은 이날 ‘평양냉면’으로 유명한 북한의 최고 식당인 옥류관 창립 50주년 기념보고회가 20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된 사실을 전하면서 “박봉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고병섭 인민봉사총국 총국장, 관계부문 일꾼들이 참가했다”고 보도
- 앞서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지난 15일 복수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 “박봉주 전 총리 등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측근 20여명이 최근 1, 2년 사이에 복권됐다”면서 “2007년 기업에 시급제(時給制)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가 비판을 받아 좌천된 박 전 총리는 최근 장씨의 부인이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생인 김경희가 부장으로 있는 노동당 경공업부 2인자의 자리에 올랐다”고 전한 바 있음.

김정일동향

- 8/17 김정일, 홍정주(평남 숙천군·조정숙(강원도 문천시) 할머니에게 100돌 생일상 전달(8/17, 중통)
- 8/18 김정일, 경희극 '산울림' 관람(함흥대극장) 및 黨 名義 「감사」 전달(8/18, 중통)
 - 장성택(국방총 부위원장), 김기남(黨비서), 김경희(黨부장), 현철해·리명수(국방총 국장들), 곽범기(咸南道黨 책임비서) 등 동행

기타 (대내 정치)

- 김정일의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2.8직동청년탄광 현지지도 기념보고회, 8/16 안국태(평남 인민위원장) 등 참가하 현지에서 진행(8/17, 중통)
- 김일성 저작(은 민족이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자) 발표(1990/8/18) 20돌 기념 평양시보고회, 양형섭(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기념보고) 등 참가하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진행(8/17, 중통)
 - 김영대(조선사회민주당 위원장), 유미영(천도교 청우당 위원장), 강연학(조국전선 의장), 안경호(조평통 서기국 국장) 등 참가
- 訪北 한상렬목사, 귀환을 앞두고 인민문화궁전에서 기자회견(8/18, 중통·평방)
- 김정일의 선군혁명영도업적에 관한 중앙연구토론회, 김기남(黨비서) 등 참가하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8/19, 중방·중통)
 - 이병환(軍 장령), 성자립(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겸 고등교육상), 차용명(김일성고급당학교장), 태형철(사회과학원장), 유영식(내각부총리) 토론
- 訪北 한상렬 목사, 김영남과 담화(8/19, 중통)
 - 안경호(6.15실천 북측위원장), 강영섭(조선그리스도교연맹 중앙위원장) 배석

나. 경제

● 北, 상하이엑스포서 각국 정상 등장 우표 판매(8/17, 산케이신문)

- 북한이 상하이엑스포에서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전 총리가 방북했을 때 발행한 기념우표를 팔고 있음.
- 신문에 따르면 이중 '고이즈미 우표'는 고이즈미 전 총리가 2002년 9월에 방북했을 때 발행한 것으로 상하이에서는 5종 한 세트를 중국 돈 80위안(약 1만3천900원)에 팔고 있음.

- 새 우표뿐만 아니라 이미 사용된 우표도 팔고 있으며, 이 우표는 중국의 후진타오(胡錦濤) 국가 주석이나 덩샤오핑(鄧小平) 전 중앙 군사위원회 주석,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전 대통령, 김 전 대통령 등이 방북했을 때 발행한 것들로 한 세트 가격은 ‘고이즈미 우표’와 마찬가지로 100원이다.
- 북한 판매원으로 보이는 한 남성은 “(우표가) 하루에 수백장씩 팔린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함.

기타 (대내 경제)

- 제11차 전국 발명 및 새 기술 전람회, 전하철(내각 부총리)·이자방(국가과학기술위원장)·김용진(교육총장)·장철(국가과학원장) 등 참가 3대혁명전시관에서 개막(8/16, 중통)
- 자강도·평북·咸南 등 각지 축산부문의 상반기 계획, 고기생산 118%, 알생산 139% 및 강계영예군 인피복공장의 7/29 현재 연간경제계획 101% 달성(8/16, 중방)
- 용성기계연합기업소(咸南) 선군주철공장과 선군압축기직장 준공식, 광범기(咸南道黨 책임비서/준공사) 등 참석 下 김정일 「감사」 전달 등 진행(8/17, 중방)
 - 김정일은 지난 8/3 용성기계연합기업소 선군주물공장 건설장 등을 현지지도 한바 있음.
 - 김영남, 김라희, 전하철, 강능수, 박수길, 조병주, 한광복, 내각 부총리들, 관계부문 일꾼 등 참석
- 덕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산하 제남탄광, 2단계 벨트 콘베어 공사 완공 및 2개의 새 갱(坑) 조업(8/17, 중방)
- 北 국가우표발행국, 김정일의 黨사업(선군영도) 시작 50돌 즈음 기념우표(소형전지 1종, 묶음전지 1종, 개별우표 1종) 발행(8/18, 중방)
- 최근 의학과학 중앙연구소 실장 리일훈의 간암·위암 등의 암 재발과 전이 예방용 “효능높은 암약썬” 개발 선전(8/19, 중통)

다. 군사

● 北, 주력전차 ‘폭풍호’ 첫 공개(8/17, 연합신문)

- 북한이 최근 옛 소련제 T-62 전차를 개량해 생산한 ‘폭풍호’ 전차를 처음으로 공개함.
- 정보당국의 한 관계자는 17일 “북한이 최근 조선중앙TV를 통해 폭풍호로 알려진 신형 전차를 공개해 분석 중”이라며 “화면상에 나타난 기동 모습으로 미뤄 일단 기존 ‘천마호’ 전차보다 화력과 기동성, 생존성 등이 향상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힘.

● **北미그21 전투기, 中랴오닝서 추락(8/18, 연합뉴스)**

- 북한 국적의 미그-21 전투기가 17일 오후 중국 랴오닝(遼寧)성 푸순(撫順)현 라구(拉古)항에서 추락했다고 복수의 대북 소식통들이 밝힘.
- 익명을 요구한 한 이 소식통은 “17일 오후 푸순 상공을 날던 북한 군용기 한대가 사고로 추락했다”며 “사고 비행기에는 조종사 한 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나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밝힘.
- 중국의 군사정보 사이트 ‘시루망(西陸網)’도 “17일 오후 4시쯤 북한 전투기 1대가 랴오닝(遼寧)성 푸순(撫順)현 라구(拉古)항 인근에 추락했다”면서 “추락한 전투기는 ‘미그(MIG)-21’로 보인다”고 전하며, 인터넷상에 현장에서 누리꾼이 찍은 사고현장과 추락한 비행기 사진 2장도 공개
- 사진에 등장하는 이 비행기 꼬리 부분에 북한 국적을 나타내는 푸른색과 붉은색 원 안에 별이 박힌 로고가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음.
- 군의 한 소식통은 “중국에서 추락한 북한 군용기는 전날 신의주 공군기지 에서 이륙한 것이 레이더에 포착됐다”면서 “중앙방공통제소(MCRC)의 레이더 화면에 미그-21기로 식별된 것으로 안다”고 밝힘.
- 소식통은 “추락 현장의 사진에 나타난 동체의 주날개 모양이 삼각형인 것으로 미뤄 미그-21 전투기로 보인다”고 말함.
- 베이징의 한 군사소식통은 “통상 비행기가 추락하면 연료에 불이 붙어 화재가 나지만 이 전투기의 형체가 온전했던 것으로 미뤄 연료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함.

● **추락 北전투기, 생존자 없다(8/19, 연합뉴스)**

- 지난 17일 오후 중국 랴오닝(遼寧)성 푸순(撫順)현 라구(拉古)항에서 추락한 북한 국적 미그(MIG)-21 전투기는 조종사 한 명만 탑승하는 단좌(單座)식 전투기로, 추락 당시 조종사 한 명만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짐.
- 또 숨진 조종사가 계급장을 달지 않아 중국 당국이 그의 직위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짐.
- 중국의 정보 소식통들은 19일 “추락한 북한 전투기는 조종사 한 명만 탑승하는 단좌식으로, 두 명이 탑승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밝히며, “전투기가 추락하면서 조종사는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생존자는 없다”고 추가 탑승 가능성을 일축

- 익명을 요구한 중국의 정보 소식통은 “인터넷에 공개된 추락 전투기 사진만으로는 단좌식인지 복좌(複座)식인지 구별이 안 되지만 중국 당국이 현장 조사를 통해 이 전투기가 단좌식인 것을 확인했다”며 “생존자가 따로 있을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잘라 말함.

● 北, 中서 전투기 추락 사실 인정(8/19, 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19일 랴오닝(遼寧)성 푸순(撫順)현 라구(拉古)에서 추락한 북한 전투기에 대해 완곡하게나마 존재를 인정함.
- 익명을 요구한 북한의 한 당국자는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중국과 전투기 잔해 처리나 사고 수습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잘 되지 않겠느냐”고 밝혀 사실상 북한 국적 전투기가 중국에서 추락한 사실을 확인
- 그는 “(선양 북한)총영사관에서 어제 오후 사고 현장을 방문해 둘러봤다”고 전하며, 지난 18일 선양의 북한총영사관 관계자가 사고 현장을 방문, 중국측과 사고 수습 방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함.
- 그는 그러나 사고 현장을 방문한 인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언급을 피했으며, 19일 새벽 반출된 추락 전투기의 행방에 대해서도 역시 “아는 바 없다”고 말함.

라. 사회문화

● 개점 50주년 맞은 평양냉면 ‘원조’ 옥류관(8/17, 조선중앙통신)

- ‘평양냉면’으로 유명한 북한의 대표적 음식점 ‘옥류관’이 개점 50주년을 맞았음.
- 통신은 최근 ‘창립 50돐을 맞은 평양의 자랑 옥류관’이라는 기사에서 “1960년 8월 13일 풍치 수려한 대동강변에 솟아난 조선식 합각지붕의 옥류관은 민족의 향취가 짙은 인민봉사의 대전당으로 명성을 떨쳐왔다”면서 “민족음식들을 제일 잘 만드는 식당으로 이름난 이 곳에서는 천하별맛의 명요리들이 평양냉면과 함께 인민들의 기쁨을 더해주고 있다”고 소개
- 통신에 따르면 옥류관의 이같은 명성은 그동안 찾은 연인원 6천 880만명의 누적 고객 숫자에서 확인할 수 있음.

- 통신은 “현재 대동강변에 짓고 있는 부속 ‘요리전문식당’이 완공되면 옥류관의 민족음식과 희귀 요리 메뉴가 더 다양해질 것”이라고 전함.

● **北, 美 NGO에 “도와달라” vs 유엔기구 도움 ‘외면’(8/19, 자유아시아방송(RFA); 미국의 소리(VOA))**

-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북한 당국이 유엔 기구들이 내미는 도움의 손길은 외면하면서 미국의 민간 구호단체에는 무슨 물품이든 보내달라며 신속한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 방송은 유엔아동기금(UNICEF) 아시아사무소의 제프리 킬리 대변인을 인용, “세계보건기구(WHO) 등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엔 기구들은 북한 당국이 요청하면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이재민들에게 나눠줄 긴급 구호품을 북한 내 여러 곳에 비축해 놔다”면서 “한시라도 구호품을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북한 당국에 전했는데도 아직 지원 요청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힘.
- 유엔아동기금의 경우 홍수 피해 현장을 조사해 의료시설과 가옥 등의 파손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긴급 구호품 10만명분을 준비해놓은 것으로 전해짐.
- 이런 북한 당국의 태도와 달리 북한의 ‘조미민간교류협회’라는 단체는 최근 ‘글로벌 리소스 서비스’ 같은 미국의 민간 구호단체들에, 수재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물품이면 무엇이든 좋다면서 신속한 지원을 요청했다고 VOA 방송이 18일 전함.

● **北, 페이스북도 선전에 활용(8/20, 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에도 계정을 개설하고 체제선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됨.
- 현재 ‘우리민족끼리’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페이스북 계정(www.facebook.com/uriminzokkiri)에는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100건 정도가 링크되어 있음.

● **北통신 ‘신의주 홍수피해…5천여명 구조’(8/22,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21일 0시부터 9시 사이에 수풍호 주변지역에 내린 300mm 이상의

강한 폭우와 중국 지역에서 무더기 비로 인해 압록강물이 넘쳐나 신의주시 상당리와 하단리, 다지리, 의주군 서호리와 어적리 등의 살림집과 공공건물, 농경지가 100% 침수됐다”고 밝힘.

- 통신은 “19~20일사이 중국 동북지방에 폭우가 쏟아져 압록강의 수위가 갑자기 높아지기 시작해 강물은 잠깐 사이에 제방을 넘어 신의주시내에 까지 밀려들어 도로 운행이 마비되고 많은 대상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미처 손쓸 사이없이 들이닥친 큰물로 기본 피해지역인 신의주시 상당리, 하단리, 다지리, 의주군 서호리와 어적도, 막사도는 완전히 물에 잠겨 단층건물들은 지붕만 보이게 되었다”고 밝힘.
- 통신은 “피해지역 주민들은 건물 지붕과 둔덕들에 올라 모든 것을 집어 삼키며 사납게 광란하는 큰물을 바라보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으며 해당 지역에서 긴급 구출대책이 세워졌지만 피해상황이 엄청난 것으로 하여 이렇다 할 결과가 없었다”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런 사실을 보고받고 북한군을 구조활동에 나서도록 ‘명령’했다고 말함.
- 이어 “지금 이 지역에서는 신의주시를 비롯한 평안북도의 일꾼과 근로자, 조선인민군 군인들이 동원돼 구조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임.

기타 (대내 사회·문화)

-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8/2, 5월1일경기장) 성황리에 진행中(8/16, 중통)
- 北인민무력부, 김정일의 선군혁명영도 개시 50돌(1960/8/25) 즈음 駐北 무관단을 위해 영화감상회 개최(8/18, 중통·중방)
- 北건축설계작품전시회, 8/13~18까지 함흥에서 진행(8/18, 중통)
- 黃南 봉천군 신담협동농장, 金父子 형상 모자이크벽화 건립(8/18, 중방)
- 조선노동당출판사, 당창건 65돌 즈음 회상실기집 ‘인민들속에서 90’ 출판(8/19, 중방)

2 대외

가. 일반

● 北-中, 추락한 北전투기 처리 협의(8/18, 교도통신)

- 중국 동북부 랴오닝(遼寧)성에서 추락한 북한 전투기 처리 문제를 두고 북한과 중국이 기체 회수 등 대응책을 협의하기 시작
- 통신에 따르면 중국 선양(瀋陽)에 있는 북한 총영사관 차량이 18일 저녁 랴오닝성 푸순(撫順) 사고 현장에 도착했고, 중국 외교부의 차관보급 간부는 선양으로 향했음.
- 최병관 주중 북한 대사도 중국 외무성을 방문해 기체 회수 등 대응책을 협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 北, 조너선 통해 “美와 평화협정 우선”강조(8/19, 연합뉴스)

- 북한은 한국계 어린이 환경운동가가 제안한 판문점 어린이 평화숲 조성 과 관련,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이 선결조건이라고 강조
- ‘고 그린맨(Go Greenman)’으로 유명한 한국계 미국 학생 조너선 리(13, 한국명 이승민)는 19일 일주일간의 방북 기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판문점 어린이 평화숲’ 조성을 제안하는 내용의 편지를 전달
- 부모와 함께 방북했던 리군은 이날 고려항공편으로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 도착한 후 베이징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아리랑축전위원회를 통해 김정일 위원장에게 편지가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함.
- 리군은 이 위원회 등 북한 고위층 관계자들과 만나 편지와 함께 환경보호를 주제로 한 자신의 책 ‘고 그린맨의 모험’도 함께 북측에 전달
- 북한 측은 리군 가족들에게 “아이디어는 찬성하지만 미국이 먼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그럴 경우 비무장지대(DMZ) 전체를 평화의 숲으로 바꿀 의향도 있다”고 말함.
- 북한 측은 김 위원장에게 직접 편지를 전달하고 싶어하는 리군 가족들에게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입장은 보이지 않은 채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는 얘기를 반복했지만 결국 김 위원장과 리군의 면담은 성사되지 못함.

● 北, 동유럽국에 채무 탕감 요청 잇따라(8/19, 파이낸셜 타임스(FT))

- 경제난이 심각한 북한이 동구권 국가들에 진 빚을 갚지 못해 탕감과 현물 상환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동구권 국가들의 발언이 잇따르고 있음.
- 신문은 ‘헝가리, 북한의 채무 탕감 요청 공개(Hungary reveals North Korean debt request)’라는 제목의 오스트리아 빈 발 기사에서 헝가리 경제 부처의 발표를 인용해 “북한이 채무 90% 이상을 탕감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
- 신문은 “북한 협상팀이 2008년 11월 평양에서 열린 협상에서 경제난을 감안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채무 탕감을 처음 내놓았다”고 전함.
- 이에 대해 헝가리 정부는 일부를 탕감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상환받기로 북한과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힘.
- 북한의 헝가리 채무는 2천960만 루블이며, 대부분 ‘철의 장막’이 무너지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헝가리 정부 관리는 설명하며, “세부적인 탕감 규모 등은 추후 확정해야 할 사안인데 언제 협상이 재개될지는 밝힐 수 없으며 인삼(人蔘)으로 갚는 방안은 그동안의 협상에서 거론된 바 없다”고 전함.
- 앞서 북한은 체코에도 1천만 달러에 이르는 채무의 95% 이상을 탕감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나머지 5%는 인삼으로 상환할 것을 제안했다고 체코 재무차관이 밝힌 바 있음.
- 신문은 “북한은 빈사상태의 국내 경제와 핵프로그램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무역제재로 인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함.
- 신문은 지난 3월 천안함 침몰 사태 이후 미국 정부는 북한의 국제 금융거래와 돈세탁, 마약밀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고 전하면서 “북한의 현재 대외 채무는 120억 달러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3분의 2는 전 공산주의 국가들에 집중돼 있다”고 덧붙임.

● 北, 간 총리 담화엔 ‘강도적 본성’ 담겨(8/2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한일병합 100주년을 맞아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지난 11일 발표한 담화에 대해 ‘강도적 본성’, ‘용납못할 죄악’ 같은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비난함.

- 통신은 ‘한일합병은 일본이 감행한 전대미문의 국가테러’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고발장’을 실어 “우리나라에 대한 국권 강탈을 인정하지 않고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으려는 강도적 본성이 (담화에) 담겨 있다”면서 “이는 1995년 8월 무라야마 담화나 2005년 고이즈미 담화보다도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
- 이 고발장은 “지난 시기의 담화들에도 개인적 입장 표명이란 문제가 있었지만 사죄 대상은 ‘아시아 여러 나라의 사람들’로 표명했는데 현 집권자의 담화는 남조선만 대상으로 정했다”면서 “이러한 처사는 명백히 우리 공화국과 인민에 대한 또 하나의 용납 못할 죄악”이라고 강변함.

● 北, 日정부…모든 피해자에 사죄, 배상해야(8/2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올해로 100주년을 맞은 한일 병합의 부당함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과거 일본 군국주의 정권의 모든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정부가 무조건 사죄하고 배상할 것을 요구
- 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지난 10일 발표한 담화에서 남한에만 ‘사과’한 점을 지적한 뒤 “현 일본 정권이 과거 군국주의 정권과 인연이 없고 그 부활을 꿈꾸지 않는다면 군국주의 정권의 모든 피해자들에게 조건부와 차별이 없이 사죄하고 과거를 반성했어야 마땅할 것”이라고 밝힘.
- 이어 “일본은 죄악에 찬 과거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사죄하고 배상할 의무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면서 과거 범죄에 대한 시급한 사죄와 배상, 대북 적대정책 철회, 군국주의 부활 중단 등을 촉구함.

기타 (대외 일반)

- 양형섭, 中 청년친선대표단(‘주장규’ 中 공산주의청년단 중앙위 서기)과 담화(8/16, 중통)
- 노두철 내각 부총리, 訪北 라오스정부 상임 부수상과 담화 및 연회 개최(8/16, 중통)
 - 北 박길연·리명산(외무성·무역성 부상) 등 배석
- 駐北 인도네시아 대사, 北 박의춘(외무상)·박근광(黨 부부장)·박길연(외무성 부상)·리명산(무역성 부상)·전영진(대외문화연락처 부위원장) 등 초대下 自國 독립 65돌 즈음 연회 개최(8/17, 중통)
- 김영남·박의춘, 인도네시아 독립 65돌 즈음 同國 대통령과 외무상에게 각각 축전 발송(8/17, 중통)
- 김영남, 가봉 독립 50돌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도 축전(8/17, 중통)
- 콩고, 8/11 독립 50돌 즈음 北 협조로 ‘독립탑’ 제막식 진행(8/19, 중통)
- 이명철 콩고 駐在 北 대사, 8/11 駐在國 대통령 면담(8/19, 중방)

- 김영남, 訪北 라오스 정부 상임부수상과 담화(8/19, 중통)
- 박의춘 외무상, 駐北 독일 新任대사 '게르하르트 티데만'과 담화(8/19, 중통)
- 北·쿠바 외교관계 설정 50돌 경축집회, 김용진(교육위원회 위원장)·김형준(외무성 부상)·문재철 (대외문화연락처 부위원장) 및 駐北 쿠바 대사 등 참석下 대동강외교단회관 진행(8/19, 중통)
- '서세평' 리히텐슈타인 駐在 北 대사, 8/11 同國 왕세자와 담화(8/20, 중통)

나. 6자회담(북핵)

● 北, 中우다웨이 방북 확인...“완전한 견해일치”(8/20,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간 평양을 방문하고 6자회담 재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북·중간 '견해일치'에 도달했다고 전함.
- 통신은 “우다웨이 중국정부 조선반도문제 특별대표와 일행이 16일부터 18일까지 조선을 방문했다”며 “방문 기간 김영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과 박의춘 외무상을 의례방문했고 관계부문 일꾼들과 회담했다”면서 이같이 밝힘.
- 통신은 “담화와 회담들에서는 지역정세와 조·중 친선관계, 6자회담 재개와 전조선반도 비핵화 실현 등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깊이 있게 토의했다”며 “쌍방은 토의된 문제들에 완전한 견해일치를 보았다”고 강조
- 북한이 우 특별대표의 방북기간 한반도 현안에 대한 논의와 '견해일치'를 강조함에 따라, 양국간에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경색된 현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의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음.
- 앞서 19일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에서 우다웨이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북한을 방문, 북측 관계자들과 한반도 안정과 평화 유지를 위한 방안과 북핵 6자회담 재개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힘.

● 北, 中 제안 6자회담 재개방안에 동의(8/21, 마이니치신문)

- 신문은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의 방북 당시 북한이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비공식 회담을 우선하는 방안에 동의했다고 보도
- 신문에 따르면 우다웨이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는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 재개방법과 관련, 미국과 북한간 협의와 각국 수석대표에 의한 비공식 협의를 우선하는 방안에 북한이 동의했다고 말함.

3 대남

● 北, “통일세 제안은 불순한 체제대결 선언” 비난(8/17, 조선중앙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8.15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통일세’ 구상에 대해 “전면적인 체제대결 선언”이라고 비난
- 조평통 대변인은 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역도(이 대통령 지칭)가 떠벌린 통일세란, 어리석은 망상인 ‘북 급변사태’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서 “불순하기 짝이 없는 통일세 망발의 대가를 단단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함.
- 조평통 대변인의 이같은 언급은 이 대통령의 통일세 논의 제안에 대해 이틀만에 처음 공식 반응을 보인 것
- 이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내놓은 ‘평화→경제→민족’ 공동체로의 3단계 통일방안에 대해 “매일 북침 전쟁연습을 벌이면서 ‘평화공동체’를 부르짖고, 북남 협력사업을 질식시켜 놓고 ‘경제공동체’를 운운하며, 북남 공동선언들을 전면 부정하고 통일을 가로막으면서 ‘민족공동체’를 떠드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라고 주장
- 대변인은 이어 “그 누구의 핵포기를 북남 관계와 통일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미국과 함께 북침야망을 실현해 보려는 수작”이라면서 “괴뢰 패당이 끝까지 대결의 길로 나간다면 우리도 단호히 맞받아 나갈 것”이라고 위협

- 北, “절대 무사하지 못해”…사흘째 UFG 위협(8/17, 조선중앙통신)
 - 노동신문이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과 관련, 개인 필명 논설을 실어 “조선반도 평화를 파괴하고 긴장상태를 격화시켜 제2의 조선전쟁을 일으키려는 범죄적 흥계의 발로”라면서 “전쟁도발을 계속하면 절대로 무사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통신이 전함.
 - 노동신문은 또 다른 개인 필명 논평에서 “미제가 방대한 무력을 동원해 우리의 자주권을 엄중히 위협하는데 우리 군대와 인민이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면서 “전쟁 도발자들에게 진짜 우리 식의 전쟁맛을 보여주려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단호한 결심이고 의지”라고 주장
 -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도 이날 개인필명 논평에서 “북침 전쟁을 도발하면 지금까지 다져온 멸적의 의지로 침략자들을 깡그리 소탕하고 조국 통일 위업을 성취할 것”이라며 위협에 가세

- 北, 또 UFG 위협…이번엔 “불벼락 안길 것”(8/1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연나흘째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비난하면서 거친 위협 발언을 쏟아냄.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을 통해 “동해와 서해에서 전쟁 연습을 벌인데 이어 남조선 전역에서 다시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는 것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군사적 도발”이라고 비난
 - 이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대화에도 전쟁에도 준비돼 있으며 모든 자위수단과 방법을 갖추고 있다”면서 “미국과 남조선 당국은 긴장 격화에도 임계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정세폭발의 책임에서 벗어날 생각을 말아야 한다”고 주장
 - 북한의 대외 성명 단체인 ‘조선평화옹호 전국민족위원회’도 이날 대변인 ‘담화’를 내고 “(이번 연습은) 북침 작전계획에 따라 최신 전쟁장비와 병력이 대규모로 동원되고 실탄과 실동이 결합된 핵시험 전쟁”이라면서 “예측할 수 없는 임의의 시각과 장소에 원수들의 아성에 무서운 불벼락을 안길 것”이라고 위협

● 北통신, “南 선박 단속”…대승호 나포 확인(8/19,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지난 8일 10시 15분경 우리 동해 경제수역을 침범해 어로작업을 하던 남조선 선박이 정상적인 해상 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조선인민군 해군에 의해 단속돼, 현재 조사 중에 있다”고 밝힘.
- 이어 “초보적으로 조사한 데 의하면 배에는 남조선 사람 4명, 중국 사람 3명이 타고 있었으며 우리의 경제수역을 침범했다는 것이 그들의 진술에 의해 밝혀졌다”고 주장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08.23-08.31

8월

4주차

1. 대내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2. 대외

3. 대남

1 대내

가. 정치

- **北, 당대표자회 앞두고 연일 ‘전쟁분위기’ 조성(8/24,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내달 초순 당 대표자회를 앞두고 식량난과 수해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연일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음.
 - 방송은 중국 창바이(長白)현 백산시의 소식통을 인용, “요즘 북한에서는 당장 전쟁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정신 차릴 틈 없이 사람들을 들볶는다”면서 “길거리와 공장, 기업소 등의 구호판을 새롭게 고쳐 달고 있는데 대부분 미국과 남한을 비난하는 내용”이라고 말함.
 - 함경북도 회령시 소식통은 이 방송에 “‘8.15’(광복절 지칭) 이후 공장이나 기업소별로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로 생활하기 위한 종업원 총회’가 열리고 있는데 정세 긴장을 이유로 이처럼 조직별 종업원 총회가 열리는 것은 처음”이라면서 “주민들에게는 강연회 등을 통해 천안함 사건이 ‘도끼사건’(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이후 미제가 일으킨 가장 큰 도발이라고 강조하면서 도끼사건 당시 일촉즉발의 분위기를 주민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다”고 밝힘.
 - 그는 “공장이나 사업소 마당에 들어서면 여기 저기 ‘미국의 전쟁도발 책동을 짓부시자’는 구호가 시꺼먼 글씨로 나붙어 있다”면서 “회령시만 해도 노동적위대(민방위 해당) 비상소집과 등화관계·대피·소개 등의 훈련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임.

- **北김정일, 카터 방북날 평양곡산공장 현지지도(8/26, 조선중앙통신)**
 -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25일 평양을 방문한 가운데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시 선교구역의 평양곡산공장을 현지지도
 - 카터 전 대통령은 방북 첫날 김정일 위원장과 면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됐지만, 이날 오후 4시반 평양 도착 직후 북한의 명목상 국가원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면담한 데 이어 그가 마련한 만찬에 참석했을 뿐 김 위원장을 만나지 못함.

- 통신은 김 위원장의 구체적인 시찰 날짜를 밝히지 않았지만 중앙통신이 자정을 넘긴 시간에 보도한 점으로 미뤄 25일일 가능성이 크며, 이로써 평양에 머물고 있음이 확인됨.
- 김 위원장은 이 공장 현지지도에서 “공장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당과류를 비롯한 식료품 생산을 부단히 늘리는 것과 함께 그 질을 높이는 것”이라면서 “인민들에게 맛있고 보기 좋은 사탕, 과자를 공급하자면 이 부문에 대한 연구사업을 강화하여 향료와 색소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상품 도안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통신은 밝힘.
- 이날 현지지도에는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 행정부장,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당 중앙위 부장들인 김경희, 홍석형, 태종수가 수행

● 北 평남도 김정일 黨대표자회 대표로 추대(8/28, 조선중앙방송)

- 방송은 북한 노동당 평안남도 당대표회가 26일 평성시에서 열렸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 겸 당총비서를 당 대표자회 대표로 추대했다고 전함.
- 이어 “김정일 동지를 조선노동당 대표자회 대표로 추대하는 추대사를 평성시 당조직 대표인 평안남도 당 책임비서 홍인범이 했다”며 “대표회에서는 김정일 동지를 조선노동당 대표자회 대표로 높이 추대할데 대한 결정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힘.

● 北, 평양 출입통제…당대표자회 초읽기(8/28, 데일리NK)

- 매체는 북한이 내달 초순 열리는 당대표자회를 앞두고 지방 주민들의 평양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전함.
- 북한 내부소식통을 인용, “지난 26일부터 평양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10호 초소’에서 지방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화물차량에 대한 검색도 이뤄지고 있다”면서 “평양시에 체류 중인 지방 당간부, 지방 기업소 관계자, 친척방문 중인 지방 주민에게는 이달 말까지 모두 평양을 떠나라는 지침이 내려졌다”고 밝힘.
- 매체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위부 경비총국이 세운 것으로 알려진 ‘10호 초소’는 평양으로 들어가는 주요관문마다 설치돼있으며 현재 ▲황해북도 황주~평양의 ‘중화 10호 초소’ ▲평안남도 평성~평양의 ‘서포 10호 초소’ ▲황해북도 사리원~평양의 ‘마장 10호 초소’ 등에서 검문이 이뤄지고 있음.

- **北당대표자회 앞두고 김정일 대표 추대 잇따라(8/29, 조선중앙통신)**
 - 내달 초순 44년만에 열리는 북한 노동당 대표자회를 앞두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대표로 추대하는 당 하급 조직 행사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도
 - 통신에 따르면 평안북도 도당은 지난 26일 신의주에서 당대표회를 열어 김정일 국방위원장 겸 당 총비서를 당대표자회 대표로 추대함.
 - 이어 통신은 “(이번 평안북도 당대표회에)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내각 총리인 최영림과 도·시·군당, 각급 단위 당조직, 도급 기관 초급 당조직에서 선거된 대표들이 참가했다”면서 “평안북도 당 비서 김재룡의 제의에 따라 김정일 동지를 당대표자회 대표로 추대하는 결정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말함.
 - 김 위원장은 이날까지 평안북도 외에 평안남도와 인민군 당 대표회에서 대표로 추대됨.

[김정일 訪中 관련]

1) 김정일 국방위원장 訪中 확인 행로

- **8월 25일(수)**
 - 김 위원장, 평양 출발
- **8월 26일(목)**
 - 0시, 특별열차 지안 통과
 - 오전, 지린 도착, 위원중학교와 베이산 공원 방문
- **8월 27일(금)**
 - 오전 10시, 의전차량 창춘으로 출발
 - 오전 10시 30분, 창춘 난후(南湖)호텔 도착
 -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
- **8월 28일(토)**
 - 오전, 농업박람회장 방문
 - 오후 9시 15분, 승용차 편으로 창춘 출발

● 8월 29일(일)

- 0시, 하얼빈 도착, 화위안춘호텔 투숙

● 8월 30일(월)

- 오전 8시 10분, 하얼빈 출발
- 오후 1시 45분, 무단장 역 도착, 무단장 베이산공원 방문
- 오후 2시 30분, 헤이룽장(黑龍江)성 무단장(牡丹江)역을 출발, 귀국

2) 김정일 국방위원장 訪中 관련 기사보도

● 김정일 訪中 일지(8/26, 연합뉴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6일 전격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 5월 이후 3개월만에 이뤄진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북한 최고통치자로서 6번째이고, 1980년대 초반 당 중앙위 비서 신분으로 중국에 간 것까지 포함하면 통산 7번째임.
- 과거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일지를 최근부터 역순으로 정리
 - ▲ 2010.8.26~ = 김정일 국방위원장 극비 방중
 - ▲ 2010.5.3~7 = 김정일 국방위원장 극비 방중(후진타오 주석 초청)
 - ▲ 2006.1.10~18 = 김정일 국방위원장 극비 방중(후진타오 주석 초청)
 - ▲ 2004.4.19~21 =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후진타오 주석 초청)
 - ▲ 2001.1.15~20 =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장쩌민 주석 초청)
 - ▲ 2000.5.29~31 =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장쩌민 주석 초청)
 - ▲ 1983.6 = 김정일 노동당 중앙위 비서 방중(후야오방 공산당 총서기 초청, 비공식 방문)

● 김정일, 지린서 향일유적지 방문(8/26, 연합뉴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6일 전용 특별열차 편으로 중국 지린(吉林)을 방문해 선친 故 김일성 주석의 모교와 향일유적지를 방문
- 베이징의 외교소식통은 “김 위원장의 지린(吉林)시에서 위윈(毓文) 중학교와 향일유적지인 북산(北山)공원을 방문했다”고 밝힘.
- 위윈중학교는 고(故) 김일성 주석이 2년간 다녔던 학교로 지난 2월

북한측의 의전담당자인 김영일 노동당 국제부장이 찾았음.

- 위원중학교는 1912년생인 김일성 주석이 15세때인 1927년부터 1930년까지 수학했던 곳으로, 자서전에 김 주석이 위원중학교에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흡수하기 시작했다고 언급
- 김 주석은 1928년 위원 중학교 수학 당시 반일 데모를 진행하면서 ‘반동 교사’에 대한 시위를 조직하기도 했다고 전해짐.
- 북산공원은 항일전쟁 당시 전사한 혁명열사기념탑과 기념관, 묘역이 5만4천㎡ 면적으로 조성
- 이 곳은 중국의 동북지방에서 일본에 맞서 싸웠던 동북항일연군이 가장 많이 모셔졌으며, 기념관의 2.3관에는 항일전쟁과 6.25전쟁(중국명 항일원조전쟁) 당시의 열사 22명의 사적이 전시돼 있음.

● **中, 지린 철통 경비(8/26, 연합뉴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6일 중국 지린(吉林)시를 방문했을 때 현지 당국이 주변을 철통 경비했다고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이 말함.
- 지린(吉林)시 위원(毓文) 중학교 인근에서 식당을 하는 한 중국 여성은 “그들(김 위원장 일행)이 아침에 도착했다”면서 “당시 수많은 공안이 도로에 배치돼 있었고 도로는 봉쇄됐다”고 증언
- 이 여성은 “그들이 간 후 공안들이 떠났고 도로 봉쇄도 해제됐다”고 말함.
- 지안(集安)시의 상강청 홀리데이 호텔 직원은 북한 대표단이 호텔에 머물렀다고 확인했지만 여타 사항에 대한 언급을 거부

● **김 위원장 방문 위원中 ‘휴교’(8/26, 연합뉴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린(吉林)시 위원(毓文)중학 방문 행사는 일부 학생들이 휴교한 가운데 ‘조용히’ 치러짐.
- 이 학교 학생 200여명이 가입한 바이두(Baidu) 인터넷 카페에는 김 위원장의 방문 덕분에 학교를 쉬게 됐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옴.
- 한 학생은 “김정일 장군님, 우리에게 휴가를 주신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글을, 다른 학생도 김 위원장의 아들 김정운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작은 똥똥이’(二胖)가 며칠 있다 갔으면 더 좋겠다”는 글을 올림.

- 또한 김 위원장의 일행을 실제 목격했다는 글은 전혀 없는 반면 “누가 직접 본 사람 있나요? 정말 TV에 나오는 거랑 똑같나?”, “김정일이 이미 간 것 같은데 누가 봤나” 같은 질문이 잇따름.
- 한편 카페에는 김 위원장과 김정은이 이 학교를 방문한다는 소문이 전날부터 미리 돌았음을 추정케 하는 글들도 있었음.
- 한 학생이 25일 오후 10시께 “작은 김씨 똥똥이(金二胖)가 정말 내일 우리 학교에 오느냐”는 글을 올리자 곧바로 다른 학생이 “큰 똥똥이(大胖)가 작은 똥똥이를 데리고 온다더라”라고 댓글을 달았음.
- 한편 북-중 우의의 상징인 위원중학에 다니는 학생조차 북한 지도자에게 냉소적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음.
- 한 학생은 “선생님은 21세기의 태양이신 위대한 무산계급의 영도자 김정일 장군님이 참관을 오시니 창가에 물건을 치워놓으라고 하셨지만 한 급우는 (그들이) 보이는 대로 가져갈 것이니 당연히 치워야지요 라고 말했다”며 비꼬기도 했음.

● **의전차량들 야밤 외출행보 주목(8/27, 연합뉴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의전차량들이 26일 밤 일제히 투숙 장소인 지린(吉林) 시내의 우송(霧淞)호텔을 빠져나갔다가 약 50분 만에 되돌아 왔음.
- 의전차량들은 이날 밤 10시 20분(한국시간 11시20분)께 호텔에서 나와 시내의 지린 서역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목격돼 김 위원장 일행이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에 현장에 있던 각국 취재진이 한때 긴장
- 그러나 50분 후인 11시 10분께 차량들이 호텔로 되돌아오자 현지 관측 통들은 김 위원장 일행이 잠시 외출하고 돌아 온 것으로 판단
- 김 위원장은 직전 방중에서도 첫날인 지난 5월 3일 다롄(大連)의 숙소에서 의전차량 편으로 외출해 야경과 밤바다를 보고 복귀하는 장면이 포착된 바 있음.

- 한편, 의전차량이 호텔로 돌아온 이후 호텔 주변의 경계경비 상황도 다소 완화
- 현재 우송호텔 주변에는 경찰차량은 물론 의전차량이 목격되고 있으며 무장경찰 병력이 삼엄한 경계경비를 벌이고 있어 일반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호텔로 통하는 두 곳의 진입로도 현재 차량 출입이 통제되고 있음.
- 우송호텔 측은 26일 예약은 불가하지만 27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일반인 투숙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 **김정일, 창춘행...의전차량으로 이동(8/27, 연합뉴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날 오전 의전차량 편으로 창춘으로 향했으며 전용 특별열차는 별도로 움직여 창춘으로 가는 게 포착
- 아울러 창춘의 5성급 호텔인 난후(南湖)호텔이 김 위원장의 창춘 숙소로 예약된 것으로 전해짐.
- 그러나 김 위원장이 창춘 일정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음.
- 김 위원장은 지난 5월 방중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철저한 보안속에서 노출을 꺼리고 있으며 김 위원장을 수행중인 북·중 양국의 고위인사들 조차 베일에 가려져 있음.

● **김정일-후진타오, 창춘서 정상회담 개최(8/27, 연합뉴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방중 이틀째인 27일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것으로 전해짐.
-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한국시간 오전 10시)께 의전차량 편으로 지린(吉林)시를 출발해 1시간 30분을 달려 창춘 난후(南湖)호텔에 오전 10시 30분께 진입했으며 호텔에서 오후 내내 김 위원장 의전차량의 외출은 확인되지 않음.
- 베이징의 유력 외교소식통은 “점심 시간 전에 난후호텔에 중국 수뇌부 가운데 중요인사가 들어간 것으로 안다”며 “후 주석 아니면 시진핑(習近平) 부주석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함.

- 후 주석은 최근 며칠새 휴양차 동북3성에 머무르고 있다가 이날 창춘의 난후호텔로 향한 것으로 알려짐.

● **김정일, 숙소출발…귀국길 오른 듯(8/28, 연합뉴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방중 사흘째인 28일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의 숙소에서 이동
- 김 위원장을 태운 것으로 보이는 의전차량은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전 9시 5분(한국시간 오전 10시 5분)께 투숙했던 난후(南湖)호텔을 출발
-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을 포함한 중국 수뇌부가 전날인 27일 난후호텔에 머물면서 김 위원장과 북·중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한편 오찬과 만찬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짐.

● **김정일, 귀국 예상속 中산업시찰(8/28, 연합뉴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태운 것으로 보이는 의전차량은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전 9시 5분께 투숙했던 창춘(長春) 난후(南湖)호텔을 출발해 시 외곽의 농업박람회장을 찾았으며 1시간 가까이 머문뒤 다시 지린(吉林) 농업대로 향함.

● **김정일, 창춘 난후호텔서 장시간 대기(8/28, 연합뉴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태운 것으로 보이는 의전차량은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전 9시 5분께 숙소인 난후호텔을 떠나 시 외곽의 농업박람회장과 지린(吉林) 농업대학으로 들어갔으며 이후 창춘이치자동차(제1자동차) 공장 등을 방문하고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관측됐지만, 의전차량은 창춘이치자동차로 향하지 않고 방향을 돌려 이날 낮 12시 55분께 난후호텔로 돌아옴.

● **김정일, 창춘역 출발(8/29, 연합뉴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태운 것으로 보이는 전용 특별열차가 현지시간으로 28일 오후 9시 15분께 창춘(長春)역을 출발

-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을 태운 의전차량 20여대는 이날 오후 8시 40분께 중국 경찰차량의 호위를 받으며 창춘 난후(南湖)호텔을 출발해 10여 분 후인 오후 8시 52분께 역에 도착함. 김 위원장의 전용 특별열차는 이미 창춘역에서 대기 중, 김 위원장은 창춘역 도착 후 귀빈실로 가서 중국 측 고위인사들로부터 환송식을 받은 것으로 알려짐.

● **김정일, 하얼빈서 선친 혁명유적지 시찰(8/29, 연합뉴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28일 밤 창춘(長春)에서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으로 직행해 29일 하얼빈에서 선친의 혁명유적지를 둘러본 것으로 확인
- 베이징의 유력 외교소식통은 “애초 김 위원장이 연변조선족자치주를 시찰할 것으로 예상됐었으나 이런 관측이 완전히 빗나갔다”고 밝힘.
- 김 위원장은 하얼빈에서 김 위원장의 선친인 고(故) 김일성 주석의 혁명유적지를 찾아 참배한 후 송화(宋花)강 내 섬인 타이양다오(太陽島)의 한 별장에 투숙해 여장을 푼 것으로 전해짐.

● **김정일은 하얼빈, 北TV는 안중근(8/29, 조선중앙TV; 연합뉴스)**

- 중국을 방문중인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9일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 조선중앙TV가 이날 밤 ‘안중근 이등박문(이또 히로부미.伊藤博文)을 쏘다’를 방영해 눈길을 끄.
- 조선중앙TV는 이날 오전 11시 44분부터 오후1시까지 1시간 16분간 ‘조선예술영화’ 코너에서 이 영화의 1부를 방영했고, 오후 9시 30분부터 10시 40분까지 1시간 10분간 제2부를 방영
- 이 영화는 북한 조선영화촬영소가 1979년 제작한 2부작으로 우리 민족과 일제 사이의 민족 모순과 대립 관계를 기본 축으로 삼아 안 의사의 반일 애국사상과 이또 히로부미로 상징되는 일제의 침략 본성을 잘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영화광’인 김정일 위원장이 영화 제작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알려짐.

● **함북 보안국, 김정일 귀국경계 ‘비상’(8/30, 자유북한방송)**

- 4박 5일 일정의 중국 방문을 마치고 30일 오전 귀국길에 오른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맞기 위해 함경북도 인민보안국이 비상근무에 들어감.
- 방송은 함경북도 청진시 통신원을 인용, “함북도 인민보안국이 오늘 (30일) 아침 7시를 기해 이틀간의 비상근무에 들어갔다”면서 “이에 따라 보안원 200여명이 ‘충성의 근무’ 보위함을 갖고 화물트럭에 분승해 출동했다”고 밝힘.
- 김정일 이동 행사에만 쓰이는 ‘충성의 근무’ 보위함에는 무단 침입자가 건드리면 벨이 울리는 전자감응식 코일이 들어 있는데, 인민보안국 요원들은 이 코일을 30cm 높이로 설치해 놓고 50m 간격으로 늘어서 경계를 선다고 방송은 설명
- 통신원은 이어 “(투먼과 남양을 잇는) 남양철교는 지금까지 화물운송에만 이용됐고 열차로 이 다리를 통과한 고위급 인사는 1980년대 후야 오방(胡耀邦) 당시 중국공산당 총서기뿐”이라며 “만일 ‘1호열차’(김 위원장 특급열차)가 남양철교로 들어올 경우 철로 상태가 좋지 않은 함북선을 타지 않고 라진을 거쳐 평양으로 향할 것”이라고 설명

● **무단장서 선친 유적지 방문(8/30, 연합뉴스)**

- 30일 오전 하얼빈(哈爾濱)을 출발, 귀국길에 오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투먼(圖們)으로 향하던 도중 헤이룽장(黑龍江)성 무단장(牧丹江)에 들러 선친인 김일성 주석의 향일 유적지를 방문
- 무단장 소식통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하얼빈을 출발한 지 5시간여 만인 이날 낮 1시 45분께 무단장 역에 도착, 의전 차량으로 갈아 탄 뒤 동북항일연군(聯軍) 기념탑이 있는 베이산(北山)공원을 찾아 참배
- 김 위원장 일행은 기념탑 참배를 마친 뒤 이날 오후 2시 30분께 다시 특별 열차에 올라 투먼 방향으로 향함.
- 김 위원장은 방중 첫 날인 지난 26일 지린(吉林) 위문(毓文)중학교를 찾은 데 이어 지난 29일에는 하얼빈 타이양다오(太陽島)의 동북항일연군 기념관을 방문하는 등 방중 기간 선친의 향일 유적지를 순례

● **中, 창춘서 북중정상회담 개최 확인(8/30, 연합뉴스)**

- 베이징의 유력 외교소식통은 30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창춘(長春)에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중국측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힘.
- 김 위원장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27일 오전 10시 30분께 창춘의 난후(南湖)호텔로 진입해 그 다음날 오전 9시 5분께 외출을 위해 호텔을 나서기까지 머물렀음.
- 후 주석은 김 위원장보다 먼저 난후호텔에 도착했으며 이날 오후 시간대에 정상회담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짐.
- 아울러 북·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6자회담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 동북아 정세와 관련한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짐.
- 소식통은 또 “관심의 초점이 된 김 위원장의 3남 정은은 중국측(초청) 명단에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하였으나, 초청명단에 없다는 게 실제 김정은이 중국을 방중한 것인 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 **김정일, 투먼-남양 구간 통해 귀국(8/30, 연합뉴스)**

- 김 위원장은 지난 다섯차례 방문에서 모두 신의주-단동(丹東) 구간을 이용했으며 이번처럼 오갈 때 만포-지안(集安)구간과 투먼-남양 구간을 이용한 것은 이례적임.
- 김 위원장은 남양에서 마중나온 북한 인사들로부터 간단한 환영인사를 받고서 특별열차 편으로 평양으로 향한 것으로 전해짐.

● **김정일 “북·중 친선 바통 후대에 잘 넘겨야”(8/30, 조선중앙통신)**

- 지난 26~30일 중국을 비공식 방문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마련한 환영 연회에서 “북잡다단한 국제정세 속에 조·중(북·중)친선의 바통을 후대들에게 잘 넘겨주는 것은 우리들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말함.
-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7일 창춘(長春)시 난후(南湖)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만찬 연설을 통해 “대를 이어 조·중 친선을 강화·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 안정을 수호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

- 김 위원장은 또 후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조·중 친선은 역사의 풍파와 시련을 이겨낸 친선으로 세대가 바뀌어도 달라질 것이 없다”면서 “조·중 친선협조 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킬데 대한 조선 당과 정부의 변함없는 의지와 결심을 다시금 천명한다”고 밝힌 것으로 통신이 말함.
- 후 주석은 이에 대해 “중·조 친선을 시대와 더불어 전진시키고 대를 이어 전해가는 것은 쌍방의 역사적 책임이며, 중·조 친선협조 관계를 공고·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면서 “중국 측은 조선 측과 함께 중·조친선 협조관계를 진정으로 수호하며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화답
- 통신은 이번 정상회담의 다른 의제들과 관련,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국제 및 지역문제, 동북아시아 정세와 관련해 허심탄회하고 진지하게 의견을 교환했고 완전한 견해 일치를 보았다”고만 밝힌 채 더 이상 세부 내용은 언급하지 않음.
- 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등 북한 매체들은 이날 오후 8시를 기해 김 위원장의 방중 소식을 일제히 전하면서 김영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인민무력부장,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태종수 당 부장,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장성택, 홍석형, 김영일, 김양건 당 부장, 최룡해 황해북도 당 책임비서, 김평해 평안북도 당 책임비서, 박도춘 자강도 당 책임비서가 동행했다고 소개했으나, 김 위원장의 후계자인 셋째 아들 김정은이 동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음.

● 김정일, “6자회담 조속재개 희망”(8/30, 신화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중국과 긴밀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6자회담을 재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통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7일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북·중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

- 김 위원장은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견지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고 한반도 정세의 긴장을 원치 않는다”면서 “우리는 한반도의 긴장 국면을 완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함.
- 후진타오 주석은 천안함 사건으로 조성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의 긴장이 6자회담 국면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후 주석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장성명을 발표한 이후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동향이 나타났다”면서 “중국은 유관 당사국에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의 기치를 들고 현재의 긴장 국면을 완화하기 위해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말함.
- 그러면서 그는 “중국은 한반도 정세 완화와 외부환경 개선을 위한 북한의 적극적인 노력을 존중하고 지지한다”고 말함.
- 후 주석은 “양국간 각 분야 및 지역(성·도)간의 교류와 협력이 매우 활발하며 한반도 및 지역문제에서의 소통과 협력도 밀접하다”고 평가하면서 “중국은 북한과의 우호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말함.
- 후 주석은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위급 교류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양국 지도자가 각종 방식으로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경제무역 협력을 추진해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확대 심화시키고 ▲ 복잡한 변화가 일어나는 국제 및 지역문제에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효과적으로 유지해 나가자고 제안
- 김 위원장은 후 주석의 양국 관계에 대한 평가와 3가지 제안에 전적으로 찬성했다고 통신은 전함.
- 후 주석은 김 위원장에게 중국의 개혁개방의 성과를 소개하면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간접적으로 촉구
- 그는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과 민생개선 및 보장은 중국의 개혁개방 30여년간의 경험”이라고 전제하고 “경제발전은 자력갱생도 중요하지만 대외협력과 분리될 수는 없다”면서 “이는 시대조류에 순응하는 것

- 이자 국가발전을 가속화하는 필수적인 길”이라며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구함.
- 김 위원장도 중국의 개혁개방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향후 북한의 민생 개선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요청
 - 그는 자신을 역사적인 산 증인이라고 전제하면서 “개혁개방 이후 중국이 빠른 발전을 이룩했고 어느 곳이든 생기가 넘친다”면서 “이는 중국의 사회주의 조화사회를 건설하는 정책이 매우 정확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경제발전과 민생개선에 주력하고 있는 북한은 중국과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말함.
 - 김 위원장은 후 주석에게 “양국 선배 혁명가들이 피로써 맺은 북·중간 전통 우호관계는 매우 소중하다”면서 “각 분야별 지역별 교류협력과 양국 청소년간의 교류와 학습을 통해 양국 전통 우의가 부단히 발전해야 한다”고 말함.
 - 김 위원장은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지린(吉林)성 지린시와 창춘시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시 등을 방문하면서 기계제조공장, 철도교통, 화학공업, 식품가공공장 등을 시찰, 중국의 동북지방 개발에 큰 관심을 피력하며, 부친인 고 김일성 주석의 모교 등 이른바 혁명 유적지도 함께 시찰
 - 김 위원장은 후 주석과 정상회담에서 “동북 지방은 양국 우의의 발원지”라고 의미를 부여했으며 현장 방문 과정에서는 “동북 지방은 북한과 지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매우 유사하다”면서 “북한은 동북지방과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의 개발방법과 경험을 열심히 연구할 것”이라고 말함.
 - 통신은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에서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과 링지화(令計劃) 공산당 중앙판공청 주임 등 중앙과 지방의 지도자들이 함께 했다고 보도
 - 통신은 북한 측에서는 김영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기남 노동당 비서,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태종수, 홍석형, 김영일, 김양건 당 부장, 최룡해 황해북도 당 책임비서, 김평해 평안북도 당 책임비서, 박도춘 자강도 당 책임비서 등이 동행했다고 소개

● **김옥 추정 여성, 정상회담 배석(8/30, 연합뉴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넷째 부인으로 알려진 김옥(46)으로 보이는 여성이 지난 5월에 이어 이번 방중에도 정상회담장에 모습을 드러냈음.
- 이날 김 위원장의 양옆으로는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겸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영일 당 국제부장, 김기남 당비서,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등 실세들이 배석했는데 바로 그 뒷자리에 앉음.
- 양국 회담 참석자들의 자리 앞에는 각각 중국어와 한글로 쓰인 명패가 놓여 있는데 유독 이 여성 앞에만 명패가 놓여 있지 않은 점 또한 이 여성의 '특수한 지위'를 짐작하게 함.
- 이 여성은 회담이 끝나고 후 주석이 마련한 환영 만찬에도 참석했는데 20여명이 앉은 헤드 테이블에 자리를 잡음.
- 김옥은 2006년 1월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때 국방위 과장 자격으로 공식 수행했는데 당시 연회에서 후 주석 등과 직접 인사를 나누며 사실상 '퍼스트레이디'로 공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짐.

■ **김정일동향**

- 8/23 김정일, 음악무용대공연 '선군승리 천만리' 관람(8/23, 중통·중방)
 - 최영림(내각총리), 김영춘(인민무력부장), 이영호(총참모장), 최태복·김국태·김기남(당 비서), 黨 政 책임일꾼 등과 함께 관람
- 8/23 김정일, 희천발전소 건설 지원에서 모범을 보인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8/23, 중방)
- 8/23 김정일, 故 권정웅(4.15문학창작단 작가) 영전에 화환 전달(8/23, 중통)
- 8/24 김정일, 927담공장 현지도(8/24, 중통·중방)
 -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 김기남(黨 비서), 홍석형·태종수(黨 부장) 등 동행 및 주상성(인민보안부장), 리병삼(조선인민내무군 정치국장) 등 영접
- 8/26 김정일, 평양 곡산공장 현지도 및 기술개건에 이바지한 기업소 등에 「감사」 전달(8/26, 중통·중방)
 -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 김기남(黨 비서), 김경희·홍석형·태종수(黨 부장들) 등 동행
- 8/26 김정일, 故 김성규(黨 부장, 77세) 빈소에 화환 전달(8/26, 중통)
- 8/28 김정일,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한 근로자들(경공업성 기술준비원 이은경, 노동자 이승호 등)에게 「감사」 전달(8/28, 중방)
- 8/28 김정일, 北·쿠바 외교관계 설정 50돌 즈음 쿠바 수상에게 축전(8/29, 중통)
- 8/28 김정일, 비전향장기수 '조창손'에게 생일상 전달(8/29, 중통)

기타 (대내 정치)

- 김정일 선군혁명영도 시작 50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평양체육관에서 진행(8/24, 중통·중방)
- 김영남(보고), 최영림(내각총리), 김영춘(인민무력부장), 리영호(총참모장), 최태복(黨 비서/사회) 등 참석
- 당대표자회를 계기로 모든 사업이 당의 노선과 정책, 사상과 의도에 맞게 진행하고, 韓美의 핵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해 임의의 시기에 핵억제력에 기초한 우리의 보복성전을 개시하여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할 것이라고 주장
- 黨 최고인민회의, 8/24 김성규(黨 부장, 77살) 사망 訃告 발표(8/26, 중방)
- 김혁(혁명투사) 사망 80돌 중앙추모회, 청년회관에서 진행(8/25, 중통)
- 金父子 咸鏡南道 현지지도 50돌 기념보고, 8/25 함흥대극장에서 광범기(咸南道黨 책임비서/기념 보고)·류현식(道인민위원장) 등 참가하 진행(8/26, 중방)
- 黨 대표자회 대표자 선거를 위한 조선인민군 대표회, 8/25 '김정일'을 대표자로 추대(8/27, 중방)
- 김정일이 김일성종합대학에 영도자육을 옮긴 50돌 기념 중앙연구토론회, 최희정(黨 부장) 등 참가하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8/26, 중통)
- 김정일의 김일성종합대학 혁명활동 시작 50돌 기념 중앙보고회,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8/31, 중방)
- 김영남, 최태복, 양형섭, 강능수(내각 부총리), 최희정(黨 부장), 김용진(교육위원장), 성자립(김일성종합대학 총장/보고) 등 참가
- 北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총 제65차 전원회의, 평양에서 진행. '김병팔' 위원장을 건강상 관계로 해임하고 '현상주'를 새 위원장으로 선거(8/31, 중통)

나. 경제

기타 (대내 경제)

- 조선인민군 내무군 차백용소속부대 건설자들, 평양시 10만 세대 살림집 건설에 박차(8/23, 중방)

다. 군사

● 北, 스텔스도로 칠하고 가짜 전투기·함정 배치(8/23, 연합뉴스)

- 북한이 한·미 정찰자산의 감시망을 피해 핵심 장비에 스텔스 페인트(도료)를 칠하고 가짜 전투기와 함정 등을 배치토록 하는 위장전술이 기록된 북한군 교범이 입수됨.
- 충남에 있는 갈렙선교회 관계자는 23일 “북한이 한국과 미군의 정찰수단에 핵심 장비가 포착되지 않도록 각종 대응책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위장전술을 구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북한군 교범 ‘전자전 참고자

료' 등을 입수했다"고 밝힘.

- 북한 조선인민군 군사출판사가 지난 2005년 발간한 이 교범은 함정과 전투기, 전차 등에 레이더 전파를 흡수하는 스텔스 페인트를 칠하도록 했음.
- 또 가짜 전투기를 비롯한 가짜 활주로와 해군 동굴기지 입구, 함정 등도 만들.
-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집중적으로 배치된 장사정포 궤도진지와 진지 입구 등이 레이더나 적외선 탐지 수단으로부터 숨기도록 입구에 반(反)전파, 반 적외선 흡수제를 바르고 진짜 궤도에서 150~130m 떨어진 곳에 가짜 궤도 입구를 만들되 입구에는 레이더 전파를 반사하는 '각반사기'를 설치

● 北, 평양 인근 대규모 병력·화포 전개(8/24, 연합뉴스)

- 북한군은 지난달 12일부터 평양 인근에 대규모 병력과 기갑부대, 화포 등을 전개하고 있음.
- 국방부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방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북한군이 평양 인근에서 대규모 국가급 행사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며 "대규모의 병력과 기갑장비, 화포 등을 다수 전개 중"이라고 밝힘.
- 북한은 우리 해군의 서해 훈련기간(5~9일) 동·서해에서 해상기동 및 사격훈련을 했으며 지난달 1일 이후 중단한 전투기 비행숙달훈련을 지난 12일부터 재개

● 북한, 군 간부에 15일씩 위로 휴가(8/29, 도쿄신문; 연합뉴스)

- 신문은 북한이 지난달 초부터 차례로 인민군의 연대장급 이상 간부들을 가족과 함께 군 휴양소에 보내 15일씩 휴가를 즐기게 하고 있다고 보도
- 북한 사정에 밝은 소식통에 따르면 평양에 사는 군 간부는 지난달 초 군이 준비한 열차를 타고 함경남도 함흥시에 있는 휴양시설에 가서 휴식했고, 식비와 숙박비는 모두 무료였다고 함.
- 신문은 내달 열리는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의를 앞두고 군부의 충성심을 높이려는 것이거나 북한이 '수령 결사 용위'의 전형으로 떠받드는 오중흡 제7연대장 탄생 100주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면서도 "천안함 사건 이후 한미 양국이 군사훈련을 하고 있고, 북한도 준(準)전시체

제에 돌입한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는 소식통의 말을 함께 전함.

라. 사회·문화

● 北 페이스북 운영자는 조평통 ‘6.15편집사’(8/23, 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6.15편집사’가 세계 최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 계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23일 파악됨.
- ‘우리민족끼리’로 등록된 페이스북 계정(www.facebook.com/uriminzok)의 운영자는 이날 북한과 관계를 묻는 연합뉴스 기자의 인터넷을 통한 질문에 “우리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산하 조선륙일오편집사입니다. 평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고 밝힘.
- ‘6.15편집사’는 인터넷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북한의 체제선전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북한은 지난 19일 이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한 뒤 조선중앙TV, ‘우리민족끼리’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각종 동영상과 기사를 올리고 있음.

● 北, 상하이엑스포 소개 웹사이트 개설(8/23, 신화통신)

- 북한이 2010 상하이(上海) 엑스포의 북한관을 소개하는 웹사이트를 처음으로 개설
- 통신은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인용, 북한이 상하이엑스포 북한관(조선관)을 소개하는 홈페이지(www.expo2010-dprkorea.org)를 개설했다고 보도
- 이 사이트를 통해 북한은 평양의 명소를 비롯해 아리랑 축전, 가극 ‘꽃파는 처녀’ 등 예술공연을 비롯한 민속전통, 영통사, 선죽교, 백두산, 금강산을 포함한 관광명소 등을 소개하고 있음.
- 사이트에는 북한관의 내부 전경도를 사진으로 소개하면서 북한에 관한 각종 영상홍보물도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어와 중국어, 영어 등 3개 언어로 서비스되고 있음.
- 상하이엑스포를 통해 처음으로 세계엑스포 무대에 참가한 북한은 내달

6일 북한의 날 행사를 개최할 예정

● 北신의주 홍수로 14명 사망(8/24, 자유아시아방송(RFA))

- 지난 21일 기록적인 폭우로 압록강이 범람하면서 신의주 일대가 물에 잠겨 주민 14명이 사망하고 6만 4천여명이 긴급 대피함.
- 방송은 국제적십자사(IFRC)의 ‘긴급 상황보고’를 인용, “199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위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진 압록강의 범람으로 이 지역에서 주민 1만 5천 가구가 가옥을 잃었다”면서 “북한 당국이 이재민들에게 식량을 나눠주고 헤어진 가족도 찾아 주고 있다”고 밝힘.
- IFRC는 또 “북한의 조선적십자회가 홍수 발생 당일 ‘재난대응팀’을 신의주에 급파해 이동식 식수정화기 두 대를 전달하고 이재민 2천 500가구에 주방기구, 담요, 식수 정화제 등이 포함된 구호품 세트를 나눠줬다”고 덧붙였다.
- IFRC는 장마철에 앞서 조선적십자회에 재난대응 방법을 교육하고 응급 구호품 2만 7천 세트를 미리 지원한 것으로 알려짐.
- IFRC 중국 베이징 사무소의 프랜시스 마커스 대변인은 23일 VOA 방송과 전화통화에서 “적십자 현장조사단이 24일 다시 신의주에 들어가 피해 상황을 더 알아보고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결정할 것”이라면서 “우선 IFRC의 ‘재난구호긴급기금’을 활용해 지원하되, 예산 범위를 초과하고 북한 조선적십자회가 추가 지원을 요청할 경우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특별모금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함.

● 페이스북, 북한 계정 ‘우리민족끼리’ 폐쇄(8/24, 연합뉴스)

- 세계 최대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운영업체인 ‘페이스북’이 지난주 개설된 북한 계정 ‘우리민족끼리’를 폐쇄
- 이날 오전 9시 30분 현재 북한의 페이스북 계정 ‘우리민족끼리’(www.facebook.com /uriminzokkiri)에 접속을 시도하면 “요청하신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만 뜨고 접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북한측은 이 계정이 차단되자 곧바로 계정 아이디를 ‘우리민족’(www.facebook.com/uriminzok)으로 바꿨다고 VOA 방송이 이날 전했다. 그러나 ‘우리민족’ 계정 역시 열리지 않고 있음.

- 페이스북이 이들 북한 계정을 언제 폐쇄했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음.
- VOA는 미국의 컴퓨터 전문잡지 ‘피시월드’를 인용, “페이스북 측은 구체적인 설명 없이 ‘우리민족끼리’ 계정이 이용 약관을 어겨 폐쇄했다고만 밝혔다”면서 “페이스북 계정 사용자가 미국 정부의 금수조치 대상국에 있거나, 미 재무부의 특별지정제재대상 명단에 올라 있으면 페이스북에서 영업활동이나 웹사이트 운영을 할 수 없도록 이용약관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

● **北TV, 신의주 농경지 2천 458정보 침수(8/24, 조선중앙TV)**

- 압록강 범람으로 홍수 피해를 당한 평안북도 신의주시의 경우 24일 현재 2천458정보의 농경지가 침수
- TV는 이날 저녁 8시 뉴스 시간에 “신의주시에서 큰물에 의한 피해를 계속 입고 있다”며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24일 현재 시적으로 총 2천 458정보의 농경지가 침수됐고 특히 상단협동농장에서는 480여 정보, 하단협동농장에서는 800여 정보의 농경지가 침수돼 농작물은 하나도 거두어 들일 수 없게 됐다”고 밝힘.
- 방송은 “지난 21일에 큰물 피해를 입은 이곳 시에는 22일까지 비가 내렸다”며 “그 기간 물은 부분적으로 빠졌는데 23일 새벽부터 압록강 상류에서 또다시 많은 물이 흘러내려 상단리와 하단리를 비롯한 신의주시의 일부지역의 농경지가 다시 물에 잠겼다”고 말함.
- TV는 신의주시의 논밭이 흙탕물에 침수된 화면을 1분가량 내보내면서 “지금 평안북도 큰물피해 방지대책 연합지휘부와 신의주시안의 일꾼, 근로자들은 큰물피해를 하루빨리 가시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임.

● **北신형탱크 ‘폭풍호’ 공장도 침수 피해(8/25,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의 최신형 탱크 ‘폭풍호’의 생산 기지로 추정되는 함경남도 신흥군 소재 일명 ‘61호 공장’이 지난달 말 폭우로 침수돼 큰 피해를 봤음.
- 방송은 함경남도 함흥시 소식통을 인용, “북한의 주력 탱크 ‘천마호’와 최신형 ‘폭풍호’를 생산하는 61호 군수공장이 장맛비에 침수됐다”며 “지난달 21일부터 29일까지 함경남도 지방에 많은 비가 내려 장진강발전소가 갑자기 수문을 개방하는 바람에 신흥군이 통째로 물에 잠겼다”고 밝힘.

- 북한의 군수경제를 총괄하는 제2경제위원회 산하 시설로서 신흥군 가평리에 위치한 '61호 공장'은 주력 탱크인 '천마호'와 최신형 '폭풍호'의 본체를 생산하며, 인근 함흥시 사포구역 초운리에 소재한 '211호 공장'에서 포탑을 없어 완제품으로 조립한다고 방송은 설명
- 함흥시 소식통은 "가평리 '61호 공장'의 경우 기린산 기슭에 뚫은 지하갱도 안에 모든 직장(생산라인)이 들어가 있는데 급격히 불어난 물로 갱도가 침수된데다 산사태가 갱도 입구를 덮쳐 노동자 여러명 사망했다"면서 "아울러 탱크의 심장부인 중국산 원동기(엔진) 230여대가 진흙탕에 잠겼고 검사실이 침수돼 대부분의 계측기들이 못쓰게 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말함.
- 함경북도의 다른 소식통은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61호 공장'을 한달 안에 원상복구하라는 지시문이 내려온 것으로 미뤄 피해가 큰 것 같다"면서 "장진강 수문을 예고 없이 연 것에 대한 문책으로 함경남도 기상관측소 간부들이 대부분 해임, 철직됐다는 말도 있다"고 전함.

● **北, 신의주 홍수 사흘만에 유엔 지원 요청(8/25,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압록강의 범람으로 신의주 일대가 침수된지 사흘만인 24일 유엔에 긴급 지원을 요청
- 북한은 지난달 중순 이후 간헐적인 폭우가 이어지면서 많은 피해를 봤지만 유엔 등 국제사회에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음.
- 유엔아동기금(UNICEF) 아시아 사무소의 제프리 킬리 대변인은 RFA에 "북한 당국이 24일 오후 유엔에 긴급 지원을 공식 요청해왔다"면서 "평양에서 활동하는 유엔 기구들이 25일 중 북한 당국과 회의를 갖고 지원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함.

● **북한 요덕군서 고대 집터, 유물 발굴(8/25, 조선신보)**

- 정치범수용소로 널리 알려진 북한 함경남도 요덕군에서 고대 집터와 유물이 발굴
- 신문에 따르면 요덕군 요덕읍 서남방 2km의 금야강 상류 벌판에 위치한 유적지에서는 15㎡ 넓이의 집터와 돌로 만든 반달칼 조각, 활촉, 그물추, 질그릇 등이 나왔음.
- 신문은 "북한의 연구집단은 반달칼 등 석기 여러 점과 구멍줄무늬그릇,

겉아가리그릇 등이 함께 발견된 점에 주목하면서 특히 구멍줄무늬그릇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 유적은 구멍줄무늬그릇의 분포 영역을 새롭게 확증해 고조선 역사를 과학적으로 해명하는데 귀중한 실물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 **압록강 일대 또 폭우…수위 줄지 않아(8/27, 선양신화)**

- 압록강 지역에 26~27일 또다시 폭우가 내렸다고 북한과 중국 접경지역인 랴오닝(遼寧)성 홍수통제본부가 전함.
- 홍수통제본부에 따르면 북한 신의주와 마주한 단둥(丹東)에서 26일 오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 78mm의 비가 쏟아졌으며 지난 19일 이후 압록강 수위가 좀처럼 줄지 않아 해상 운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 기간 평안북도 신의주와 의주 지역에서도 300mm가 넘는 호우로 주택 7천750여 가구가 침수, 파괴되고 7천200여 정보의 농경지가 피해를 봤다고 보도

● **북·중 접경 폭우로 8명 사망, 17만명 대피(8/28, 선양신화)**

- 북한과 접한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 지역에 26~27일 다시 폭우가 내려 8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고 단둥시 지방정부가 전함.
- 단둥 홍수통제본부 관계자는 또 19~22일 폭우가 내린 뒤 압록강 수위가 줄지 않아 해상 운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27일 서해 밀물 탓에 압록강 하구의 수위가 더 올라갈 것으로 내다봄.
- 랴오닝성 일대에서는 앞선 폭우로 압록강이 범람하면서 4명이 숨지고 25만명 이상이 대피했으며, 단둥과 마주한 평안북도 신의주와 의주 지역에서도 주택 7천750여 가구가 침수된 것으로 전해짐.

● **北평북서 수해로 최소 70명 인명피해(8/31, 좋은벗들)**

- 이달 중순의 집중호우로 북한 평안북도에서만 최소 70명(실종 포함)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압록강 유역의 농경지도 심각한 침수 피해를 봤음.
- 단체는 소식지에서 “현재까지 평안북도 지역에서 32명이 사망하고 38명이 실종됐다”면서 “그래도 올해는 북한 당국에서 제때 대피 신호를 보내줘 예년보다 인명피해가 크지 않았다”고 밝힘.

- 소식지는 이어 계속된 폭우로 압록강 수위가 높아지자 북한 당국이 수풍 발전소 수문을 개방해 인근 농경지 침수 피해가 커졌다고 덧붙임.
- 또한 “전체 면적의 80% 이상이 농경지인 신의주 위하도 상단리와 하단리, 의주군 룡운리, 룡계리, 수진리, 대화리, 식주군 청수노동지구 등에서 옥수수과 벼 피해가 특히 심하다”면서 “가을걷이(추수)만 바라보며 춘궁기를 견디던 주민들이 암담해하고 있다”고 전함.
- 게다가 구호물품도 부족해 북한 당국은 수재민들을 세 등급으로 분류해 그릇, 세면도구, 이불 등의 구호물품을 차등분배할 예정이라고 소식지는 설명
- 한편 국제적십자사(IFRC)는 지난 24일 보고서를 통해 “압록강의 범람으로 신의주 일대가 물에 잠겨 주민 14명이 사망하고 6만 4천여명이 긴급 대피했다”고 전했고, 28일에는 “압록강 범람으로 피해를 본 북한의 수재민들을 돕기 위해 특별예산 36만8 750달러(한화 약 4억4천만원)를 긴급 지원키로 했다”고 밝힘.

● 北통신, 첫 여성 배구 국제심판 장정향씨 소개(8/31,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31일 “평양체육단 여자배구 감독인 장정향(38, 여)씨가 지난 6월 26일~7월 4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된 아시아여자배구클럽선수권 대회 심판위원회 자격심의에서 국제배구연맹의 심판으로 정식 선발됐다”고 소개
- 지난해 5월 후보심판 자격심의 합격 이후 1년여만임.
- 통신에 따르면 중학교 때부터 선수로 활약하던 장씨는 조선체육대학을 졸업한 뒤 여자 배구 감독으로 활약하다 ‘풍부한 경험’과 ‘뛰어난 외국어 실력’으로 북한 내에서 여자배구 국제심판 후보를 선정할 때부터 적임자로 꼽혔음.
- 통신은 “장 심판이 얼마 전 있었던 국내 경기에서 국제심판으로서의 실력을 보여줘 전문가들과 애호가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고 전함.

■ 기타 (대내 사회 문화)

- 金父자와 김정숙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 평북 정주청년역·낙랑대성피복공장 등지에 건립(8/23, 중통)

2 대외

가. 일반

- **폴란드 당국, 北계좌 불법송금 조사 방침(8/26, 자유아시아방송(RFA))**
 - 폴란드 금융당국이 자국 내 금융기관에 개설된 북한 계좌 현황과 이를 통한 불법자금 송금 의혹에 대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짐.
 - 방송은 익명을 요구한 폴란드 소식통 인용, “폴란드 금융감독원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목한 폴란드 Kredyt 은행의 북한 계좌 현황과 이를 통한 자금 송금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답변해왔다”고 밝힘.
 - 폴란드 정부는 북한의 불법 금융거래 행위가 포착되면 관계 당국이 조사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견지해왔으나, 새 방침은 적극적인 조사와 불법행위 차단 의지를 내보인 것이어서 주목
 - 소식통은 또 “북한이 불법 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돈을 Kredyt 은행 계좌에 예치한 뒤 본국에 송금하는 문제를 집중 조사할 것”이라면서 “금융감독원 측은 조사가 끝난 뒤 사안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것임을 알려왔다”고 말함.
 - 방송은 이와 관련, “폴란드 금융감독원은 아직 북한의 불법 계좌와 송금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지만 유엔 안보리 보고서를 접하고 이런 방침을 정한 것 같다”고 설명
 - 폴란드는 최근 유엔 안보리가 작성한 ‘대북제재 관련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북한의 해외 계좌가 개설돼 있는 8개 유럽국가에 포함됐고, 특히 ‘Kredyt’은행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2009년 발표한 ‘유엔 제재 1874호 관련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북한의 ‘조선연합개발은행’이 직접 거래하는 21개 해외 은행 중 하나로 지목됨.
- **駐쿠바 北대사, ‘공격받으면 핵억제력 사용’(8/28, 연합뉴스)**
 -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의 권성철 대사는 27일 북한이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면 핵무기를 쓸 것이라고 말함.

- 권 대사는 이날 쿠바와 북한 간 외교수립 5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워싱턴과 서울이 한반도에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려 할 경우 우리는 핵 억제력을 바탕으로 한 성전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 이어 “우리 정부는 통일을 위한 출발점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지속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임.
- 또한 천안함 사건과 관련, 현 상황은 북한과 쿠바 국민들 간 지지와 유대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군사적 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경고한 점에 대해 사의를 표시

[카터 訪北 관련 기사]

● 北, 카터 방북하면 고프즈 석방(8/24, 연합뉴스)

- 북한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방북하면 억류 중인 미국 시민 아이잘론 말리 고프즈를 석방하기로 합의했다고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의 고위 관리가 23일 밝힘.
- 이 관리는 카터 전 대통령이 고프즈를 석방시키기 위한 “순수한 인도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24일 오전 북한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카터 전 대통령과 함께 방북하는 미국 관리는 없다고 말함.

● 카터 前 미대통령 방북(8/25,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25일 북한에 억류중인 미국인 석방을 위해 1994년 이후 두 번째로 북한을 방문
- 조선중앙통신과 라디오인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은 “미국 전 대통령 지미 카터와 그 일행이 25일 평양에 도착했으며 비행장에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맞이했다”고 짧게 보도
- 이들 세 매체는 오후 5시로 시간을 맞춰 동일한 내용을 보도했는데, 이로써 미 정부도 공식적 언급을 피했던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이 처음 확인됨.
- 카터 전 대통령이 북한에 억류중인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고프즈씨의 석방을 위해 방북길에 올랐다는 내외신 보도가 나온 이후에도 미국

국무부는 구체적인 확인을 피해왔음.

- 카터 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은 이번이 두번째인데, 그는 1994년 6월 1차 ‘북핵 위기’ 당시 개인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과 회담
- 이번 방북의 표면적 목적은 지난 1월 북한에 무단 입국해 8개월째 억류 중인 고프스씨의 석방 협상이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6자회담 등 북미관계 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음.
- 고프스씨는 지난 4월 재판에 회부돼 8년 노동교화형과 7천만원(북한 원화기준) 벌금형을 받았으며, 미국 국무부는 이달 9~11일 고프스씨 석방을 위해 영사 담당 관리와 의료진을 극비리에 평양에 보냈지만 북측은 석방을 거부

● 카터, 공항서 시종 웃음(8/25, 조선신보)

-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25일 오후 4시반 평양 공항에 도착, 승용차를 타고 시내로 향했으며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부터 승용차에 탈 때까지 시종 웃음을 짓고 있었다”고 조선신보가 전함.
- 신문은 평양발 기사에서 평양 공항에서는 북한매체들이 전한 6자회담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 외에 리근 외무성 미국국장이 함께 카터 전 대통령을 영접했으며 어린이가 꽃다발을 주었다고 밝힘.
- 신문은 또 “비행장에는 기자들을 위한 촬영대가 설치되었다”며 “약 30명의 내외신 기자들이 취재했다”고 소개

● 北김영남, 카터 면담…백화원 영빈관 만찬(8/25, 조선중앙TV;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명목상 국가원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2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일행을 만나 환담한 뒤 백화원 영빈관에서 만찬을 함께 함.
- TV는 오후 8시 정규 뉴스 시간에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카터 전 대통령을 만나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담화를 했다”고 소개한 뒤 이 자리에 6자회담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장과 관계 부문 일꾼(간부)들이 배석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담화 내용은 언급하지 않음.

- 방송은 카터 전 대통령의 평양 도착과 김영남 상임위원장 면담 소식을 오후 8시 32분께부터 다뤘고 그에 앞선 30여 분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혁명 영도' 50주년 기념행사 소식으로 채웠음.
- 이어 조선중앙통신이 오후 8시 51분께 김 상임위원장이 카터 전 대통령 일행을 위해 백화원 영빈관에서 연회를 마련한 소식을 덧붙였다.
- 이날 오후 4시 30분 평양 공항에 도착한 카터 전 대통령이 이어진 저녁 시간에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면담하고 만찬도 함께한 것을 볼 때 정작 관심을 모았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만남은 다음날인 26일로 미뤄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음.

● 카터 전 대통령 평양에 하루 더 체류(8/26, 연합뉴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6일 새벽 중국을 전격 방문한 가운데 북한을 방문 중인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방북 일정을 하루 연장해 최소한 27일까지 머물 것으로 확인
-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카터 전 대통령이 당초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에 들어갔으나 일단 평양 체류기간을 하루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이번 방북에 정통한 측으로 부터 확인했다”고 말함.
- 이 소식통은 다만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 일정 연장이 김정일 위원장과의 면담을 위한 것인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함.
- 이와 관련,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에 정통한 다른 소식통은 “카터 전 대통령은 방북 이전에 북한 정부의 공식 초청과 김 위원장 면담을 약속받은 상태에서 평양에 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고 있지만 베이징(北京)까지 가지 않고 지린(吉林)성 등만 방문하고 돌아올 가능성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함.

● 北통신 “카터 전 대통령 평양 출발”(8/27,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이날 항공편으로 평양을 떠났다고 밝힘.
- 통신은 별도의 보도를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미국 정부와 카터

전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 보고받고 불법 입국한 미국인 곰즈씨를 특사해 석방할 것을 명령했다고 말함.

- 이에 따라 지난 25일 북한을 방문한 카터 전 대통령은 방북 사흘째인 이날 오전 11시를 전후해 곰즈씨와 함께 민간 전세기를 타고 귀국한 것으로 보임.
- 통신은 또 곰즈씨를 석방한 경위와 관련, 미국 국무부의 영사 담당 부차관보 일행이 지난 9~11일 북한을 방문해 외무성 및 해당 법기관 ‘일꾼’(간부)들을 만났다고 밝힌 뒤 “카터는 미국 정부와 전(前) 대통령의 이름으로 곰즈의 불법 입국에 대해 사죄하고 재발 방지를 담보하면서, 위대한 장군님(김정일 지칭)께서 특사권을 행사해 돌려보내 주실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통해 올렸다”고 주장
- 카터 전 대통령이 곰즈씨 석방을 요청하는 편지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했다는 이 통신의 보도 내용으로 미뤄, 이번에 카터는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채 평양을 떠난 것으로 보임.
- 통신은 이어 카터 전 대통령이 방북 기간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만나 북·미 현안 문제들에 대해 논의했고, 김 상임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조선반도 비핵화와 6자회담 재개에 관한 우리 공화국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으며 특히 조선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는데 대해 언급했다”고 덧붙임.
- 카터 전 대통령은 또 박의춘 외무상,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만나 “조·미(북·미) 쌍무관계 문제와 6자회담 재개,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 문제 등 호상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통신은 전함.
- 통신은 “카터 전 대통령의 우리나라 방문이 조선과 미국 사이의 이해를 깊이하고 신뢰를 조성하는데 유익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

● 카터, 곰즈 동반해 귀국길 올라(8/27, 연합뉴스)

- 신화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은 카터 전 대통령이 이날 오전 곰즈와 함께 비행기에 탑승해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 카터 센터도 성명을 통해

카터 전대통령 일행의 귀국을 발표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카터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여 곰즈를 사면했다고 밝힘.

- 북한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곰즈의 석방을 위해 방북한 카터 전 대통령에게 6자회담 재개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전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주장, 카터 전 대통령은 6자회담 북한 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공항에서 출발 직전 5분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신화통신은 전함.

■ 기타 (대외)

- 김영남, 우크라이나 국경철 즈음 '워토프 야누코비치' 대통령에게 축전(8/24, 중통)
- 중국 '호금도' 국가 주석, 8/24 김정일에게 '北 홍수피해' 관련 위문 전문 전달(8/25, 중통·중방)
 - 중국 정부, 對北 '긴급구호물자' 제공 결정(8/25, 중통; 8/26, 중방)
- 中 인민해방군 심양군구 대표단(단장: 사령원 '장우협' 중장), 평양 도착(8/25, 평방)
- 베트남 인민군 정치일꾼 대표단(단장: '응오 쉐언 릭' 총정치국 부주임, 중장), 평양 도착(8/25, 평방)
- 在北 中 기업가 '장경영', 8/15 라선시 앞바다에서 北여성 3명 구조후 익사(8/26, 중통)
- 北 외무성, 조선-쿠바 사이 외교관계설정 50돌 즈음 연회 마련(8/26, 중통·평방)

3 대남

● 北김영남, “핵억제력 기초한 보복성전” 주장(8/24,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핵전쟁 도발 기도’라고 비난하면서 “그에 대응한 초강경의 자위적 조치로써 필요한 임의의 시기에 핵 억제력에 기초한 우리식의 보복성전을 개시해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격멸 소탕할 것”이라고 주장
-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이날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혁명 영도’ 개시 50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보고를 통해 “오늘 조선(한)반도에는 힘으로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의 무모한 침략전쟁 도발 책동으로 하여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최악의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제와 남조선 괴뢰역적 패당의 무분별한 핵전쟁 도발 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 그는 이어 노동당을 “선군혁명의 참모부이며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라고 지적하고 내달 초 열리는 노동당 대표자회를 계기로 “당을 더욱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영도적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 모든 사업이 철두철미 당의 노선과 정책에 기초하여, 당의 사상과 의도에 맞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 또 “오늘 우리 앞에는 혁명적 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거세차게 지펴 올림으로써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하루빨리 건설하고 조국통일과 주체혁명 위업의 중국적 승리를 앞당겨 나가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면서 국방력과 ‘자위적 전쟁억제력’ 강화에 주력할 것을 촉구
- 이날 행사에는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리용무·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리영호 군 총참모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주상성 인민보안부장, 최영립 내각 총리,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주규창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백세봉 제2경제위원회(군수경제) 위원장, 당 비서들인 김국태, 전병호, 우동측 국방위원회 위원, 내각 부총리들인 로두철, 박수길, 김락희, 강능수, 한광복 등이 참석
- 김 위원장의 ‘선군혁명 영도’는 그가 남산고급중학교를 졸업하고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 정치경제학과에 입학하기 직전인 1960년 8월 25일 고 김일성 주석과 함께 ‘근위서울 류경수 105땅크(탱크)사단’을 방문한 것을 일컫는 것으로, 2005년부터 갑자기 등장해 매년 기념행사를 갖고 있음.

- 北신문, 9월 한·미훈련에 “전투동원태세 만반” 위협(8/30, 조선중앙통신)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9월 초 서해상에서 실시될 한·미연합 대 잠수함 훈련에 대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천만대적이 달려들어도 단매에 (일격에) 짓뭉개버릴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힘.
 - 노동신문은 논평에서 “최근 남조선 전역에서 괴뢰들과 함께 핵시험 전쟁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합동 군사연습을 강행한 미국이 9월 초 서해에서 또 반잠수함 연합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면서 “미국은 상대를 똑바로 보고 군사전략적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함.

기타 (대남)

- 한상렬목사 연행 관련 “통일애국활동에 대한 악랄한 탄압만행”이라 비난하며 즉각적인 석방과 통일인사들에 대한 ‘탄압책동’ 중단 요구(8/23, 중통·노동신문)
- 北 ‘그리스도교연맹 중앙委’ 대변인, 한상렬 목사 “사법처리 중단, 즉각 석방” 주장 및 訪北활동 “지지와 연대, 석방운동” 선동 담화(8/24, 중통)
- 「3단계 통일방안」 제안 관련 “남북관계의 구체적 현실을 외면한 실천성 없는 공리공담, 불순한 반통일각본”이라고 持續 비난(8/30, 중통·노동신문·평방)
- 訪北 한상렬 목사 구속 관련 “은 거레는 이OO 역도의 파쇼적 탄압에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즉시 석방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선동(8/30, 평·중방)



7·8월

북한동향 일지

<7월 일지>

일시	내용	보도일자
7월01일	김정일, 조선인민군 제2기 제3차 군인가족예술소조 경연에서 당선된 군부 대들의 군인가족예술소조원들과 기념 촬영	중방(7/1)
	재러시아 동포 정일심 일행, 평양 도착	중방(7/1)
	김정일,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이승빈」 등에게 생일상 전달	중방(7/3)
7월02일	김영남, 신임 독일대통령 당선자 '크리스티안 올프'에게 축전	중통(7/2)
7월03일	김영남, 베르데갑 대통령에게 독립 및 공화국선포 35돌 즈음 축전	중통·평방(7/4)
	北외교단 사업국 대표단(단장 : 문성모 국장), 몽골 향발	평방(7/3)
7월04일	김일성의 함경남도 현지지도 30돌 기념보고회, 6/30 함흥대극장에서 광범 기(咸南道黨 책임비서/기념보고) 등 참가下 진행	중방(7/4)
	김영남, 코모르 독립 35돌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	중통(7/5)
7월05일	김영남, 베네수엘라 독립절 즈음 '우고 차베스 프리아스' 대통령에게 축전	중통(7/5)
	김영남, 말라위 독립 46돌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	중통(7/5)
7월06일	최영림(내각총리), 駐北 중국대사 「류홍차이」와 만수대의사당에서 담화	중통(7/6)
7월07일	김정일, 원산군민발전소 건설장 현지지도, 이재일, 장성택, 주규창 수행	중통(7/7)
	김정일, 조선인민군 354군부대 산하 종합식료공장 현지지도	중통(7/7)
	김영남, 폴란드 대통령에 당선된 '부르니스와브 꼬모롭스키'에게 축전	중통(7/7)
7월08일	김父子영상 모자이크벽화, 여러 단위들에서 건립 및 준공식을 진행	중통(7/8)
7월09일	김정각, 김정임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된 오중흙 생일100돌 중앙보고회에서 보고	중통(7/9)
	北 대외문화연락처·北中친선협회 중앙委, 옥류관에서 최창식(보건상/연설) 및 류홍재(駐北 中대사) 등 초청 '朝-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 49돌 연회 개최	중통(7/9)
7월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委 '정령 제942호'(7/8),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에 「인민상」 수여	중방(7/9)
	김영남, 몽골혁명승리 89돌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	중통(7/10)
7월11일	김영남·최영림, 상투메 프린시페 독립 및 공화국선포 35돌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7/9 축전	중통(7/11)
7월12일	김정일, 비전향장기수 김은환 의 80회 생일상 전달	중방(7/13)
	김정일, 대계도간석지 현지지도	중방(7/15)
	박익춘외무상, 작별방문한駐北독일대사와담화	중통(7/12)
7월13일	김영남, 離任駐北독일 대사 '토마스 쉐퍼'와 담화	중통(7/13)
	김정일, 압록강수산사업소 축양장과 굴 양식장 현지지도	중방(7/15)
7월14일	北조선노동당출판사 '김일성전집제7권'(1988/1-12사이)김일성의9건노작수록 출판	중방(7/14)

7월15일	김정일, 평안북도 '대계도간석지', 압록강수산사업소 '축양장과 굴양식장' 현지지도	중통·중방(7/15)
7월16일	北-러공동선언발표(2000/7/19)10돌즈음駐北러시아대사양형섭(상임위부위원장), 이영철(黨부부장), 궁석웅(외무성부상)등 초청下연회개최	중통(7/16)
	외교단사업국대표단문성묵국장,몽골방문후귀국중방	중통(7/16)
7월17일	北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 최영림내각총리 등참가下진행	중통(7/17)
7월18일		
7월19일	김정일, 김정숙평양제사공장 및 평양방직공장 예술선동대 공연 관람	중통(7/19)
	김정일, 박이근 노인(女, 평북 용천군 신암리)에게 100살 「생일상」 전달	중통(8/19)
7월20일	김정일,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예술소조원들과 평양방직공장 기동예술선동대 공연 관람	중통(7/20)
	박의춘(외무상),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베트남 하노이, 7/23) 참가차 평양 출발	중통(7/20)
7월21일	김정일, 희천발전소 건설에서 모범을 보인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	중통(7/21)
	김정일, 강심환(김일성훈장 수훈자)과 허철용(北적십자종합병원 교수)에게 「생일상」 전달	중방(7/21)
7월22일	박의춘, 하노이에서 中 외교부장 「양제츠」와 담화	중통(7/23)
7월23일	박의춘, 베트남 정부 수상 겸 외무상과 담화	평방(7/24)
7월24일	김정일, 평양교예단 종합교예공연 관람	중통(7/24)
	박의춘, 베트남 정부 수상 겸 외무상과 회담 진행	중통(7/25)
7월25일	김영남, 몰디브 독립절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	중통·평방(7/25)
7월26일	김영남, 이임 駐北 스웨덴 대사 접견	중통(7/26)
7월27일	김영남, 7/26 駐北 스웨덴 대사 離任 접견	중통(7/26)
7월28일	김정일, 전승절 57돌 즈음 공훈국가합창단의 경축음악회 관람	중방(7/28)
	김정일, 인민군대를 성심성의로 원호한 선교구역 종합식당 등 일꾼에게 「감사」 전달	중방(7/28)
7월29일	김영일, 訪北 '호정약' 中 외교부장조리와 담화	중방(7/29)
7월30일	김정일, 자강도 내 여러 공장들(강계트랙터종합공장, 장자강공작기계공장, 9월방직공장) 현지지도	중통(7/30)
7월31일	김정일, 자강도 강계시의 경공업부문 공장들 현지지도	중통(7/31)
	김정일, 자강도 강계시의 경공업부문 공장들(장자산종합식료공장·강계기초식품공장·강계교려약공장·희천청년전기연합기업소) 현지지도	중통(7/31)
	김정일, 희천청년전기연합기업소 현지지도	중통(7/31)

<8월 일지>

일시	내용	보도일자
8월01일	김정일의 咸北道 현지지도 10돌 기념보고회, 7/31 오수용(咸北黨 책임비서/기념보고) 등 참가자 진행	중통(8/1)
8월02일	김정일, 2.8비날론연합기업소 현지지도	중통(8/2)
8월03일	김정일, 용성기계연합기업소와 흥남비료연합기업소 건설장 현지지도	중통(8/3)
	김정일, 함경남도 인민소비품전시회장 참관	중통(8/3)
8월04일	김정일, 서성구역 하신동 초급당 12세포 당원 등에게 「감사」 전달	중통(8/4)
	김정일, 금야강군민발전소 건설장 현지지도	중통(8/4)
	김정일, 이경희 노인(평양시 보통강구역 보통강1동)에게 100살 「생일상」 전달	중통(8/4)
	김정일, 함경남도 인민소비품전시회장 참관	중통(8/4)
8월05일	김정일, 완공단계 금야강군민발전소 건설장 현지지도	중통·중방(8/5)
8월06일	김영남, 코트디부아르 독립 50돌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	중통(8/6)
8월07일	김정일, 희천발전소 건설을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	중통(8/7)
8월08일	北 평남·함남·강원도 등지에서 폭우피해 복구사업 적극 추진중	중통·중방(8/8)
8월09일	김영남, 싱가포르국경절 45돌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	중통(8/9)
8월10일	제4차 유엔사·북 군부 대좌(대령)급 실무접촉이 판문점에서 진행	중통(8/10)
8월11일	김정일, 대계도간석지 건설에 기여한 일꾼들과 건설자들에게 표창	중통(8/11)
	양형섭, 訪北 中-北 우호방문단과 담화 北赤 위원장, 訪北 한상렬 목사 귀환(8/15, 판문점) 관련 韓赤 총재 앞으로 무사귀환 요청 통지문 발송	중통(8/11) 중통·중방(8/11)
8월12일	이영호(총참모장), 중국 공안대표단 단장 '류경' 중공안부 상무부장과 담화	중방(8/12)
8월13일	박의춘 외무성, 8/12 콜롬비아 외무상(마리아 앙헬라 울긴)에게 축전	중방(8/13)
8월14일	김정일, '윤기정'(당 중앙위 후보위원) 영전에 화환 전달	중통(8/16)
	北赤 중앙위원장(장재언), 訪北 한상렬 목사의 8월 20일 15시(판문점) 귀환 연기 및 "필요조치 요청" '통지문' 韓赤 총재에게 발송	중통·중방(8/14)
8월15일	김정일, 8.15광복 65돌 즈음 러시아 대통령에게 축전 발송	중통(8/15)
	김영남, 러시아연방대표단과 만수대의사당에서 담화	중통(8/15)
8월16일	노두철(내각 부총리), 訪北 라오스정부 상임 부수상과 담화 및 연회 개최	중통(8/16)
8월17일	김정일, 흥정주(평남 속천군)·조정숙(강원도 문천시) 할머니에게 100돌 생일상 전달	중통(8/17)
8월18일	김정일, 함흥대극장에서 경희극 '산울림' 관람	중통(8/18)
8월19일	김영남, 만수대의사당에서 訪北 한상렬 목사와 담화	중통(8/19)
	김형준(외무성 부상), 대동강외교단회관 진행된 北-쿠바 외교관계 설정 50돌 경축집회 참석	중통(8/19)

	박의춘(외무상), 駐北 독일 新任대사 '게르하르트 티데만'과 담화	중통(8/19)
8월20일	北, 한상렬목사 환송집회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에서 개최	중통·중방(8/20)
8월21일	北 정부 과학기술대표단(단장 : 리자방 국가과학기술위원장), 중국 항발	중통(8/21)
8월22일	김정일, 음악무용대공연 '선군승리 천만리' 관람	중통(8/22)
8월23일	김정일, 천발전소 건설 지원에서 모범을 보인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	중통(8/23)
	김정일,故 권정웅(4.15문학창작단 작가) 영전에 화환 전달	중통(8/23)
8월24일	김정일, 927닭공장 현지지도	중통(8/24)
	김정일 선군혁명영도 시작 50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평양체육관에서 진행	중통·중방(8/24)
8월25일	김정일, 평양 곡산공장 현지지도	중통(8/25)
	김계관(외무성 부상), 美 前대통령 '지미 카터' 일행, 평양 도착시 비행장 영접	중통(8/25)
	黨대표자회 대표자 선거를 위한 조선인민군 대표회, '김정일'을 대표자로 추대	중방(8/27)
8월26일	김정일, 故 김성규(黨 부장, 77세) 빈소에 화환 전달	중통(8/26)
	김정일, 8/26~30간 중국 비공식 방문 및 中 국가 주석 '호금도'(胡錦濤)와 정상회담	중통(8/30)
8월27일	美 前대통령 '카터' 일행 訪北(8/25-27) 관련 "北美 현안문제 논의 및 '곰즈' 석방 및 평양 출발 소식" 보도	중통·중방(8/27)
8월28일	김정일,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한 근로자들(경공업성 기술준비원 이은경, 노동자 이승호 등)에게 「감사」 전달	중통(8/28)
8월29일	김정일, 北-쿠바 외교관계 설정 50돌 즈음 쿠바 수상에게 축전	중통(8/29)
	김정일, 비전향장기수 '조창손'에게 생일상 전달	중통(8/29)
8월30일	김영남, 베트남軍 정치일꾼 대표단과 담화	중통(8/30)
	평양예술단, '2010년 상해 세계박람회 조선의 날 행사' 참석차 중국 항발	중통(8/30)
8월31일	김정일의 김일성종합대학 혁명활동 시작 50돌 기념 중앙보고회,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중방(8/31)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訪北 中 인민해방군 심양군구 대표단 '장우협' 중장과 담화	중통(8/31)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